

M46-9-2/2007.07
제9권 제2호/Vol. 9 No. 2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데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팀이 북한의 최근 농업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1, 4, 7, 10월)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2-3299-4324 전송 02-959-6110
- 내용 문의:

권태진	kwontj@krei.re.kr	02-3299-4255
김영훈	kyhoon@krei.re.kr	02-3299-4367
이정연	sabrina@krei.re.kr	02-3299-4370

목 차

□ 포커스

북중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과 시사점 / 3

□ 동향분석

- | | |
|--------------|------------------|
| 1. 농업정책 / 16 | 6. 농업 기반 / 50 |
| 2. 벼농사 / 29 | 7. 산 림 / 55 |
| 3. 축 산 / 38 | 8. 기타 작물 / 60 |
| 4. 감자농사 / 43 | 9. 기타 보도 동향 / 72 |
| 5. 이모작 / 46 | |

□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 79
 -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79
 - 2. 교류협력사업 동향 / 88
 - 3.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89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 108
 -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108
 -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 112

□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 121

포 커 스

● 북중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과 시사점

북·중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과 시사점

권 태 진

(선임연구위원, kwontj@krei.re.kr)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다. 북한은 전체 수입의 39%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1992년 중국이 북한에 대해 우호가격제를 폐지하고 경화결제제를 요구한데다 한중수교가 이루어져 한 동안 북중 교역이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2001년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역이 다시 증가하였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주민 중 소득이 높은 계층이 형성되고 주민의 상업 활동이 증가하면서 일부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하였다. 시장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돼지고기, 식용유, 밀가루의 수입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000년 대비 돼지고기는 4년 동안 수입액이 179배, 밀가루는 5년 동안 4배, 대두유는 6년 동안 18배나 수입이 증가하였다. 이들 품목의 수입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장의 물가동향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 시장 가격이 상승할 경우 공장 수입 증가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배급 축소로 인해 시장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북한 당국이 그 만큼 시장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중 곡물이나 밀가루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북 식량차관이 시작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식량 수입량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식량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매년 상당한 양의 곡물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자체 생산량이 적은 양념채소류, 과일류, 대두 등도 꾸준히 수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중국에 대한 농림수산물 수출은 주로 수산물에 집중되어 있다. 채소류, 견과류, 채유용 종자, 의료용 식물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농산물 수출은 그 액수가 크지 않다. 북한의 농업 정책이 수출 농업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연체동물을 비롯한 갑각류, 신선 어류에 대한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4년을 고비로 수출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이들 품목에 대한 어획량이 감소한데다 국내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1. 서 론

북한은 대외경제정책을 자립경제 건설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외 무역의존도는 그리 높지 않다. 선군시대 경제건설의 일차적 목표는 사회주의 경제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전략적 노선은 국방공업을 우선 발전시키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인민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경제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설비와 물자를 수입하여야 하며 인민생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자와 원자재를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외국에서 필요한 물자와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외환이 필요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외무역의 필요성은 이와 같이 자력갱생을 보완하는 데서 출발한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 동맹권의 붕괴로 인해 대외협력 기반이 무너져 대외무역액이 급속히 감소하였다. 더구나 북한의 주요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마저 구상무역에서 경화 결제로 전환함에 따라 북한은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였다(이원복, 이용삼, 2001).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1998년 14억 4,200만 달러를 저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의 대외무역 규모는 수입 20억 4,900만 달러, 수출 9억 4,700만 달러로 총 29억 9,600만 달러였으며 11억 2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2006년의 남북한 교역액은 13억 4,970만 달러이며 이를 포함한 전체 교역 규모는 43억 4,550만 달러이다(표 1).

북한의 대외 교역 국가 중 중국은 교역규모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 최근 남북한 교역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2006년의 경우 중국 및 한국과의 교역 규모는 전체 교역액의 70%를 상회하였다(표 1).

표 1. 북한의 연도별 교역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중 국	737.5	27.6	738.2	25.4	1022.9	32.8	1385.2	39.0	1580.3	38.9	1699.6	39.1
한 국	403.0	15.1	641.0	22.1	724	23.2	697.0	19.6	1055.8	26.0	1349.7	31.1
태 국	130.1	4.9	216.6	7.5	254.3	8.2	329.9	9.3	329.2	8.1	374.2	8.6
러시아	68.3	2.6	80.7	2.8	118.4	3.8	213.4	6.0	232.3	5.7	210.6	4.8
일 본	474.7	17.8	369.5	12.7	265.3	8.5	252.6	7.1	193.6	4.8	121.6	2.8
기 타	859.9	32.2	855.4	29.5	730.4	23.4	676.0	19.0	666.2	16.4	589.8	13.6
총 계	2673.5	100.0	2901.4	100.0	3115.3	100.0	3554.1	100.0	4057.4	100.0	4345.5	100.0

자료: KOTRA. 2007. 「2006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주민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식품 소비 패턴이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식품이나 고급 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상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가격 안정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그렇지만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국내 생산이 뒷받침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농산물은 중국을 통해 수입되기 때문에 북중 농산물 교역 실태를 파악한다면 북한 사회의 식품 패턴 변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다.

2. 북·중 교역 동향

중국은 수교국을 단순 수교, 선린우호, 동반자, 전통적 우호협력, 혈맹의 5단계로 구분하고 북중 관계를 최고수준인 혈맹 관계로 설정하였다.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로 한 단계 낮추기는 하였지만 북한과 중국은 서로 특수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윤근로, 2007).

북한과 중국의 교역은 1950년에 체결된 ‘북중 제1차 무역협정’과 1961년에 체결된 ‘북중 우호협력조약’을 바탕으로 활성화되었다. 북한과 중국은 물물교환 형태의 바터무역과 동맹국 사이의 우호가격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양국간의 교역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배종렬, 2006).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식량을 비롯하여 에너지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도입하였으나 1992년 중국이 북한에 대해 우호가가격제를 폐지하고 바터무역을 경화 결제로 전환하도록 요구한데다 북한의 경제사정마저 어려워한 때 북중 교역이 축소되기도 하였다. 특히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 사이에 국교가 정상화된 것도 북중 교역을 위축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 한중간의 국교정상화는 북중 고위급 간부의 상호방문 중단으로 이어져 북중 교역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1996년부터 중국이 북한에 대해 우호가가격제를 다시 적용하고 경제기술합작협정을 체결하는 등 북중 관계가 복원되었다(윤근로, 2007). 2001년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중 교역은 다시 활성화되었다(KOTRA,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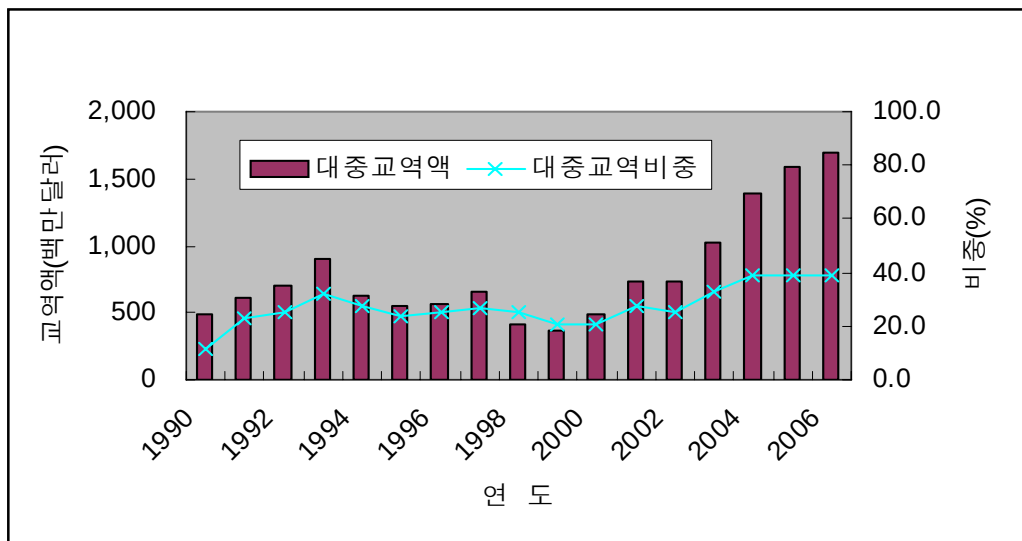
1999년 6월에 개최된 북중 고위급 간부의 상호 방문은 북한과 중국의 경제교류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북중 교역은 1993년 9억 달러를 정점으로 199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99년을 고비로 급속히 증가하였다(그림 1).

현재 중국은 북한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으로 전체 교역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2006년의 경우 중국과의 교역액이 전체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에 이른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교역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남북한 교역을 제외하면 북중 교역액은 전체 교역액의

56.7%에 이른다.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으며 매년 적자폭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대중 무역적자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2006년에는 적자 규모가 11억 달러에 이르렀다.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해소시킬만한 수출 상품을 개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당분간 무역적자를 줄이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림 1. 북한의 대중 교역 추이



북한은 전통적으로 식량이나 석유류 등 전략물자를 중국에서 수입하였다. 북한은 광물연료, 곡물, 제분제품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용 육류나 가전제품 등으로 수입 품목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품목의 수입 증가는 북한의 사회경제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빈부의 격차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부유층이 형성되고 이들에 의해 육류나 가전제품의 수요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2006년 말 기준으로 2,000만 달러 이상 수입하는 품목은 광물연료(27류), 식용육류(02류), 전기기기(85류), 일반기계(84류), 플라스틱제품(39류), 인조플라멘트섬유(54류), 일반차량(87류), 철강(72류), 제분제품(11류), 동식물유지류(15류), 비료(31류), 철강제품(73류), 무기화합물(28류), 고무류(40류) 등 14개이며 이들 품목의 수입액은 9억 2,810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 12억 3,189만 달러의 75.3%를 차지한다.

한편 2006년 말 기준으로 2,0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품목은 광·슬랙·회(26류), 광물성연료(27류), 편물제 이외의 의류(62류), 어패류(03류), 철강(72류), 목재·목판(44류)

등 6개이며 이들 품목의 수출액은 3억 8,913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 4억 6,772만 달러의 83.2%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과실·견과류(08류)를 비롯한 일부 농산물, 아연과 그 제품(79류)을 비롯한 비금속류의 수출이 활발한 편이다.

3. 북·중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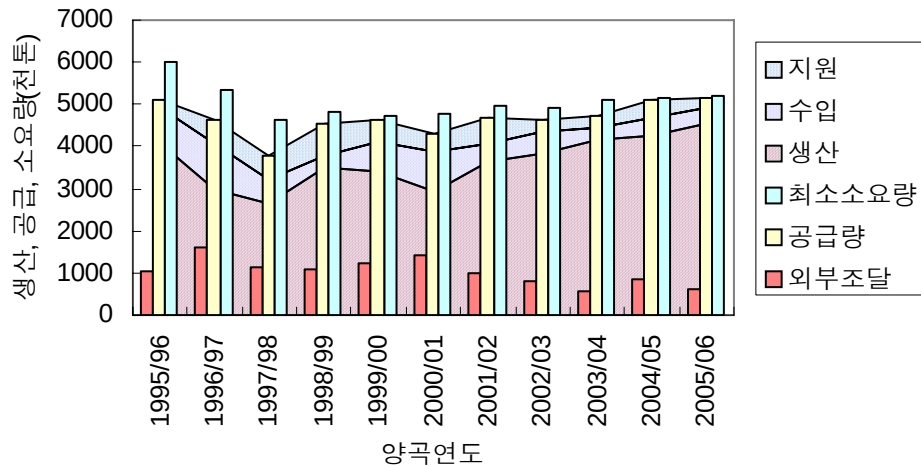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식량난 이후 먹는 문제 해결에 농업정책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다. 주요한 농업정책을 살펴보아도 농산물 수출을 강조하는 대목은 찾기 힘들다. 유엔을 비롯한 외부의 지원과 한국의 대규모 식량 차관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업적 수입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더구나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정부의 식량배급이 축소되고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자연히 외부의 농산물 반입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잘 사는 계층이 생겨나면서 식품 소비 패턴이 다양화되고 상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상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식품재료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들 식품 재료는 지리적 여건으로나 전통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히 중국산 농산물 수입에 의해 충당될 수밖에 없었다.

선진국 국민의 식품소비 패턴 변화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 때는 기본적인 열량을 충족하기 위하여 탄수화물 소비가 집중적으로 증가하지만 점차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육류나 어류 등 단백질원의 소비가 증가하다가 섭취하는 열량이 일정 한도에 도달하면 채소, 과일 등 저칼로리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현재 북한 주민의 소득 분포를 감안할 때 대부분의 주민은 기본적인 열량마저 충족하지 못하는 빈곤계층에 속하지만 일부 주민은 이 단계를 넘어 서서히 육류 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북한주민 1인당 1일 1,600Kcal의 열량을 공급하고 최소한의 사료용 및 가공용 곡물, 종자, 수확 후 손실 등을 감안한 최소소요 식량은 520~530만 톤 정도로 추정된다. 그런데 현재 북한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식량은 감자를 포함하여 430~450만 톤 내외로 추정되기 때문에 연간 80~90만 톤 정도의 곡물을 외부에서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주민 1인당 1일 1,600Kcal는 유엔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2,130Kcal의 75%에 불과한 것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이 정도의 열량만 공급된다면 기아를 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연간 80~90만 톤의 식량을 외부에서 조달하지 못할 경우 주민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원을 받는 상업적으로 수입을 하든 식량 문제를 맨 먼저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 2000년 이후 한국정부는 북한에 대해 매년 40~50만 톤 정도의 곡물을 북한에 차관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은 매년 10~20만 톤 정도의 곡물을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차관과 세계식량계획의 무상지원량을 합하면 연간 50~70만 톤 정도가 된다. 따라서

북한은 연간 20~40만 톤의 곡물을 상업적으로 수입해야만 최소한의 식량을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다(그림 2).

그림 2. 북한의 식량수급 추이



북한의 연도별 곡물 도입 실적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북한의 연도별 곡물 도입 실적

단위: 만 톤

연 도	중국	시리아	태국	캐나다	일본	EU	기타*	합 계
1991	30.0	-	9.0	35.0	-	-	55.0	129.0
1992	62.0	-	2.0	8	-	-	11.0	83.0
1993	74.0	-	7.8	16	-	-	11.5	109.3
1994	30.5	-	5.2	-	-	-	13.3	49.0
1995	15.3	-	16.2	-	37.0	-	27.7	96.2
1996	54.7	14.0	3.0	-	13.2	-	20.1	105.0
1997	86.7	3.4	3.8	-	-	11.5	57.6	163.0
1998	28.8	10.4	-	-	5.9	8.2	57.9	111.2
1999	23.8	6.1	-	-	-	2.0	75.1	107.0
2000	28.3	-	28.4	-	10.6	4.0	51.2	122.5
2001	43.6	0.5	-	-	50.0	2.2	43.7	140.0
2002	21.9	-	20.0	-	-	-	58.6	100.5
2003	34.9	-	9.5	5.1	-	1.0	30.4	80.9
2004	9.0	-	18.4	-	-	0.3	30.4	58.1
2005	32.7	-	10.0	1.4	-	1.5	40.4	86.0
2006	7.9	-	0.2	-	-	-	1.9	10.0

* 기타 국가 및 국제기구를 통한 곡물지원량 포함.

자료: Kotra. 2007. 「2006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외부의 지원과 상업적 수입을 합쳐 북한은 2002년까지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식량을 외부에서 조달해왔다. 이후 북한의 자체 식량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외부 도입량이 줄어들었다. 1997년까지만 해도 전체 곡물 도입량 중 중국에서 도입하는 곡물의 비중이 절반을 넘었으나 그 후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표 3). 일본의 대규모 식량지원이 완료된 2001 이후에는 한국의 대북 식량차관이 중요한 식량 공급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의 식량차관을 제외하면 중국과 태국이 북한의 주된 식량 공급원이다. 한국의 대북 쌀 차관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면서 북한은 쌀 수입원을 중국에서 태국으로 전환하였다. 그 대신 중국에서는 옥수수나 밀가루의 수입을 늘리고 있다. 대부분의 밀가루는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북한 주민의 상업 활동이 증가하면서 밀가루 수요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시장의 밀가루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밀가루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표 3. 북한의 주요 농림수산물 대중 수입물량

단위: 톤

코드	품 목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3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	888	5,059	8,989	47,017	87,086	61,655	75,436	9,569
808	사과·배	3,669	5,492	8,621	12,923	25,529	22,162	11,821	7,538
1001	밀	37	3,106	3,981	95,407	11,237	11,220	0	0
1005	옥수수	203,710	387,591	147,320	133,027	39,614	277,723	40,314	6,971
1006	쌀	51,835	86,909	71,750	112,805	37,521	48,554	38,921	11,323
1101	밀가루	32,622	56,911	56,435	48,425	66,567	111,062	128,138	46,339
1201	대두	44,921	45,290	48,526	35,548	35,473	38,816	34,904	13,622
1507	대두유	2,217	1,408	595	3,565	1,508	16,299	39,184	14,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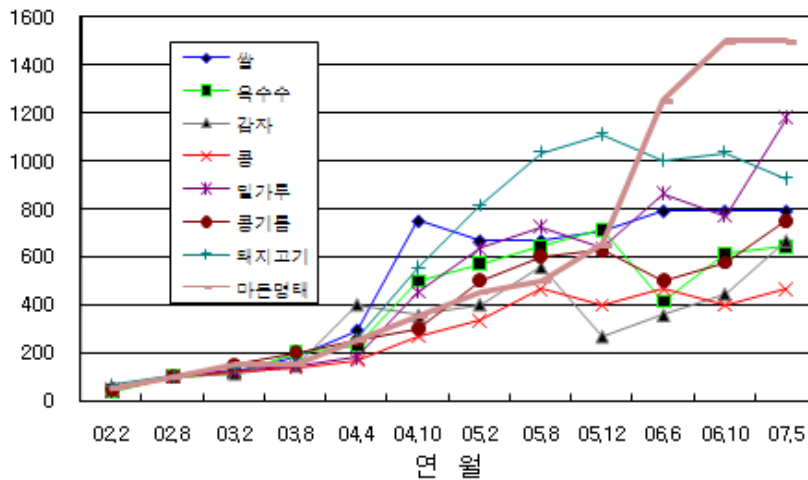
주: 수입물량은 수입금액을 수입 평균단가로 나누어 산출한 것임.

자료: 무역협회 KITA.NET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주요 농산물의 상대가격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의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지표가 되는 쌀 가격은 8배로 올랐다. 최근 콩기름 가격도 가파르게 올라 거의 8배 수준이다. 그러나 밀가루, 돼지고기, 마른명태 가격은 쌀 가격 상승률을 앞선다. 이들 품목은 모두 상업 활동을 위한 주재료로 사용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즉, 주민들의 시장 참여가 늘고 시장에서의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들 품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증가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수입 증가 또는 수출 감소로 연결되는 것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2000년만 해도 수입량이 1,000톤을 밑돌았으나 2001년에는 5,000톤으로 증가하고 2003년에는 47,000톤으로 2년 사이에 거의 10배 가까이 수입량이 급증하였다. 2004년에는 중국으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량이 87,000톤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후 수입이 약간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2000년과 비교하면 수십 배에 이른다(표 3).

그림 3. 북한 시장의 주요 농산물 상대 가격 변화 추이(2002. 8 = 100)



북한 주민의 생활형편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대두유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3~04년 동안 시장의 대두유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대두유 수입도 급증하였다. 2004년 대두유 수입이 1,500톤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에는 16,000톤으로 수입이 급증하였으며 2006년에는 39,000톤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07년에도 이어져 5월까지 중국에서 15,000톤의 대두유를 수입하였다. 이러한 대두유 수요증가는 주민의 상업 활동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쌀에 비해 상대가격 상승이 낮은 품목은 감자와 옥수수, 콩 등이다. 감자의 경우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옥수수의 경우 2000년 이후 재배면적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공급이 안정적이고 식품의 특성상 열등재에 속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콩의 경우 최근 주민의 상업 활동이 증가하면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콩 재배면적의 증가로 공급도 함께 증가함으로써 가격이 안정적이다.

곡물류나 돼지고기, 대두유 이외 북한이 중국에서 꾸준히 수입하는 농산물은 채소류, 견과류, 과일류 등이다. 북한 내 생산기반이 미약하거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품목들이다. 돼지고기 이외 쇠고기나 닭고기를 수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양은 많지 않다. 수산물의 수입은 많지 않다. 냉동어류나 건조·염장·훈제한 어류는 수출과 수입을 병행하고 있다. 냉동어류의 경우 수입보다는 수출이 많으며 건조·염장·훈제한 어류는 수입이 수출을 능가한다(표 4, 5).

표 4. 북한의 주요 농림수산물 대중 수입실적

단위: 천 달러

코드	품 목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2	냉동 쇠고기	442	512	315	191	827	2,231	3158	168
203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	755	5,160	9,708	56,420	134,984	95,565	108,628	15,406
207	가금류의 고기와 식용설육	245	1,023	339	7,012	4,758	6,044	0	0
303	냉동어류	90	95	86	304	136	835	1,186	500
305	건조·염장·훈제한 어류	431	1,336	6,885	12,467	4,158	2,452	7,969	4,555
407	조란과 난황	87	430	161	56	19	2	11	10
602	기타 산 식물	8	19	91	23	73	85	39	23
703	양파·쪽파·마늘	18	0	76	335	307	436	438	10
704	양배추·꽃양배추	17	93	134	104	230	72	0	0
709	기타 채소	42	4	200	152	274	229	465	12
712	건조한 채소	1,025	1,663	2,025	2,590	3,028	5,529	7,106	1,812
713	건조한 채두류	783	546	233	1,585	3,349	448	216	166
802	기타 견과류	1,743	888	2,152	2,626	1,413	570	382	386
805	감귤류 과일	101	161	201	262	550	502	399	152
808	사과·배	477	714	1,207	1,680	3,574	2,881	1,655	980
904	고추	22	359	248	104	570	620	379	16
1001	밀	7	559	637	13,357	2,135	2,244	0	0
1003	보리	70	85	80	339	54	101	0	7
1005	옥수수	20,371	42,635	14,732	14,633	5,546	36,104	5,644	1,185
1006	쌀	13,477	19,120	14,350	21,433	7,129	11,653	10,898	3,397
1008	메밀·조	99	205	104	160	228	153	305	138
1101	밀가루	5,872	10,244	9,594	7,748	13,979	23,323	26,909	10,658
1107	맥아	742	475	246	286	322	431	459	213
1108	전분과 이눌린	96	85	94	14	17	105	85	35
1201	대두	8,535	9,511	9,220	8,176	10,642	9,704	8,028	4,359
1202	낙화생	104	299	306	161	191	323	185	157
1207	기타 채유용 종자와 과일	1,310	5,114	107	168	310	191	86	77
1507	대두유	1,463	831	381	2,139	1,206	10,920	26,252	12,829
	합 계	58,432	103,166	73,912	154,525	200,009	213,753	210,883	57,251

자료: 무역협회 KITA.NET

북한의 주요 농림수산물에 대한 대중 수출 실적은 <표 5>와 같다. 주요 수출품은 연체동물을 비롯한 갑각류, 신선 또는 냉장 어류 등이다. 의료용 식물이나 채유용 종자와 과일, 견과류 등의 수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출금액은 크지 않다. 특히 수출 주종을 차지하는 갑각류와 연체동물의 수출액은 2005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수출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는 2006년부터 수출이 중단되고 있다. 이들 어류의 수출이 감소한 것은 북한의 에너지 수입이 급감하면서 해상 조업 일수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어획량이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표 5. 북한의 주요 농림수산물 대중 수출실적

단위: 천 달러

코드	품 목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302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0	1,125	6,078	24,208	57,252	23,270	0	0
303	냉동어류	854	754	2,991	1,063	1,612	2,286	3,328	2,261
305	건조·염장·훈제한 어류	84	83	848	58	83	239	353	21
306	갑각류	2,035	7,889	22,534	78,652	74,135	15,382	1,406	320
307	연체동물	1,075	38,125	110,557	102,950	128,148	51,140	38,177	6,754
709	기타 채소	328	245	1,203	431	1,006	813	0	0
711	일시 저장 처리한 채소	69	119	253	332	421	633	891	106
712	건조한 채소	133	839	2,215	764	824	657	784	35
802	기타 견과류	98	3,700	560	4,343	4,481	4,896	9,593	566
1207	기타 채유용 종자와 과실	85	17,181	3,582	2,909	3,514	2,699	1,816	1,263
1211	향료용·의료용 식물	766	1,205	5,945	4,612	2,875	3,838	2,192	315
1212	해조류와 기타 조류	34	78	315	270	357	383	512	236
1605	조제·저장 처리한 갑각류	8	43	272	24	101	490	893	489
	합 계	5,569	71,386	157,353	200,616	274,809	106,726	59,945	12,366

자료: 무역협회 KITA.NET

참고문헌

- 동용승. 1998. “북한의 무역현황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 「북한경제논총」 제4호. 북한경제포럼.
- 박노경. 2001. “북한의 대외무역구조분석 : 1960-1990” 「한국동북아논총」 제19집. 조선대학교.
- 배종렬. 2006. “북·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변화전망” 「수은 북한경제」 2006 겨울호.
- 윤근로. 2007. “북한-중국 관계변화와 시사점: 경제 및 정치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아태 쟁점과 연구」 2007 봄호. 한양대학교.
- 이원복, 이용삼. 2001. “북한의 대외교역 구조적 특징” 「국제무역연구」 제7권 제2호. 대구대학교.
- Kotra. 2007. 「2006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동향 분석

1. 농업정책
2. 벼농사
3. 축산
4. 감자농사
5. 이모작
6. 농업 기반
7. 산림
8. 기타 작물
9. 기타 보도 동향

동향분석 요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가 4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농업관련 올해 예산을 작년에 비해 14.5% 증액 배정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올해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에 비해 3.3% 늘어났으며 농업부문에 대한 지출은 8.5% 늘어 알곡과 축산물생산을 높여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해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2/4분기 농업동향을 살펴보면 4월과 5월에는 각 지역의 협동농장들이 벼랑상모판씨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올해 모내기가 5월 10일 황해남도를 시작으로 6월 16일까지 전국적으로 모내기가 완료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감자심기는 4월 28일 대흥단군에서 시작되었다.

이모작과 관련하여 황해남도의 농촌에서는 6월 들어 밀, 보리 수확이 시작되었으며, 모내기전투와 밀, 보리 수확과 탈곡을 적기에 끝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벌여 밀, 보리 수확과 뒤그루 작물 심기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토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각 도, 시, 군에서는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나무심기, 도로건설과 기술개건, 강화천 정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라선시에서는 작년 2천 정보의 토지를 정리한데 이어 올해에 또다시 130여 정보의 토지를 정리하여 논으로 풀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산림과 관련하여서는 각 지역의 임산사업소들에서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생산된 통나무들이 압록강류별사업소에서는 4월 17일, 대동강상류 운흥물동에서는 4월 20일에 첫 떼물이가 성과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콩농사와 관련하여 각 지역 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면적에 콩을 심도록 목표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5월말에 콩 심기가 시작되어 대부분 6월초에 마무리 되었다.

최근 각 지역 단위에서는 버섯공장을 새롭게 건설하고 있으며 지역의 버섯공장에서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버섯재배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양어지도국에서 논판양어를 적극 벌리기 위한 조직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한다. 논판양어는 품을 들이지 않고서도 정보당 알곡생산을 1.3배나 높이면서 수백kg의 물고기를 공짜나 다른 없이 손쉽게 얻어낼 수 있는 실리적인 좋은 물고기생산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 바다가양식사업소의 밥조개, 섭, 미역 등의 양식사업을 소개하고 있으며, 4월 약초재배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또한 개구리의 보호 증식에 관한 보도도 있다.

봄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업과 임업, 양어사업에서 과학적 영농을 특히 강조하고 있으며 주체농법의 요구가 바로 과학적 영농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1. 농업정책

- 농업전선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고 다시 한번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할 데 대한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그 전해 대비 114.5%에 달하는 자금을 농업부문에 대증으로써 농업생산을 늘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음. 올해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의 103.3%로 늘어나게 되며 농업부문에 대한 지출은 108.5%로 늘어 알곡과 축산물생산을 훨씬 높여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해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 것임.

- 최고인민회의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진행 보도(로동신문 4. 1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가 4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음.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당, 무력기관,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 부문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음.

-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토의되었음.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95(2006)년 사업정형과 주체96(2007)년 과업에 대하여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 95(2006)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96(2007)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 3. 조직문제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95(2006)년 사업정형과 주체96(2007)년 과업에 대하여 - 농업부문

- 지난해 당의 종자혁명방침 관철을 위한 투쟁 속에서 농업부문에 다수확품종의 새로운 종자들이 널리 보급되고 선진영농방법과 능률 높은 새 농기계들이 수많이 창안·도입되었으며 원산목장이 완공되어 조업하고 구성닭공장, 광포오리공장 가공직장이 개건·확장되는 등 축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다져짐으로써 최단기간 안에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귀중한 밑천이 마련되게 되었음.
- 올해 경제건설 분야의 중심과업은 인민생활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있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와 구상을 높이 받들고 이미 마련된 농업과 경공업의 토대에 의거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을 추켜세워 전반적 경제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발양시키며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계속 힘 있게 추진시키고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를 우리 식으로 원만히 해결해나가는 것임.
- 내각에서는 올해에도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국가적인 력량을 집중하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룩할 것임.
- 농업부문에서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받들고 다수확품종의 종자들을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적극 받아들이며 거름원천을 최대한 동원하여 질 좋은 퇴비와 흙보산비료를 생산, 시비하고 그 우월성이 확증된 여러 가지 선진영농방법들을 실정에 맞게 널리 받아들여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음.
- 각급 농업지도기관들과 농장들에서 최근 년간 감자농사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고 지대적 특성에 맞게 두벌농사를 착실하게 지으며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경험을 본받아 콩농사를 알심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음.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비롯하여 우리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여 있는 농장들의 모범을 일반화하면서 전국의 농장들에서 공정별 영농작업들을 제철에 실속있게 진행하고 자체로 농사짓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는 한편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농사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농기계부속품들을 생산보장하고 농촌을 로력적으로 성의껏 지원하도록 하겠음.
- 대계도간석지를 비롯한 간석지들의 제방보강과 내부망공사를 계속 힘 있게 내밀고 새땅찾기를 적극 벌려 부침땅 면적을 늘이도록 하며 물길공사와 토지정리를 다그쳐 미루벌을 나라의 믿음직한 알곡생산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시켜나가겠음.
- 현대화된 닭공장, 오리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모든 지방들을 대대적으로

길러 고기와 알, 젖 생산을 늘이며 돼지공장을 비롯한 새로운 축산기지들의 건설을 계속 힘 있게 밀고나가도록 하겠음.

- 과수부문에서 키낮은사과나무밭 면적을 계획적으로 확장하고 그루바꿈을 전망성 있게 진행하여 모든 과수원을 청춘과원으로 만들며 잠업부문에서 뽕나무밑식재배 면적을 적극 늘이고 뽕밭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 누에고치생산을 추켜세우도록 하겠음.
- 수산부문에서 변화된 어황조건에 맞게 어로방법과 고기배, 어구를 갱신하고 바다 나물양식과 재배어업을 발전시켜 수산물생산을 늘이며 양어부문에서 양어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고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하여 인민들이 실지로 그 덕을 보게 하겠음.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 95(2006)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96(2007)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 지난해 국가예산수입은 계획에 대하여 97.5%로 수행되었으며 그 전해에 비하여 104.4%로 장성되었음. 지방예산수입계획은 104.9%로 초과 수행되었으며 지방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도 많은 자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았음.
- 지난해 국가예산지출은 계획에 대하여 99.9%로 집행되었음. 지난해 우리는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받들어 국방비로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6%를 돌렸음. 지난해 국가예산에서는 경제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하여 지출총액의 40.8%에 해당하는 자금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투자하였음.
- 농업전선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고 다시 한번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할 데 대한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그 전해에 비하여 114.5%에 달하는 자금을 농업부문에 대증으로써 농업생산을 늘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전력, 석탄, 금소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 많은 자금을 지출하여 선행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보다 확대강화하게 되었음.
- 올해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보다 105.9%로 늘어나게 됨. 그 가운데서 예산수입의 기본원천인 국가기업이득금수입은 지난해보다 106.4%, 협동단체이득금 수입은 104.5%, 고정재산감가상각금수입은 109.6%, 부동산사용료수입은 115.4%, 사회보험료수입은 115.1%로 늘어날 것으로 예견하였음.
- 올해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에 비하여 103.3%로 늘어나게 되며 그 가운데서 많은

몫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돌려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쓰도록 편성하였음.

- 올해 국가예산에서는 지난해에 비하여 농업부문에 대한 지출은 108.5%, 경공업부문에 대한 지출은 116.8%로 늘어 알곡과 축산물생산을 훨씬 높여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해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며 경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고 만부하로 돌려 질 좋은 인민소비품이 쏟아져 나오게 함으로써 인민들이 실제적으로 덕을 볼 있게 할 것임.

토론 :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에서 획기적 전진을 이룩하겠음 - 문웅조 대의원

- 지난해 농업부문에서는 온 나라의 힘있는 지원밑에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농업생산을 늘이는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 우리는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받들고 지대적 특성에 맞게 비료를 적게 요구하면서도 소출이 높은 종자를 생산 도입하는 사업을 짜고들고 다수확품종의 배치면적을 늘였으며 선진적인 재배기술을 널리 받아들였음.
- 대흥단군에서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 두벌농사지대들에서도 앞그루로 다수확품종이 무비루스감자종자를 받아들임으로써 감자생산을 훨씬 늘였음.
- 우리는 지난해 질 좋은 흙보산비료를 정보당 5t이상 내고 과학적인 영농방법들을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투쟁을 벌려 영농물자와 로력을 적게 쓰면서도 높은 소출을 낼 수 있는 경험도 쌓게 되었음.
- 지난해에도 농업전선을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고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며 필요한 로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도록 혁명적인 조치를 취했음.
- 우리는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한 전망목표를 바로세우고 올해농사작전과 지휘를 잘 하여 알곡을 비롯한 전반적인 농업 생산목표들을 기어이 점령하겠음.
- 우리는 우량한 새 품종의 농작물들을 많이 연구도입하고 채종체계와 종자공급체계를 잘 세우며 현대적인 종자가공기지를 꾸려 질 좋은 종자를 원만히 생산·보장하겠음. 또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배치를 잘하고 영양랭상모기르기와 소식재배를 비롯한 선진적인 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일것음.

- 특히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농업생산의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다수확농사경험을 창조하며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해나가겠음.
- 우리는 다수확품종의 감자재배면적을 늘이고 대홍단식감자농사방법대로 농사를 지으며 두벌농사적지를 바로 정하고 앞뒤그루에서 옹근소출을 낼 수 있는 재배방법을 도입하여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겠음.
- 이와 함께 다수확콩종자와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콩농사에서 전진을 가져오겠음.

토론 : 자체로 농사짓는 투쟁을 벌려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겠음. - 전경선 대의원

-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할 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지난해에 우리 운전군 운하협동농장에서는 지난 시기의 경험을 살리면서 현실적 조건에 맞게 로력조직을 짜고들고 경영활동을 과학화하며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여 자체로 농사짓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였음.
- 우선 우리는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고 선진영농기술을 받아들여 모든 농사일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우리는 자체의 수리기지에 의거하여 트랙또르와 모내는 기계, 연결농기계들의 수리를 제때에 하고 그 가동률과 이용률을 높이였으며 새로운 모기르기방법을 비롯한 선진영농기술을 농업생산에 받아들여 많은 로력예비를 찾아냈음.
- 또한 거름실어내기와 모판정리작업을 알맞춤한 시기를 택하여 진행하고 벼탈곡과 가마니짜기도 동시에 밀고나갈 수 있게 작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긴장한 로력문제를 풀어나갔음.
- 그리고 농장경영활동에 최신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영농사업을 과학적으로 지도하고 생산로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로력관리를 짜고들었음.
- 우리는 분조관리제의 생활력을 발양시키기 위하여 분조장대렬을 잘 꾸리고 로력과 토지, 농기계들을 고착시키는 한편 로력일평가에서도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농장원들의 주인다운 기풍과 생산의욕을 더욱 높여주었음.
- 이와 함께 농장원들의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는 것이 자체로 농사짓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해마다 30여동의 살림집을 건설하고 생활필수

품공급사업을 정상화하였으며 유채를 심고 고기생산을 늘여 세대당 유채기름과 고기공급을 정상적으로 하였음.

- 결과 우리 농장에서는 모내기과 가을걷이를 각각 열흘 동안에, 벼탈곡은 보름동안에 끌어내고 모든 영농작업을 제철에 질적으로 하였음.
- 그리하여 우리는 지난해에 생산비를 36%로부터 12%로 낮추어 쓰면서도 농장원세대당 많은 현금분배가 차례지게 하였음. 우리는 지난해 농사를 통하여 농장원대중을 옹기 발동하고 로력조직을 짜고 들며 농업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화하면 농사를 자체로 지을 데 대한 당의 방침을 훌륭히 관철할 수 있고 흥하는 농장으로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되었음.
- 올해에 우리는 선군혁명선구자대회 호소 따라 공동시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받들고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답게 농사일을 간지게 하여 알곡생산에서 전진을 이룩하겠음.
- 우리는 올해에도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잘 지어 논벼와 강냉이 정보당 생산량을 늘여 농장 앞에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겠음. 우리는 다수확 콩종자를 적지에 심고 생산을 늘이며 고기생산과 남새, 유채농사를 잘하여 농장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농장을 선군시대의 맛이 나게 꾸려나가겠음.

□ 농업전선은 오늘 총진군의 중요전선이며 올해의 공격전의 위력은 모내기전투에서 남김없이 과시되어야 함. 모내기는 농업생산의 성과를 좌우하는 첫 공정이며 올해의 풍요한 가을은 모내기전투에서 결정되게 됨.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야 벼의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 수 있고 전반적인 알곡생산을 더욱 늘일 수 있음.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받들고 모내기전투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공격전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야 함.

□ 농업정책

○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자작안고” 게재(민주조선 5. 1)

- 태천의 기상으로 힘 있게 전진하는 서해벌방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모내기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룡천벌과 열두삼천리벌, 재령벌과 연백벌 등 서해벌방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음.

○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자” 게재(로동신문 5. 9)

- 농업전선은 오늘 총진군의 중요전선이며 올해의 공격전의 위력은 모내기전투에서 남김없이 과시되어야 함. 모내기는 농업생산의 성과를 좌우하는 첫 공정이며 올해의 풍요한 가을은 모내기전투에서 결정되게 됨.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야 벼의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 수 있고 전반적인 알곡생산을 더욱 늘일 수 있음.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받들고 모내기전투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공격전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야 함.
- 당조직들은 태천의 기상과 군민단결의 위력을 올해 모내기전투에서 남김없이 펼쳐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심화시켜야 함. 태천의 기상은 사상의 위력임. 오늘 모내기전투의 공격전은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고 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전례 없는 기적을 창조하기 위한 전면적인 공세임. 최근 년간 농업부문에서는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 알곡생산을 더욱 늘일 수 있는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 데서 혁신적인 성과들을 이룩하였음.
-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모내기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여 경사스러운 올해에 기어이 오곡백과 주렁지는 풍요한 가을을 안아 와야 할 것임.

○ 농업성 소식 보도(민주조선 4. 7)

- 농업성에서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주체농법강습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하였음. 그리하여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에 중앙과 도, 시(군)별로 주체농법강습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음. 여기에서는 농산, 축산, 잠업, 과수 등 부문별 강습들이 진행되었음. 성에서는 강습과 함께 여러 가지 농업기술참고서들을 만들어 농업부문 일군들과 기술자들에게 보내주도록 하였음. 국장 김명호 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은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며 논벼, 강냉이, 콩, 밀, 보리 등 여러 농작물의 다수확우량품종과 선진적인 재배기술에 대한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서술된 『농산참고자료』와 『농업기술참고자료』 등을 집필 발행하였음.

○ “올해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자” 사설 게재(민주조선 5. 16)

- 모내기전투가 시작된 사회주의 협동별은 지금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부르고 있음. 올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하고 책임적인 모내기전투에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은 뜻 깊은 올해의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고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서 관건적 고리로 됨.
- 우리 군대와 인민은 최근 년간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펼쳐나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면서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 놓았음.

- 모내기 전투의 조건과 환경이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당에서 벽을 올리면 강산을 올리는 투쟁기질을 지닌 우리 인민에게는 극복 못할 난관이 없고 점령 못할 요새란 없음.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며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야 만사가 잘 풀려나감.
-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당면한 올해의 모내기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농업생산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해야 함.

○ “분조관리제의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도록” 기사 게재(로동신문 6. 10)

- 룡천군 당위원회에서는 분조관리제의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신속있게 짜고들어 협동농장들의 영농실천에서 큰 은을 나타내게 하고 있음. 군당위원회에서는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제시된 분조관리제를 정확히 실시하는데서 찾고 그와 관련한 조직정치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 들었음.

○ 미루벌의 협동농장들을 적극 지원(로동신문 6. 27)

- 성, 중앙기관들은 영농전투로 들끓는 미루벌 안의 협동농장에 많은 지원물자를 보내는 한편 일군들이 직접 현지에 내려가 당면한 농사일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음.
- 경공업성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농사에 필요한 박막, 중소농기구를 비롯한 영농물자들과 각종 생활필수품을 협동농장에 보내주었으며, 수매량정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도 물리협동농장에 많은 량의 영농물자를 보내주고 농장원들을 지원함으로써 모내기를 비롯한 영농작업을 예년에 비해 앞당겨 끝낼 수 있게 함.
- 철도성에서는 미루벌협동농장들에 필요한 영농물자 수송을 집중적으로 도와 미루벌을 알곡생산기지로 꾸리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 채취공업성과 건설건재공업성, 경제협조지도국의 일군들은 이동식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계, 룡전기재들과 많은 영농물자를 보내주었음.
- 석탄공업성, 금속공업성, 림업성, 전력공업성, 전자공업성, 수산성, 로동성에서도 당면한 영농작업에 필요한 영농물자들과 건설자재, 땔감, 생활필수품을 지원함.

- 이 밖에 농업성,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은행, 국가계획위원회, 무역성, 상업성, 재정성, 중앙통계국, 대외건설지도국의 일군들도 현지에 내려가 당면한 영농작업과 물자를 지원함.

○ 평안북도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로동신문 6. 27)

- 평안북도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혁명 수행에 앞장서서 해당 단위 기술자, 노동자들과 합심하여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도 안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지난해 해당 단위의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10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 과제를 수행하여 생산의 활성화와 생산공정의 현대화사업에 크게 기여함.
- 구성닭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국가과학원 과학자들과 함께 닭, 오리페설물을 발효처리하여 집집승먹이로 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많은 먹이를 절약하고 고기생산을 늘일 수 있게 함.

□ 포전경제선동사업

○ “힘 있는 포전정치사업으로 온 나라 농장별이 들끓게 하자” 사설 게재(로동신문 6. 12)

- 사회주의 농장별 마다에서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고 있음.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봄철모내기가 기본적으로 끝났으며 많은 단위와 지역들에서 논밭김매기 전투를 비롯한 당면한 농작물비배관리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고 있음.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쏘로써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전국의 농업근로자들과 농촌지원자들의 기세는 대단히 좋음. 대중의 양양된 열의와 사기가 더 큰 성과로 이어지고 풍요한 가을로 열매 맺게 하자면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 선전선동력량이 총동원되어 포전정치사업을 힘 있게 벌려야 함.

○ 황해북도 도당위원회에서는 시, 군 기동예술선동대 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면서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에서 실정에 맞게 기동성 있는 포전경제선동활동을 전투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도당위원회에서는 농촌당조직들에서 포전경제선동을 위해 포전방송설비를 매 협동농장의 작업반들에 다 갖추어놓고 외진 포전들에서도 포전경제선동의 북소리가 세차게 울려 퍼지도록 이끌고 있음.

○ 량강도안의 농근맹조직들에서 화선식정치사업으로(로동신문 6. 29)

- 량강도안의 농근맹조직들에서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을 위해 당면한 영농전투에도 농업근로자들을 고무하고 추동하는 화선식정치사업을 벌리고 있음.
-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근맹위원회에서는 농작물 비배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도안의 모든 농촌에 대해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화선식정치사업을 벌리고 있음.
- 도농근맹위원 일군들은 대흥단군, 삼지연군, 보천군의 여러 농장에 나가 포전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벌리고 있음.

□ 과학영농

○ “논밭깊이갈이를 힘 있게” 게재(민주조선 4. 6)

- 곡산군 룰리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이 태천의 기상안고 당면한 논밭깊이갈이를 힘 있게 다그치고 있음. 농장에서는 화선식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 한편 트랙또르도 타고 보잡이도 하면서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 있음. 그리고 갈이수단들의 가동률과 이용률을 높이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제때에 풀어주고 있음.

○ “태천의 기상으로 들끓는 사회주의 협동벌” 보도(로동신문 5. 1)

- 자체로 농사짓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나갈 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단천시와 신흥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태천의 기상으로 떨쳐나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음.

○ 농업과학원 황해남도 분원 소개(로동신문 5. 26)

- 지난 시기와 다름없이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 데 대한 올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농업과학원 황해남도분원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농업과학기술과 연구사들이 농업과학기술과 생산실천을 밀접히 결합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나라의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서 황해남도는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원의 일군들은 연구사업의 주공방향을 옳게 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나갔음.
- 부침땅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농작물생산을 늘이는 큰 예비는 두벌농사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음. 분원에서는 지난 기간 두벌농사를 주체적인 영농체제로 우리 식의 농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 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 도안의 여러 군들에 나간 연구사들은 생육기일이 빠르면 소출이 적어지곤 하던 지난 시기의 결함을 없애고 앞그루소출도 높고 뒤그루 수확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새로운 종자들을 육종하고 적합한 재배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 운산군 삼산리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체농법을 강조(로동신문 6. 21)

- 운산군 삼산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김순택은 농장원들에게 포정 밭갈이 방법을 설명하면서 주체농법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랑사이 간격이 좁으면 잎사귀들이 겹치면서 빛합성에 지장을 주어 알곡 생산량이 떨어지고 반대로 넓으면 빛합성에는 지장이 없으나 김매기가 불편하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강냉이영양단지모의 평당 포기수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음.
- 한 이랑 사이가 10cm만 넓어진다고 해도 평당 두포기가 비게되고 한 정보에서 6,000 포기, 10정보면 60,000포기가 모자라며 한 농장에서 백 수십톤의 알곡을 허실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강냉이 농사를 포기농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 콩농사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로동신문 6. 24)

- 금야군에서는 수백정보에 달하는 뒤그루 콩심기를 완료함. 앞그루 보리 가을걷이를 적기에 마무리한 뒤 콩밭을 깊이 간 뒤 흙보산비료를 듬뿍 주고 뒤그루 콩심기를 계획대로 추진함.
- 인흥, 백산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뒤그루콩심기에도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켰으며 군 안의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앞그루 작물 가을걷이와 뒤그루 콩심기 전투를 성심성의로 도왔음.
- 성간군 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콩밭비배관리를 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하고 있음.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협동농장이 관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트랙토르의 완전 가동을 보장하고 비닐관을 비롯하여 관수에 필요한 자재를 제 때에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콩농사를 잘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자(로동신문 6. 26)

- 삭주군은 몇 년 동안 콩농사를 지으면서 콩포전관리공을 고정시켰으며 벼모판관리를 하는 것처럼 콩포전 관리를 하여야 과학기술적으로, 책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음.

- 삭주군 읍협동농장에서는 이미 마련해놓았던 굴포와 관수설비를 잘 정비하였으며 고랑관수에 유리한 콩포전은 고랑관수를 하였음.

○ 양어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민주조선 6. 30)

- 김정일 위원장이 1997년 6월 30일 “양어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발표한 지 10돐이 되었음.
- 양어를 과학화, 집약화하기 위한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1) 우리식의 물고기먹이 생산방법을 해결해야 하며 양어장과 폐기공장은 과학연구기관이 연구 완성한 단백질생산방법을 실정에 맞게 적극 도입해야 함.
 - 2) 자연먹이를 비롯하여 지방에 흔한 먹이원천을 적극 탐구, 동원,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자연먹이는 여러 가지 풀을 채취하여 가공하거나 싸그쟁이와 미생물을 번식시키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음.
- 양어사업소에서는 가금목장이나 축산기지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물고기먹이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벌여야 하며 양어장감탕으로 물고기먹이를 생산하고 풀로써 물고기와 집짐승을 기르는 생태어업의 순환체계를 확립해야 함.
- 미생물방생장과 동물성단백먹이 서식장을 만들어 여기에서 나오는 자연물고기초기먹이로 적극 이용해야 하며 도시생활 오수를 이용하여 자연먹이를 길러야 하며 양어못에 벌레잡이등을 설치하여 해로운 벌레들은 없애면서 물고기먹이를 보충하는 사업도 추진해야 함.
- 물고기를 여러층으로 기르는 것도 자연먹이를 얻는 좋은 방법의 하나임.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한 양어못에 넣어 종별 특성에 따라 층층에서 자라는 자연먹이를 먹도록 하는 입체양어를 적극 발전시켜 알곡먹이를 적게 들이면서도 물고기 생산을 늘이도록 해야 함. 이와함께 물고기먹이를 쓰지 않고 벼생육에도 좋은 논판양어도 적극 장려해야 함.
- 물고기원종사업소와 종어사업소는 종자혁명이 거점이므로 농산과 축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어에서도 종자혁명을 앞세워야 함.
- 현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양어를 과학화, 집약화하는 것은 양어부문에서

관철해야 할 기본과업임. 양어가 하나의 기술공정으로 되는 것인 만큼 모든 양어사업소는 물고기의 생태학적 요구에 맞게 물관리와 먹이 공급체계를 바로 세우고 모든 생산공정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지켜 물고기 생산을 늘여나가야 할 것임.

2. 벼농사

- 각 지역의 협동농장들에서 벼랭상모판씨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고 있음. 또한 각 농장들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벼모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튼튼한 벼모를 기르고 있음. 농장에서는 벼모판관리계획을 날짜별로 세우고 모든 작업반과 분조들에서 튼튼한 벼모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 벼씨뿌리기 및 모판관리
 - 강남군의 벼랭상모판씨뿌리기 동향 보도(로동신문 4. 2)
 - 강남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벼랭상모판씨뿌리기를 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고 있음.
 - 곡산군의 모판 씨뿌리기 동향 보도(로동신문 4. 3)
 - 곡산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벼랭상모판씨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고 있음. 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바람 한점 스며들세라 바람막이바자를 간간히 둘러치고 랭상모판걸구기와 만들기를 적극 앞세우면서 씨뿌리기를 일정계획대로 내밀고 있음.
 - 봉산군의 가촌협동농장별에서 씨뿌리기가 한창이라고 보도(로동신문 4. 22)
 - 형제산구역안 협동농장의 모판관리 동향 보도(로동신문 4. 29)
 - 올해에 형제산구역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벼모판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하여 튼튼한 벼모를 키워내기 위한 작전을 미리부터 잘 짜고들었음. 구역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협동농장들에 내려간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일군들은 모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모내기를 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라는 것을 일군들과 농장원들에게 깊이 새겨주면서 모판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도록 적극 밀어주고 있음.

○ 각지의 모판관리 동향 보도(로동신문 5. 3)

- 서흥군 화곡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벼모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튼튼한 벼모를 기르고 있음. 농장에서는 벼모판관리계획을 날짜별로 세우고 모든 작업반과 분조들에서 튼튼한 벼모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작업반들에 내려간 농장일군들은 모판관리공들이 한해농사를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벼모판관리에 온갖 정열을 쏟아 붓게 하고 있음.
- 벽성군과 박천군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벼모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음.

○ 각지의 농사동향 보도(민주조선 4. 20)

- 황주군 외상협동농장에서는 모내기철의 긴장한 로력문제를 푸는데 지향시켜 당면한 농사일을 일정계획대로 밀고 나가는데 큰 힘을 넣고 있음. 일단 모내기철에 들어서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자는 것이 이곳 농장일군들의 결심임. 일군들의 주도 세밀한 조직사업에 의하여 이미 앞그루 봄밀, 보리심기와 감자심기가 적기에 질적으로 끝났으며 거름생산과 실어내기, 중소농기구준비, 농기계수리정비 등 농사차비가 빈틈없이 갖추어졌음.

○ 각지의 모내기 준비동향 보도(로동신문 5. 3)

- 경원군 룡당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선군혁명총진군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될 군은 각오를 가지고 모내기 준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음. 지금 농장의 포전들에서는 논갈이가 힘 있게 벌어지고 있음. 모든 것이 부족한 조건이지만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신심 드높이 부림소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논갈이 실적을 올리고 있음.

○ 온성군의 모기르기 동향 보도(로동신문 5. 5)

- 온성군 세선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뜻깊은 올해를 높은 알곡생산성으로 빛내일 결의안고 모판관리에 정성을 다하고 있음. 농장일군의 말에 의하면 북변 두만강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농장의 자연지리적 조건으로 볼 때 벼모를 키워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님. 때문에 모기르기는 모판관리공들 뿐아니라 이군들과 모든 농장원들의 큰 관심사로 되고 있음.

○ “주체농법의 요구를 지켜” 게재(민주조선 5. 6)

- 염주군 내중협동농장에서는 올해 알곡수확고를 높일 중요방도의 하나를 충실한 벼

모를 키워내는데서 찾고 모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 들고 있음. 풍요한 가을은 모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농장 일꾼들이 모판을 타고 앉아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특히 모판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주기 위함엔 힘을 넣고 있음.

- 철산군 동평협동농장에서 모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보도(민주조선 5. 25)

□ 올해 모내기가 5월 10일부터 황해남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었음. 모내기는 6월 16일을 기점으로 일부 이모작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완료되었음.

□ 모내기

- 황해남도에서 벼모내기가 시작되었다고 보도(민주조선 5. 10)
- “모판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게재(민주조선 5. 12)
 - 태천의 기상을 안고 뜻깊은 올해를 높은 알고생산성으로 빛내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는 박천군 맹중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모판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 평안남도 청산리협동농장에서 모내기가 시작되었다고 보도(민주조선 5. 13)
- 황해남도에서 모내기가 시작되었다고 보도(로동신문 5. 11)
 - 황해남도안의 농촌들에서 모내기가 시작되었음. 농업부문 일꾼들이 올해의 봄철날 씨조건과 벼모상태, 물보장과 논갈이, 씨레치기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 앞장에서 실천해나가고 있음.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모내기 동향 보도(로동신문 5. 12)
- 평안북도 태천의 한드레벌에서의 모내기 동향 보도(로동신문 5. 15)
- 각지의 모내기 동향 보도(민주조선 5. 16)
 - 강서군 청산협동농장과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비롯한 농장들에서 모내기에서 혁신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 연백벌과 재령벌을 비롯한 황해남도안의 모내기전투장에 태천의 기상이 드높음. 개천-태성호, 백마-철산물길의 단

물을 받으며 이곳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은 씨레치기를 비롯한 모내기의 선행작업을 앞세워 농는데 커다란 힘을 넣고 있음.

- 숙천군 광천협동농장과 칠리협동농장, 열두삼천농장의 모내기 전투 동향 보도(로동신문 5. 17)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모내기전투 보도(민주조선 5. 18)
- 온천군, 정주시, 웅진군의 모내기 동향 보도(민주조선 5. 19)
- 평안북도 등 각지의 모내기 동향 보도(로동신문 5. 20)
 - 평안북도안의 농촌들에서 모내기전투가 힘 있게 벌어지고 있음. 태천군 한드레별, 정주시의 신천별, 광산군의 관상별, 의주군의 홍남별에서 모판관리와 모뜨기, 씨레치기 등 모내기실적을 부쩍 높이고 있음.
 - 린산군에서도 한해농사 성과를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영농공정인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하여 군안의 모든력을 총동원하고 있음.
 - 2중3대혁명붉은기 강남군농기계작업소에서 협동농장들의 모내기성과를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고 있음.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전화의 나날 고지에서 사우는 인민군용사들에게 탄약을 생산 보장해 준 로동계급의 투쟁정신으로 떨쳐나 모내기에 필요한 농기계부속품과 농기계 생산, 수리정비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황해북도의 모내기 동향 보도(로동신문 5. 22)
 - 황해북도안의 농촌들이 뜻깊은 올해의 모내기전투로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음. 사리원시와 은파군, 황주군, 신계군, 린산군, 곡산군에서 모내기를 기술적 요구대로 신심있게 내밀고 있음. 올해의 불리한 봄철일기조건에서도 줄대같이 실한 모들을 키워내고 모내기준비를 착실히 해온 이 군들의 농업근로자들은 물대기, 논두렁짓기, 씨레치기를 비롯한 선행공정들을 앞세워놓고 모내는기계들을 만가동시켜 일정계획대로 모를 내고 있음.
- 문덕군, 평원군, 안주시, 숙천군 등의 모내기 동향 보도(민주조선 5. 23)
- 각지의 모내기 동향 보도(로동신문 5. 24)
 - 평양시 주변농촌의 협동농장들이 모내기전투로 세차게 끓어 번지고 있음. 모내기전투는 만경대구역, 형제산구역, 사동구역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내기를 실속있게” 보도(민주조선 5. 24)
 - 황태북도안의 농업지도기관들이 당면한 모내기전투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기백 있게 해나가고 있음. 운전군안의 협동농장들이 앞선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모내기를 다그치고 있음. 봉천군 한촌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벼모판관리에 계속 큰 힘을 넣고 있음.
- 곡산군안의 미루벌에서 모내기전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민주조선 5. 26)
- 은파군, 청단군의 모내기 동향 보도(민주조선 5. 27)
-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내기를 질적으로” 게재(로동신문 5. 28)
 - 형제산구역과 고원군의 협동농장에서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음. 당조직의 지도밑에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일군들은 협동농장들에 내려가 논갈이와 씨레치기, 논두렁짓기, 물잡이, 모기르기를 비롯한 영농공정을 하나하나 다져가며 모내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였음.
- 신천군의 모내기가 마감고비에 있다고 보도(로동신문 5. 31)
 - 신천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모내기가 마감고비에 들어설수록 기세를 늦추지 않고 날마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명석, 우산, 반정, 서원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협동농장들에서도 모내기를 힘 있게 다그치고 있음.
- 증산군과 신천군, 서흥군 등의 씨레치기와 모내기 동향 보도(민주조선 5. 31)
- 각지의 모내기 동향 보도(민주조선 6. 1)
 - 강성군 청산, 사리원시 미곡, 평원군 원화,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 벼모내기를 최적기에 결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강서군 청산협동농장에서 5월 29일 현재 모내기를 마무리하여 올해 농사의 첫 돌파구를 마련하였음.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는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질적으로 함으로써 올해농사에서 장훈을 부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올해농사를 본때 있게 지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농업근로자의 본분을 다해갈 이곳 농장원들의 드높은 열의 속에 30일 현재 모내기를 모두 끝냈음.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 있게 벌리는 한편 트랙토르와 모내는기계 운전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매일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모내기를 시작하여 보름동안에 와닥닥 해제졌음.

○ 각지의 모내기 동향 보도(로동신문 6. 2)

- 룡천군안의 협동별이 시간을 다투며 푸르러 가고 있음. 모내기가 시작되던 때가 엇그제인데 어느새 마감고비에 들어섰음. 벌써 모내기를 끝낸 농장, 작업반, 분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
- 룡천군적으로 조건이 불리하고 뒤떨어진 농장으로 알려져 왔던 학흥협동농장, 해마다 많은 지원자들이 달라붙어서도 군적으로 제일 나중에야 모내기를 끝내곤 하였으나 올해는 농장자체의 힘으로 모내기를 앞당겨나가고 있음.

○ 사동구역의 모내기 동향 보도(로동신문 6.3)

- 사동구역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기본면적에 대한 모내기를 끝내고 논물관리를 비롯한 논벼비배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리현당위원회에서는 모내기전투를 앞두고 조직정치사업을 잘하여 모내기를 지난 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5일이나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서해별방의 모내기 동향 보도(로동신문 6. 7)

- 6월 4일 현재 황해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를 비롯한 서해별방 농촌들의 수많은 농장들이 모내기를 끝내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었음. 두벌농사면적을 제외한 논에 대한 모내기를 완전히 끝냄으로써 이 농장들에서는 김매기를 일정계획대로 다 그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음.
-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 5월 24일 현재 모내기를 선참으로 끝낸데 이어 강서군 청산협동농장과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만경대구역 만경대농장에서 5월말까지 연이어 모내기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황해남도 재령별안의 안악, 재령, 신천군에서 모내기를 연이어 끝내는 혁신을 이룩하였음. 안악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모기르기, 논갈이, 물대기, 씨레치기 등 선행공정을 앞세우면서 로력조직을 짜고 들었음. 그리하여 5월 29일까지 안악군안의 오국, 엄곳, 룡산협동농장을 비롯한 10개 농장들에서 모내기를 전부 끝낸데 이어 5월 말까지는 군적으로 두벌농사포전을 제외한 논에 성과적으로 모를 내었음. 연백별에서는 연안군 소정협동농장에서 선참으로 모내기를 끝낸데 이어 많은 농장들에서 모를 실하게 키워내고 모내는 기계마다 만가동을 보장하여 모내기를 막지막 고비에서 다그치고 있음.
- 평안북도안의 농촌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농사에서 장훈을 부를 일념

밑에 모내기실적을 부쩍 올렸음. 운전군 운하협동농장을 비롯한 운전별안의 모든 협동농장들과 동림군안의 협도농장들이 남 먼저 모내기를 끝냈으며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광산군 초장, 문장협동농장, 정주시 암두, 일해협동농장을 비롯한 수많은 농장들이 이미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음. 도안의 다른 농촌들에서도 역량을 총동원하여 마지막 고비에 이른 모내기를 결속해가고 있음.

- 평안남도 열두삼천리별안의 농촌들에서 모내기를 끝낸 단위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음. 숙천군 칠리, 약전, 성남농장 그리고 문덕군 립석, 룡림협동농장을 비롯한 열두삼천리별안의 많은 농장들에서 이미 모내기가 끝났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수가 늘어나고 있음.

○ 전국적으로 모내기가 끝났다고 보도(민주조선 6. 16)

□ 김매기 및 논물관리

○ “김매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게재(로동신문 6. 10)

- 김매기를 잘하는 것은 모내기를 비롯한 앞선 영농공정들의 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임. 모내기, 씨뿌리기를 비롯하여 영농공정들을 성과적으로 끝냈다고 해도 김매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지 못하면 비료의 효과성을 높여 높은 소출을 거두는데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게 됨. 김매기전투에서 협동농장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함.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모내기와 김매기 동향 보도(로동신문 6. 11)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리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뜻깊은 올해의 모내기를 적기에 성과적으로 끝낸 기세로 일제히 김매기전투에 들어섰음. 지난 5월 29일 현재 전체면적의 논에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끝낸 이들은 그 기세로 김매기전투를 신심있게 벌리고 있음.

○ 각지의 논물관리 동향 보도(로동신문 6. 14)

- 안악군에서는 논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음. 군당위원회에서는 모든 협동농장일군들과 농자우언들이 모내기전투에서 발휘한 혁명적 열정과 전투적인 일본새로 농작물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조직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있음.
- 정주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논물관리공들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논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논물관리공들을 책임성이 높고 경험있는 농장원들로 선발하고 그들이 포전별, 품종별 특성과 날씨조건에 맞게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논물관리를 해나가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음.

○ 각지의 김매기 동향 보도(로동신문 6. 16)

- 청단군 심평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모내기를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김매기전투를 힘 있게 벌리고 있음.
- 서해곡창 황해남도 농촌들이 당면한 논밭김매기로 들끓고 있음. 안악군, 신천군, 재령군을 비롯한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은 김매기를 질적으로 해야 포전마다 용근소출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황해북도안의 농촌들에서는 논물관리공, 시비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논벼의 아지치기에 알맞은 생육조건을 잘 보장해주면서 김매기를 다그쳐 매일 수천정보의 논밭을 꽃밭처럼 가꾸고 있음.
- 사리원시, 송림시 등 황해북도 안의 8개 시, 군들에서는 강냉이밭 두벌김매기를 전부 끝냄.
- 함경남도 함흥시, 정평군, 북청군에서는 이미 강냉이밭 두벌김매기와 후치질을 결속하고 세벌김매기에 들어서고 있으며 신포시, 단천시, 신흥군에서는 비료주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면서 논애벌김매기를 마지막단계에서 질적으로 하고 있음.

○ 농작물비배관리에 힘을 집중(로동신문 6. 17)

- 평안북도 안의 농촌들에서는 모든 역량을 농작물비배관리에 집중시키고 있음.
- 도 안의 시, 군인민위원회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모내기때처럼 실정에 맞게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많은 로력이 김매기에 펼쳐나서게 하였으며 농사에 필요한 영농자재와 설비, 부속품들을 수많이 마련하여 농촌에 보내주고 있음.

○ 각지의 김매기 동향 보도(민주조선 6. 23)

- 평원군 삼봉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당면한 농작물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고 있음.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태천의 기상으로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해제긴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강냉이밭김매기를 적극 다그치고 있음.

○ 논벼 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로동신문 6. 29)

- 강남군 안의 협동농장들은 논물관리와 비료주기, 병해충 피해방지 등 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 나가고 있음.

□ 병해충 대비

○ 피현군의 병해충피해막이대책 보도(로동신문 6. 12)

- 피현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병해충에 의한 피해막이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있음. 모내기를 적기에 성과적으로 끝낸 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하여 농장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면서 예찰예보체계를 바로 세워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병충해 막이 대책을 철저히(로동신문 6. 30)

- 병해충예찰예보사업과 방역사업을 잘하여야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일 수 있고 수확물의 질도 높일 수 있음.
- 도, 시, 군 농업부문 지도일군들은 협동농장기술일군들과 합심하여 병해충예찰예보사업에 대한 질서를 세우고 병해충이 발생하면 즉시 박멸하기 위한 사업도 계획하여야 함.
- 각지 협동농장들은 포전별, 필지별로 예찰지점을 설정하고 병해충예찰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임.
- 나비잡이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병해충잡이시설과 식물성 농약을 적극 리용하여 병해충피해를 미리 막도록 해야 함.
- 농작물은 그 생육이 왕성하면 할수록 병해충의 피해를 적게 입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김매기와 비료주기 등 당면한 농작물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함으로써 농작물을 튼튼하게 키워 병해충피해를 미리 막아야 할 것임.

3. 축 산

□ 각 지역의 협동농장 축산작업반에서는 돼지, 염소, 토끼, 닭, 오리 등 수많은 집짐승들을 기르고 있음. 이들은 품 들어 마련한 축산기지들이 은을 내게 하여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할 데 대한 공동시설의 전투적 호소를 받들고 평양시안의 농촌들에서 풀 먹는 집짐승을 더 많이 기르기 위한 사업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음.

□ 축산 동향

○ 구성시와 연탄군의 종합축산분장 소개(로동신문 4. 7)

- 구성시 남산협동농장 종합축산분장에서 봄철집짐승사양관리에 큰 힘을 넣고 있음.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드높은 열의로 축산분장에는 염소, 토끼, 개사니를 비롯한 수많은 집짐승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있음.
- 연탄군의 장운협동농장은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어 농사짓기가 불리한 곳임. 하지만 이 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땅타발을 하지 않고 집짐승기르기를 잘하여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음. 축산작업반에서는 돼지, 염소, 토끼, 닭, 오리 등 수많은 집짐승들을 기르고 있음. 돼지우리에는 살찐 종자돼지들이 육질거리고 있음. 또한 우량품종의 토끼들도 많이 키워내고 있음.

○ 피현군 로중협동농장 소개(로동신문 4. 27)

- 피현군 로중협동농장의 축산기지들은 산골짜기들에 자리잡고 있음. 농장소재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산골짜기에 있는 축산기지만 보더라도 염소우리와 토끼우리들이 실정에 맞게 건설되었는데 류다른 점이 있음. 그것은 우선 집짐승우리를 “口”자형으로 건설하였는데 한켠은 봄부터 가을까지 염소를 기를수 있는 야외우리임. 그 맞은 켠은 2층으로 된 집짐승우리인데 아래층은 염소가 겨울을 날 수 있게 된 우리임. 그리고 윗층은 토끼우리임. 그 양옆에는 집짐승먹이창고와 휴게실, 수의방역실 등이 있음. 이런 축산기지들이 있는 주변에는 드넓은 풀판이 펼쳐져 있음.

-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축산기지를 자연지리적 특성에 어울리면서도 실정에 맞게 건설하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님. 우선 주변에 풀판이 평쳐져 있어 염소를 방목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주어져 있어 좋음. 또한 풀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먹이를 해결할 수 있어 좋음. 집짐승우리도 쓸모있음. 야외우리는 겨울철에 곡식짚과 말린 풀을 쌓아놓는 창고로 이용할 수 있고 겨울철 우리는 여름철에 창고로 이용할 수 있음.

○ 각지의 풀 먹는 집짐승기르기 동향 보도(민주조선 5. 17)

- 품들여 마련한 축산기지가 은을 내게 하여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할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 호소를 받들고 평양시안의 농촌들에서 풀먹는 집짐승을 더 많이 기르기 위한 사업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음. 강동군안의 축산전문협동농장들에서 좋은 소식이 날아들고 있음. 구빈, 태잠, 문화 등 축산전문협동농장들에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빨리 자라고 젖생산량이 많은 우량품종의 염소를 더 많이 퍼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고 있음.
- 천마군에서 염소마리수를 더 늘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나가고 있음. 특히 신시, 신흥협동농장의 일군들은 염소관리공들을 책임성이 높은 농장원들로 배치하고 그들이 어미염소와 새끼염소들에 대한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주에 1차씩 경험토론회와 기술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벽동군의 집짐승기르기 동향 보도(로동신문 6. 9)

- 벽동군에서 풀 먹는 집짐승을 군중적으로 더 많이 기르기 위한 투쟁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우량품종의 집짐승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면서 풀 먹는 집짐승 사양관리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들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알려주고 앞선 사양관리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게 하고 있음.

□ 염 소

○ 황해남도 계남목장 소식 보도(로동신문 6. 12)

- 황해남도 계남목장이 날이 갈수록 더욱 큰 은을 내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음. 인적 없던 곰놀골에 하나의 염소목장과 맞먹는 축산 제3분장이 일떠서고 염소와 젖가공품 생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 올해에만 해도 지난해보다 새끼염소생산은 1.5배, 염소젖생산량은 1.4배로 늘어났음. 요그르트, 빠다를 비롯한 젖가공품들이

해주시민들을 비롯한 도안의 인민들과 인민군 군인들에게 공급되고 있음.

○ 함흥시청년염소목장에서((로동신문 6. 21)

- 김정일 위원장은 “인민들이 고기를 넉넉히 먹을 때까지 풀먹는집짐승기르기를 내 밀자는 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라고 지적함.
- 함흥시청년염소목장은 젖은반으로부터 젖가공이 더욱 현대화되어 젖생산과 젖가공품 생산이 보다 높은 수준에 올랐음.
- 또한 상창지구와 검산령지구에 여러개의 분장이 새로 생기고 수천 정보의 풀판이 더 조성되었으며 살림집들과 편의봉사시설, 염소우리들과 젖가공시설 등이 건설되어 염소를 비롯한 풀먹는집짐승을 더 많이 길러 젖생산은 물론 빠다, 치즈, 요그르트 같은 젖가공품과 고기를 비롯한 축산물 생산을 더욱 늘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음.

□ 토 끼

○ 봄철토끼사양관리대책 소개(로동신문 4. 2)

-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를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토끼기르기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봄철토끼기르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어미토끼의 집중 쌍붙이기와 새끼받이, 시중, 후보토끼고르기 등을 진행하여야 함.
- 토끼우리의 위생조건을 잘 보장하는 것도 중요함. 우리안의 온도는 15~16℃로 보장하며 탄산가스, 류화수소가스, 암모니아가스를 비롯한 유해가스들을 없애기 위한 공기갈이를 잘해주어야 함. 그리고 깔개짚을 교체하여 냄새를 없애야 함. 햇빛쪼이기와 화염소독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토끼우리를 잘 소독하여야 함. 비루스성출혈과 여러 가지 질병을 막기 위한ワク접종을 진행하여야 함. 먹이작물의 씨뿌리기와 비배관리를 잘하는데도 관심을 돌려야 함.

○ 각지의 축산 동향 소개(민주조선 5. 5)

- 함경남도에서는 축산에서도 종자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갈 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도안의 축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힘찬 투쟁을 벌려 우량품종의 새끼토끼를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배 이상으로 늘이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황해북도에서는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을 높이 받들고 황해북도위생방역소에서 위

생방역사업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 있음. 이곳 일군들은 봄철에 생길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미리 막는데 힘을 넣고 봄철위생방역사업을 짜고 들고 있음.

□ 돼 지

○ 태천돼지공장 건설 보도(로동신문 4. 30)

- 인민생활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평안북도 태천돼지공장건설려단의 일군들과 골격대원들이 공장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 현재 돼지공장의 기본생산건물건축공사가 끝났음. 그리하여 새끼낳이우리와 새끼우리, 비육 및 육성우리가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었음. 뒤이어 먹이가공과 고기가공기지건설도 마감고비에서 힘차게 다그쳐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위생통과실, 먹이창고, 양수장, 침전지, 사무실과 합숙이 규모 있게 일떠서고 있음.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돼지공장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물고기를 키울 수 있도록 수천㎡의 양어장을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건설하고 있는 것임.

○ 혜산시 탑성동 축산 소개(로동신문 5. 3)

- 혜산시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탑성동 지구의 나지막한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축산기지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음. 축산기지는 크지 않아도 먹이원천이 제한되어 있는 도시에서 먹이문제를 자체로 해결하여 돼지 기르기를 잘하고 있는 탑성동 일군들의 경험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날을 따라 더욱 늘어나고 있음.

○ 대흥단군 안의 돼지목장들에서(로동신문 6. 18)

- 김정일 위원장은 대흥단군을 현지지도하면서 감자부산물로 돼지를 많이 길러 고기를 생산하고 물거름도 받아 감자밭에 내도록 하며 군 안의 농장들에 돼지목장들을 건설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었음.
- 농사동돼지목장, 백산돼지목장, 신흥돼지목장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돼지를 사육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먹이를 제대 보장하기 위하여 이미 조성한 수십 정보의 땅에 심은 먹이작물의 비배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고기가공공장을 개선보수하기 위한 투쟁도 벌이고 있음.

□ 닭, 오리

○ 광포오리공장 소식 보도(로동신문 6. 12)

- 광포오리공장의 일군들은 지난해보다 2.5배 이상의 높아진 고기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 있게 벌리고 있음. 공장에서는 오리고기생산을 늘이자면 먹이문제를 풀기 위해 힘을 넣고 있음. 자체의 기술력량을 다 동원하여 오리의 먹이소비단위를 낮추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용먹이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음.

□ 수의방역사업

○ 수의방역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보도(로동신문 5. 12)

- 수의방역소 창립 60돌을 맞으며 과학기술발표회가 9일과 1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음.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발표회에는 전국각지의 수의방역부문 일군들, 과학교육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이 참가하였음. 발표회에서는 수의방역사업과 집짐승병진단을 과학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들을 개발하는 과정에 이룩된 190여건의 성과와 경험이 소개되었음.
- 발표회참가자들은 토끼를 비롯한 풀먹는 집짐승들의 주요 질병예방치료방법과 병치료에 좋은 고려수의약품을 규격화, 표준화하고 약품의 치료효과성을 높이는 데서 거둔 성과들을 해설하였음.

4. 감자농사

- 4월 28일 대흥단군에서 감자심기가 시작되었음. 각 협동농장에서는 질 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하여 감자밭들에 실어내었으며 트랙토르와 감자파종기를 비롯한 농기계들과 중소농기구수리정비를 말끔히 끝내 밭갈이와 거름주기를 앞세우면서 실한 싹이 나온 통알감자종자들을 제때에 심고 있음.

□ 감자심기

- 성천군안 협동농장의 감자심기 동향 보도(민주조선 4. 19)

· 성천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감자심기를 힘 있게 다그치고 있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지난해보다 감자농사면적을 2배로 늘일 목표를 세웠음. 위원회에서는 그 실현을 위해 지대적 특성에 맞는 다수확품종의 종자확보와 재배방법개선대책, 물거름생산정형을 하나하나 알아본 다음 감자심기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있음.

- 대흥단군의 감자심기가 시작되었다고 보도(로동신문 4. 29)

· 백두삼천리벌에서 감자심기가 시작되었음.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 관철에서 대흥단군이 전국의 앞장에 설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대흥단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감자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음. 군당 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에서는 좋은 품종의 감자종자싹틔우기를 지난해에 비해 훨씬 앞당겨 끝냈으며 질 좋은 거름과 흙보산비료, 생물활성퇴비생산과 실어내기도 적극 다그쳤음. 트랙토르, 련결농기계수리정비 등 감자심기에서 나서는 모든 영농준비도 지난해보다 앞당겨 끝내었음.

- 각지의 감자농사 동향 보도(민주조선 4. 29)

· 4월 28일 대흥단군에서 감자심기가 시작되었음. 각 협동농장에서는 질 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하여 감자밭들에 실어낸 신흥, 신태 농장들이 감자심기에서 앞서나가고

있음. 트랙토르와 감자파종기를 비롯한 농기계들과 중소농기구수리정비를 말끔히 끝낸 농사동, 서두, 창평농장에서는 발갈이와 거름주기를 앞세우면서 실한 싹이 나온 통알감자종자들을 제때에 심고 있음.

○ 대홍단군의 감자농사 동향 보도(민주조선 5. 5)

- 대홍단군 군농업경영위원회에서는 감자심기를 대홍단식과학농법의 요구대로 하기 위한 기술적 지도를 실속있게 하고 있음. 감자심기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회에서는 아랫단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대홍단식과학농법의 요구대로 감자를 심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음. 감자밭다루기를 앞세우고 거름을 많이 내는 문제와 충실하게 싹을 틔운 감자를 적기에 질적으로 심는 문제, 종합파종기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가동률과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도 등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음.

○ 랑림군에서 감자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로동신문 5. 11)

○ 고산지대 감자심기 마감소식 보도(민주조선 6. 1)

- 양강도, 함경북도, 자강도의 고산지대 농장들에서 감자심기가 기본적으로 끝났음. 올해농사를 본때 있게 지을 불타는 열의를 안고 최적기에 감자심기에 들어선 이 지대 농업 근로자들은 모든 역량과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시작부터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렸음.
- 대홍단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트랙토르, 감자파종기 등 기계수단들을 만가동하여 발갈이와 이랑짓기, 거름퍼기를 앞세우고 심기를 따라 세우면서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음.
- 백암, 갑산, 삼지연군들에서도 대홍단식감자농법의 요구대로 다수확품종의 종자 소독과 싹틔우기 드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합리적인 영농법을 받아들여 감자심기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였음.
- 무산군과 연사군에서는 일군들이 들끓는 포전에 나가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5월 15일까지 계획된 면적의 감자심기를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감자종자 생산

○ 농업생물학연구소 소개(로동신문 6. 2)

- 농업과학원 농업생물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감자원종생산과 과학연구사업에서 높은 실적을 내고 있음.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당조직의 지도 밑에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 종업원들은 올해 초부터 무비루스원종잔알 감자생산준비를 철저히 갖추기 위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왔음.

○ 대홍단군에 대한 지원사업 소개(로동신문 6. 12)

- 지난 시기와 다름없이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 데 대한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성, 중앙기관들에서 대홍단군을 성심성의껏 지원하고 있음.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성, 중앙기관들에서 대홍단군에 영농자재와 농기계부속품, 소농기구들, 시멘트를 비롯한 건설용자재와 생활필수품 등 많은 지원물자를 보내주었음.

5. 이모작

- 황해남도안의 농촌들에서 6월 들어 밀, 보리가을이 시작되었음. 모든 시, 군들에서는 마감단계에서 진행되는 모내기전투를 결속해 나가면서 밀, 보리가을과 탈곡을 적기에 와닥닥 끝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더욱 짜고 들었음. 앞그루작물 가을걷이를 끝내는 족족 뒤그루 작물심기를 따라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밀, 보리가을과 뒤그루 작물 심기에서 연일 실적을 올리고 있음.

□ 이모작 동향

○ 유채수확 동향 보도(로동신문 6. 5)

- 웅진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유채가을을 힘 있게 다그치고 있음. 원사, 수대, 진해, 은동협동농장들과 바다가에 자리잡은 송월, 장송, 서해, 남해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유채가을과 뒤그루작물심기로 흥성거리고 있음.

○ 황해남도의 이모작 동향 보도(로동신문 6. 6)

- 황해남도안의 농촌들에서 밀, 보리가을이 시작되었음. 모든 시, 군들에서는 마감단계에서 진행되는 모내기전투를 결속해 나가면서 밀, 보리가을과 탈곡을 적기에 와닥닥 끝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더욱 짜고 들었음. 포전별, 필지별로 밀, 보리가 익은 상태를 잘 따져가며 가을걷이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운 일군들은 로력과 기계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첫 시작부터 실적이 오르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앞그루작물 가을걷이를 끝내는 족족 뒤그루 작물심기를 다라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음.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밀, 보리가을에 들어선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이 시작부터 연일 실적을 올리고 있음.
-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받들고 앞그루농사를 알심있게 지어온 신천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밀, 보리가을을 불이 번쩍나게 다그치고 있음. 군에서는 밀, 보리가 빨리 익는 실정에 맞게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가을걷이준비를 잘 갖추도록 조직사

업을 짜고 들풀로써 시작부터 큰 성과가 이룩되게 하고 있음.

○ 각지의 두벌농사 동향 보도(민주조선 6. 9)

- 두벌농사를 실속있게 하는데서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임. 애써 지은 앞그루 밀, 보리, 감자 등을 제때에 말끔히 거두어들이는 것과 함께 뒤그루작물의 씨불임을 따라 세워야 하는 적기가 바로 이 시기임. 요즈음의 농사일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올해의 두벌농사성과가 좌우되게 됨.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농촌지원자들은 지금의 농사일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두벌농사를 잘 짓기 위한 투쟁에 힘 있게 떨쳐나서야 함. 협동농장들에서 조직사업을 짜고 들어야 함. 여러 가지 중요영농작업이 진행되는 조건에 맞게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야 함.

○ 평안남도의 두벌농사동향 보도(로동신문 6. 10)

- 평안남도에서 당의 두벌농사방침 관철에 큰 힘을 넣고 있음. 도안의 일군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밀, 보리만이 아니라 감자를 앞그루로 많이 심고 그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면서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하여 힘찬 전투를 벌이고 있음.

○ 각지의 두벌농사 동향 보도(민주조선 6. 12)

- 평양시안의 농촌들에서 앞그루밀, 보리가을걷이가 활기있게 진행되고 있음. 당의 두벌농사방침 관철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혁명적 열의를 안고 떨쳐나선 시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 있음. 구역,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에서는 밀, 보리생육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익는 족족 베들이기 위한 일정계획을 동원적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음.
- 황해남도안에서도 두벌농사의 앞그루로 심은 밀, 보리가을과 뒤그루작물의 씨불임을 최적기에 와닥닥 끝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있음.

○ 뒤그루콩심기 동향 보도(로동신문 6. 13)

- 태천의 기상안고 당의 두벌농사방침 관철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선 태탄군안의 협동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뒤그루콩심기를 불이 번쩍나게 다그치고 있음. 류정협동농장에서 농산작업의 기계화에 큰 힘을 넣어 영농공정별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음. 농장에서는 이미 강냉이심기와 밀, 보리심기에서 은을 낸 기계수단을 뒤그루밭 갈이와 이랑짓기 등 선행공정을 확고히 앞세워 매일 콩심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음.

○ “먹는 기름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기사 게재(로동신문 6. 13)

-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서는 두벌농사 앞그루작물로 유채를 많이 심고 있음. 유채 농사만 잘 지어도 많은 기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된 농장의 작업반 초급일군들은 가물을 적게 타며 지력이 높은 포전을 유채농사포전으로 정하고 질 좋은 거름을 많이 내었음. 먹는기름 문제를 자체로 해결할 드높은 결의안고 농장의 일군들은 유채농사를 통이 크게 내밀었음.
- 무산군 문암협동농장은 해바라기 농사를 잘하기로 소문난 농장임. 농장에서는 해마다 해바라기를 비롯한 기름작물을 많이 심어 농장원들의 먹는기름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고 있음.

○ 통천군의 두벌농사 동향 보도(로동신문 6. 16)

- 통천군에서 앞그루보리가을을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낸 기세로 뒤그루작물심기를 힘 있게 다그치고 있음. 군의 자산협동농장으로부터 가흥협동농장에 이르는 70여 리구간의 긴 해안을 따라 펼쳐진 두벌농사포전들에서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신심과 낙관에 넘쳐 뒤그루작물을 제철에 질적으로 심고 있음.

○ 은파군의 두벌농사 동향 보도(민주조선 6. 21)

-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높이 받들고 은파군 레로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앞그루작물가을적기와 뒤그루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고 있음. 농장에서는 앞그루 밀, 보리가을을 짧은 시일안에 결속하고 두벌농사 뒤그루모내기를 적기에 끝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혁명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 금야군에서 수백정보에 달하는 뒤그루콩심기를 질적으로 끝냈다고 보도(로동신문 6. 24)

○ “밀, 보리 가을을 힘있게”(민주조선 6. 26)

- 당의 두벌농사방침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온 강원도 안의 협동농장들은 밀, 보리 수확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음.
- 올해도 강원도에서는 많은 면적에 앞그루로 밀, 보리를 심었으며 농업부문 일군들은 앞그루작물의 가을과 윤반, 말리우기와 털기를 제때에 실속있게 하기 위한 조직지도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문천시, 안변군, 통천군 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밀, 보리 수확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음.
- 이천군, 판교군, 고성군 안의 협동농장들은 날자별, 포전별 가을걷이 일정계획을 치밀히 세우고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여 가을과 실어들이기를 착실히 진행하여 난알 허실을 막고 있음.
- 철원군, 고산군, 평강군 안의 협동농장들도 밀, 보리가을을 적극적으로 다그쳐 탈곡기와 운반수단의 준비를 원만히 갖추고 있음.
- 원산시, 천내군, 김화군을 비롯한 도 안의 다른 군에서도 밀, 보리 수확을 다그치고 자리가 나는 족족 뒤그루 작물 씨불임을 내밀고 있음.

6. 농업 기반

□ 각 도, 시, 군들에서는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달성하여야 할 목표들을 높이 세우고 역량을 집중하여 나무심기, 도로건설과 기술개건, 강하천정리사업을 적극 내밀었음. 라선시에서는 작년 2천 정보의 토지를 정리한데 이어 올해에 들어와 또다시 130여 정보의 토지를 정리하여 논으로 풀었음.

□ 국토관리사업

○ 각지 봄철국토관리사업 성과 보도(민주조선 5. 30)

- 각 도, 시, 군들에서는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달성하여야 할 목표들을 높이 세우고 역량을 집중하여 나무심기, 도로건설과 기술개건, 강하천정리사업을 적극 내밀었음. 만포시, 희천시를 비롯한 자강도안의 시, 군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많은 면적의 산림과 강하천주변을 비롯한 여러 군에 많은 나무를 심어 올해 봄철나무심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음.
- 통천군에서는 이번에 100여 정보의 혼성림을 새로 조성하였음. 군에서는 일군들이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드는 한편 나무의 생물학적 특성과 토양조건에 맞게 나무심기에 대한 시공지도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원산-금강산사이 도로주변의 산들에 평양단풍나무, 이깔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배합하여 심었음. 수유나무심기는 계획을 150% 이상 수행하였음.
- 부전군에서는 읍지구로부터 부전혁명전적지의 옥련산밀영에 이르는 20여리 구간에 1만여 그루, 단천시에서는 수만 그루의 가로수를 심어 돌주변의 풍치를 돋굴 수 있게 하였으며 어랑군에서는 일군들이 현지를 밟으며 수백정보의 면적에 나무를 심었음.
- 동림군에서는 1만5,000여㎡의 강바닥파기, 3,600여㎡의 장석쌓기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수십 정보의 농경지와 농촌마을들을 큰물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하였음.

- 미루벌물길공사장에서 8일 10만산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음. 황해북도여단 사리원시대대의 전투원들은 착공의 첫 발파를 올린 때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발파를 진행하여 많은 공사과제를 해제했음.

□ 미루벌 물길공사

○ 미루벌물길 건설 보도(로동신문 4. 6)

- 미루벌물길 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공사는 물길굴공사임. 지금 강원도려단의 전투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부딪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나가며 물길굴공사를 힘 있게 내밀고 있음.

○ 미루벌물길 공사 보도(로동신문 4. 9)

- 선군시대의 자랑찬 창조물로 건설되고 있는 미루벌물길공사장에서 8일 10만산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음. 황해북도여단 사리원시대대의 전투원들은 착공의 첫 발파를 올린 때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발파를 진행하여 많은 공사과제를 해제했음. 미루벌물길의 첫시작인 리상저수지의 무늬이언제공사를 맡은 이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힘찬 투쟁을 벌여왔음. 대대에서는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면서 10만산대발파를 진행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그를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왔음.

○ 미루벌물길공사 동향 보도(민주조선 4. 20)

- 미루벌물길공사의 평양시려단지휘부에서는 전투목표를 높이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사업을 혁명적으로 하고 있음. 많은 것이 부족한 실정에서도 자체로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해가며 기본전투수단인 룬전기재들을 새것처럼 수리·정비해 놓고 기름도 확보하는 등 언제기초암반굴착과 성토를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 놓았음.

○ 미루벌물길공사 동향 보도(로동신문 6. 11)

- 미루벌물길공사장에 태천의 기상이 세차게 내려치고 있음. 물길공사중앙지휘본부에서는 올해공동사설과 선군혁명선구자대회 호소문을 받들고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하고 있음. 평양시려단의 일군들과 전투원들이 평암저수지 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이들은 장마철전으로 언제를 안전한 위치까지 쌓을 목표밑에 많은 노력과 자재를 절약할 수 있는 공법을 도

입하고 공사를 입체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이미 수만^m의 토량을 처리하고 수천^m에 달하는 중심 강토작업을 진행하였음.

- 한해농사에서 물보장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고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은 물을 넉넉히 확보하기 위하여 저수지들의 물잡이 정형과 물길, 양수설비상태를 대책을 예견성 있게 세우고 물잡이 투쟁을 힘 있게 벌려나가고 있음.

□ 용수공급

○ 각지의 물잡이 동향 보도(로동신문 4. 28)

- 각지 농촌들에서 물잡이 투쟁을 힘 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음. 한해농사에서 물보장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은 물을 넉넉히 확보하기 위한 정치사업과 조직사업을 미리부터 잘 짜고 들었음. 그들은 저수지들의 물잡이 정형과 물길, 양수설비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본데 기초하여 해당한 대책을 예견성 있게 세우고 물잡이 투쟁을 힘 있게 벌려나가도록 대중을 불러일으켰음.
- 평안북도 운전군에서는 물확보를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고 있음. 군일군들은 물이 넉넉해야 농사를 안전하게 지어 높은 소출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물길정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결과 군안의 물길정리를 끝냄으로써 모든 논밭에 물을 더욱 원만히 보장해줄 수 있게 하였음.
- 평안남도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관개구조물보수와 보막이공사를 힘 있게 벌렸음. 이들은 관개구조물보수공사장에서 연일 새로운 전투성과가 이룩되게 하였으며, 강하천보막이 공사를 적극 내밀었음.

○ 숙천군관개관리소 소개(로동신문 5. 1)

- 숙천군관개관리소에서 올해 농사에 쓸 물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 자료에 의하면 관개관리소에서는 짧은 기간에 수십km의 물길을 정리하고 갑문수리도 성과적으로 해내었음. 또한 양수기와 전동기수리도 말끔히 끝내었음.

○ 서흥호지구관개관리소 소개(로동신문 5. 16)

- 서흥호지구관개관리소에서 협동벌마다에 관개용수를 넉넉히 보내주기 위한 투쟁

을 힘 있게 벌리고 있음. 논농사이자 물농사이고 한행농사의 성과여부가 물보장에 크게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한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년초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관개용수보장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구조물들과 양수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정비보강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내밀었음.

○ 함흥시의 자연흐름식 물길 보도(로동신문 5. 18)

· 함흥시에서는 최근 몇 달 동안에 여러 대상의 자연흐름식물길공사들을 다그쳐 끝냄으로써 모내기로 들끓는 협동벌들에 생명수를 넉넉히 공급해주고 있음. 사포구역 영광협동농장의 물길공사와 해안구역 풍동협동농장의 물길공사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음.

○ 재령지구관개관리소에서(로동신문 6. 27)

· 재령지구관개관리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관개용수 보장을 위한 투쟁을 벌려 협동벌에 생명수를 원만히 보내주고 있음.

· 룡산직장 청산1단양수장, 양계직장 2단양수장의 초급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양수동력설비의 기술개조를 다그쳐 관개용수 보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음.

· 지국관개관리소에서는 도 안의 협동벌에 뺏어나간 물리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음. 특히 서해갑문-신천-강령, 웅진물길을 맡고 있는 근로자들은 물길을 정상적으로 순회하면서 구조물과 제방상태를 점검하고 있음.

□ 토지정리사업

○ 라선시의 토지정리사업 보도(민주조선 5. 5)

· 라선시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에만도 시 자체의 힘으로 수천정보의 토지를 규격포전, 기계화포전으로 전환시켰음. 시에서는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당면하게는 토지법 발포 30돌을 맞은 올해에 130여 정보의 토지를 또 정리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들을 전투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 라선시에서 백수십 정보의 토지를 새로 정리했다고 보도(민주조선 6. 10)

· 라선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최근 몇해 사이에 2천 정보의 토지를 정리한데 이어 올해에 들어와 또다시 새로 백 수십 정보의 토지를 개간, 정리하여 논으로 풀었음.

□ 큰 물 피해 방지대책

○ 장마철을 앞두고 큰 물 피해 방지대책 수립(로동신문 6. 29)

- 개성시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큰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음.
- 협동농장들은 불비한 제방을 보강해주면서 물길바로잡기, 위험개소들에 돌 쌓기, 강바당 파기, 제방 보강 등의 사업을 추진함.

7. 산 림

□ 각 지역의 단위들에서는 양묘장들의 토지를 정리하면서 겨우내 장만한 많은 거름들을 나무모밭에 내고 지대적 특성에 맞게 나무를 심기 위해 잣나무, 이깔나무, 세잎소나무, 평양뽕뿌라나무, 기름밤나무 등 잘 자란 나무모들을 손질하는 작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음.

□ 임업정책

○ “현시기 림업발전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민주조선 6. 27)

-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공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 경제건설 전투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통나무와 목재가공품을 요구하고 있음.
-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임업 부문에서 생산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함.
- 임업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통나무를 비롯한 임산물을 생산보장하는 채취공업의 한 부문이며 사회적 생산의 첫 공정을 맡고 있는 인민경제의 중요 부문의 하나임.
- 임업부문에서 지도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하는 것은 임업부문의 생산적 특성과도 관련됨. 통나무 생산을 비롯한 임산물 생산은 높고 험한 산판에서 생물학적 법칙에 따라 성장하는 생물체인 나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제활동인만큼 자연조건과 생물학적 법칙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를 요구하며 산림의 합리적인 이용과 조성, 보호에 대한 경제조직사업과 관리운영을 요구함.
- 림업성은 나라의 임업부문사업 전반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조직지휘하는 국가의 행정적 중앙집행기관으로서 당의 임업정책 관철을 위한 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지휘함. 따라서 림업성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경제강국건설에 필요한 통나무와 목재 가공품을 제때에 원만히 생산보장할 수 있음.

□ 종 요

○ “새 품종의 오동나무를 널리 재배” 보도(민주조선 4. 20)

- 웅진군인민위원회에서 새 품종의 오동나무를 많이 심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음. 현재까지 군적으로 수신평정보의 오동나무림이 조성되었으며 읍지구의 가로수들은 모두 오동나무로 심어져있음. 관상적 가치가 크고 빨리 자라는 이 오동나무는 원림식물로서만이 아니라 목재이용측면에서도 의의가 큰 나무임.
- 위원회에서는 이 새 품종의 오동나무모를 많이 생산하여 그 재배면적을 늘이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대담하게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사업을 혁명적으로 밀고나가고 있음. 채종체계와 육종체계를 바로세우고 앞선 나무모기르기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는 한편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여 나무모 기르기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해마다 2만 그루이상의 오동나무를 심는것과 함께 심은 나무에 대한 군중관리체계도 빈틈없이 세워 그 사름률을 계속 높이고 있음.

○ 산림조성 동향 보도(로동신문 4. 21)

- 봄철을 맞아 임업성 산림국안의 일군들과 각지 산림조성부문 로동자들이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음. 일군들을 단위들에 내려보내어 봄철나무심기기간에 산림조성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정확히 하도록 하는 한편 결린 문제들을 제대에 풀어주도록 하였음. 지금 단위들에서는 양묘장들의 토지를 정리하면서 겨우내 장만한 많은 거름들을 나무모밭에 내고 지대적 특성에 맞게 나무를 심기 위해 잣나무, 이깔나무, 세잎소나무, 평양뽕뿌라나무, 기름밤나무 등 잘 자란 나무모들을 손질하는 작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음.

□ 조 립

○ 개성시의 나무심기 동향 보도(로동신문 4. 3)

○ 혼성림조성사업 보도(민주조선 4. 5)

- 은파군에서 봄철나무심기가 힘 있게 벌어지고 있음.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밑천이라는 것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펼쳐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산과 들에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고

있음.

- 군에서는 올해 봄철에 수백정보의 면적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을 것을 계획하고 나무심기를 군중적으로 힘 있게 내밀고 있음. 특히 혼성림조성에 큰 힘을 넣고 있음.

○ 각지의 조림사업 보도(민주조선 4. 21)

- 평산군에서 봄철나무심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군에서는 이번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1,000여 정보의 면적에 수백만 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를 짧은 기간에 심을 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 들고 있음.
-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국토환경보호관리국에서는 혼성림을 조성하는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음. 특히 관광도록 청년영웅도로주변에 잣나무, 평양뽕부라나무, 이깔나무, 세잎소나무, 아카시아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더 많이 심어 조국강산을 푸른 숲 설레이는 선경으로 꾸리기 위하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음. 이와 함께 국에서는 3,000여 정보의 동발나무림과 1만여 정보의 약밤나무림조성사업에도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있음. 나무심기에서는 개천시, 성천군, 평원군, 북창군이 모범을 보이고 있음.

○ 북창군의 조림사업 소개(민주조선 4. 24)

- 북창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올해 봄철에 100여 정보의 이깔나무림을 새로 조성하였음.

□ 산불예방

○ 산불막이대책 보도(로동신문 5. 1)

- 전국을 수림화, 원림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산불막이대책을 잘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짐. 산불감시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산불을 철저히 감시하여야 함. 산불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는데서 산림감독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중요함. 산림감독원들은 각성을 높여 한 평의 산림도 산불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봄철산불막이에서 나서는 문제” 게재(민주조선 5. 2)

-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산불을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 봄철에는 나무들에 물기가 적고 나뭇잎들과 풀들이 바싹 마른데다가 가물고 바람까지 세게 불기 때문에 산불이 날 위험성이 다른 계절보다 더 많음. 봄철에 산불을 철저히 막자면 우선 산림보호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잘 알고 전군중적 운동으로 이 사업을 벌려나가야 함.

□ 병충해 예방

○ “참나무시늉병과 예찰” 보도(로동신문 4. 1)

- 최근에 새롭게 발생하여 급속한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참나무시늉병은 우리나라 전반지역의 참나무림은 물론 극동지역의 거대한 참나무림을 위협하는 위험한 산림병으로 등장하고 있음. 이 병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사전감시와 구제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은 참나무시늉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미리 막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짐.
- 참나무시늉병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병원균에 의하여 생기는데 병을 전파시키는 매개충은 나무좀과에 속하는 곤충임. 피해수종은 신갈나무가 기본이며 졸참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와 상수리나무에서도 피해가 나타남.

□ 각 지역의 임산사업소들에서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생산된 통나무들이 압록강류벌사업소에서는 4월 17일, 대동강상류 운흥물동에서는 4월 20일에 첫 떼목이가 성과적으로 시작되었음.

□ 통나무 생산 및 운반

○ 임업성의 통나무생산 동향 보도(로동신문 4. 17)

- 임업성에서는 지난해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살려 올해 1/4분기에 많은 통나무를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음. 지난해보다 채벌림지가 멀어지고 자재가 부족한 조건에서 경제조직사업을 현실조건에 맞게 짜고드는 한편 일군들을 현지에 내려보내어 생산지도를 실속있게 하도록 하였음. 통나무생산에서는 자강도임업관리국, 함경남도임업관리국, 강원도임업관리국안의 일군들과 통나무생산자들이 앞서나가고 있음. 그들은 지난 2월과 3월에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통나무생산을 진행하였음.

- 성간임산사업소, 강계임산사업소, 송원임산사업소, 희천갱목생산사업소, 동신갱목생산사업소, 고인임산사업소, 용림임산사업소, 위원임산사업소, 화평임산사업소, 랑림임산사업소를 비롯한 생산단위들이 3월 30일 현재 1/4분기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압록강에 첫 떼를 띄웠다고 보도(민주조선 4. 18)

- 압록강류벌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17일 압록강에 첫 떼를 띄웠음.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임산사업소들에서 생산한 통나무들을 사회주의 건설장들에 제때에 보내주기 위해 떼무이준비를 빈틈없이 추진시켜왔음.

○ 대동강의 떼 내리기 보도(로동신문 4. 21)

- 4월 20일 대동강상류의 운홍물동에서 첫 떼몰이가 성과적으로 시작되었음. 오전 9시, 첫 떼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가 울려퍼지자 막혔던 물목이 터지고 사뭇치며 흐르는 물길을 따라 떼를 몰아갔음.
- 대홍임산사업소에서는 1/4분기 계획을 앞당겨 이미 8,000여^m의 통나무를 떼무이장에 쌓아놓았음.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사업소에서는 물량이 적고 예년에 없이 불리한 올해의 일기조건에서도 지난해보다 1.2배 많은 류벌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면밀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음. 떼목들은 대홍지구, 녕원지구를 거쳐 금성호까지 가닿게 됨.

8. 기타 작물

- 각 지역 농촌경리위원회에서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면적에 콩을 심을 대담한 목표를 내세운데 맞게 콩농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잘하기 위한 작전을 빈틈없이 하였음. 그리고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종자확보와 적지선정, 지력높이기, 물보장 등 공정별작업조직을 잘 짜고들고 기술적 요구대로 내밀도록 적극 떠밀어 주고 있음. 콩심기는 5월말에 시작하여 6월초에 대부분 마무리 되었음.

□ 콩

○ 태탄군의 콩농사 준비 동향 보도(로동신문 4. 3)

- 태탄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태천의 기상으로 펼쳐나 올해 콩농사에서 장훈을 부를 결의 밑에 그 준비를 힘 있게 다그치고 있음.
- 콩종자들을 넉넉히 확보해 놓은 기세를 늦추지 않고 분발해 나선 이들은 적지를 바로 선정하고 트랙토르와 부림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밭갈이를 힘 있게 다그치고 있음. 이와 함께 질 좋은 거름과 흙보산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실어내기 위한 전투를 힘 있게 벌려 콩밭을 기름지게 걸구하고 있음.

○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의 콩농사 보도(로동신문 4. 23)

- 평양시농촌경리위원에서는 올해에 지난해보다 더 많은 면적에 콩을 심을 대담한 목표를 내세운데 맞게 콩농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잘하기 위한 작전을 빈틈없이 하였음. 그리고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종자확보와 적지선정, 지력높이기, 물보장 등 공정별작업조직을 잘 짜고들고 기술적 요구대로 내밀도록 적극 떠밀어 주고 있음.

○ 각지의 콩농사 동향 보도(로동신문 4. 28)

- 운전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콩농사차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음. 콩심기준비를 원만히 갖추는가 못갖추는가에 따라 올해 콩농사 성과가 크게 좌우되는 것만큼 그 준

비를 더욱 실속있게 할 것을 요구함. 바로 여기에 콩 정보당 수확을 높일 수 있는 기본조건의 하나가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군에서는 콩농사준비에 각별히 힘을 넣고 있음.

- 대탄군 운산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올해 콩농사에서 본때를 보일 드높은 결의안고 콩발관수준비를 실속있게 하고 있음.
- 철원군 백로산협동농장에서는 콩발정보당 수십t의 질 좋은 기름을 내여 모든 포전을 더욱 기름지게 가꾸자는 것이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내세운 목표임.
- 신평군 생양협동농장에서는 콩농사에서 통장훈을 부를 배심을 안고 콩재배면적을 대담하게 늘였음. 더욱 늘어난 콩밭의 지력을 높이는 것이 콩농사차비의 중요한 목표로 제기되었음.

○ 각지의 콩농사 동향 보도(로동신문 5. 2)

- 자강도안의 농촌들에서 올해 콩농사를 본때있게 지을 높은 목표를 세우고 조직사업을 짜고들면서 적지선정과 지력높이기, 콩종자 확보, 밭갈이를 비롯한 콩농사준비를 실속있게 해나가고 있음.
- 중강군에서는 콩농사와 관련한 일군들의 협의회를 여러 차례 가지고 지난해 콩농사에서 이룩한 경험을 적극 살려 올해 콩농사를 더 잘하기 위한 작전을 구체적으로 세웠음. 군에서는 물대기를 할 수 있는 유리한 포전들을 적지로 선정하고 콩밭들에 물을 넉넉히 대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금천군에서는 우량품종의 콩종자를 확보하고 적지를 잘 선정하는 것과 함께 콩포전들의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농장원들이 주인다운 자각을 안고 콩농사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하고 있음.

○ 각지의 콩농사 동향 보도(민주조선 5. 3)

- 평원군에서는 뜻깊은 올해 콩농사에서 전환을 일으켜 콩농사 면적을 지난해보다 1.5배 이상 늘일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준비를 힘 있게 내밀고 있음. 자성군과 곡산군에서도 당의 콩농사 방침을 높이 받들고 콩밭을 기름지게 걸구기 위한 사업을 착실하게 잘하고 있음.

○ 량강도의 콩농사 준비 동향 보도(로동신문 5. 7)

- 량강도안의 농촌들에서 당의 콩농사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 있게 벌어지

고 있음. 해산시에서는 일군들이 협동농장들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콩농사준비 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면서 콩농사준비를 적극 추진시키고 있음.

- 김형직군에서는 지난 시기 콩농사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콩농사를 대대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본때있게 내밀고 있음. 군에서는 모든 협동농장 작업반들에서 지대적 조건에 맞는 좋은 콩품종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적기에 콩을 심을 수 있도록 준비사업을 짜고들고 있음.
- 갑산군에서는 콩농사에서 혁신을 일으킬 높은 목표를 세우고 콩밭의 지력을 높이는데 힘을 집중하면서 밭갈이와 농기계, 소농기구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음.

○ 평안북도의 콩농사 동향 보도(민주조선 5. 31)

- 평안북도안의 농촌들에서 콩심기가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음. 콩농사를 잘할 데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도안의 농촌들에서는 올해에 지난해보다 콩재배면적을 1.4배로 늘리고 그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짜고 들었음. 삭주군, 운산군, 태천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여러 영농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봄철조건에 맞게 기계수단들의 배치와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콩심기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음.

○ 각지의 콩농사 동향 보도(로동신문 5. 22)

- 안악군의 협동농장들이 콩심기전토로 들끓고 있음. 군안의 어느 협동농장, 어느 분조에서나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 매일 많은 면적에 콩을 심고 있음. 군일군들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콩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는데 올해 정보당 콩소출을 높일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콩농사준비를 미리부터 짜고 들었음.
- 법동군 로탄협동농장에서 콩심기가 시작되었음. 높은 산봉우리들과 칼벼랑들이 우쭐우쭐 솟고 주마등 같은 산줄기들에 둘러싸인 법동땅의 산간내륙지대, 임진당 상류에 자리잡고 있는 이 농장의 작업반들에서는 요즘 콩심기로 흥성이고 있음. 포전머리마다 나뭇기는 붉은기들, 습해를 입을세라 빙둘러 도랑을 말끔히 친 넓은 포전들에서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이랑들을 잡아가며 콩을 심는 모습은 볼수록 흥이 남.

○ 무산군의 콩농사 동향 보도(로동신문 6. 6)

- 무산군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당의 콩농사방침을 높이 받들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콩밭김매기에 힘을 넣고 있음. 농장원들이 신심을 가지고 적극 떨쳐나서고 있

음. 일군들이 콩포전에서 여러 가지 농사일이 겹치는 시기에 맞게 로력조직과 작업 조직을 간지게 하고 있음. 군책임일군은 군적인 콩밭김매기정형을 매일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면서 이신작적의 모범으로 농장원들을 이끌고 있음.

○ 정평군의 콩밭김매기 동향 보도(로동신문 6. 9)

- 당의 콩농사방침을 높이 받들고 정평군 다호협동농장에서 콩밭김매기를 힘 있게 다그치고 있음. 콩밭김매기에 떨쳐나선 농장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음. 강냉이와 콩심기, 모내기를 최적기에 끝내기 위하여 긴장한 영농전투를 벌였지만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손뻘을 놓지 않고 콩밭김매기에서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본분을 다해가고 있음.

○ 각지의 콩심기 마감동향 보도(민주조선 6. 9)

- 각지 농촌들에서 콩심기가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음.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기여할 열의를 안고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은 전국적인 콩재배 면적을 지난해의 1.3배 이상으로 늘일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음.
- 평양시에서는 빈땅을 찾아내는 등으로 지난해의 3배되는 콩재배면적을 확보하였으며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기계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일손을 다그치고 있음. 만경대, 사동, 삼석구역과 강남군의 농장들에서는 품종배치로부터 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농공정들을 철저히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하면서 날마다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음.
- 자강도에서는 이른 봄부터 거름실어내기와 밭갈이 등 준비사업을 착실히 하고 최 적기에 씨뿌리기를 하여 5월 26일까지 콩심기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강남군 신흥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콩농사 보도(로동신문 6. 17)

- 김정일 위원장은 “콩만 있으면 먹는 기름문제도 풀 수 있고 인민들에게 두부도 만들어 공급할 수 있으며 집짐승 먹이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함.
- 신흥협동농장원들은 콩농사를 많이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적은 면적에 먼저 콩을 시험적으로 심어보고 점차 그 면적을 늘이기로 하고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훨씬 넓은 면적에 콩을 재배함.
- 콩농사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들과 협의하여 가용한 기계를 동원하여 물길공사를 추진한 결과 대동강까지 1,200m에 달하는 물길공사를 마무리하였음.

○ 각지의 콩밭비배관리 동향 보도(로동신문 6. 20)

- 맹산군에서는 올해 콩농사에서 장훈을 부를 군은 각오를 안고 콩밭비배관리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산골군의 특성에 맞게 콩밭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보여주기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음.
- 통천군 구읍협동농장에서도 콩밭김매기를 힘 있게 벌리고 있음. 콩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콩밭김매기를 잘하여 비료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농장에서는 콩밭김매기와 관련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힘 있게 내밀고 있음.
- 삼수군에서는 콩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 콩밭김매기를 다그치고 있음. 군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이 콩밭김매기를 제철에 할 수 있도록 로력을 조직하고 기술 지도를 하고 있음.

○ 콩농사수첩(민주조선 6. 29)

- 염주군 안의 협동농장에 가보면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콩농사수첩’을 자주 보며 당면한 콩밭비배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음.
- 염주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부업식으로가 아니라 많은 면적에서 서로 다른 재배방법으로 콩농사를 짓기 위하여 콩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농장원들을 위하여 ‘콩농사수첩’을 만들기로 하였음. 여기에는 콩품종별 생물학적 특성과 협동농장의 자연기구적 특성에 맞는 계절별 비배관리문제, 관수방법 등의 내용을 반영함.

- ☐ 최근 각 지역의 단위에서 버섯공장이 새롭게 일떠서고 있음. 특히 라선시와 연안군에 새로운 버섯공장이 들어섰음. 이와 함께 많은 지역의 버섯공장에서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버섯재배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

☐ 버섯

○ 신평군의 버섯재배 소개(로동신문 4. 4)

- 신평군 읍협동농장에서는 버섯생산을 시작한 첫해에는 100kg정도의 버섯밖에 생산하지 못하였으나 해가 바뀔수록 차츰 그 숫자는 늘어나 현재는 연간 5t을 넘게 생산하고 있음.

○ 라선시의 버섯공장 소개(민주조선 5. 8)

- 라선시에 버섯공장이 새로 꾸려져 생산을 시작하였음. 얼마 전 시에 종합적인 식료 가공기지가 건설되는데 이어 능력이 큰 버섯공장이 새로 꾸려짐으로서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음.

○ 평안북도의 버섯기르기 동향 보도(민주조선 5. 23)

- 평안북도에서 버섯기르기를 계속 힘 있게 내밀고 있음. 도의 해당 부문 일군들은 버섯재배기지꾸리기, 버섯생산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지도사업을 혁명적으로 하고 있음. 도는 물론 시, 군들에 종균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놓고 종균공급, 기질확보사업을 적극 따라 세우도록 하고 있음.

○ 금야군 청동협동농장의 버섯재배동향 보도(로동신문 5. 24)

- 금야군 청동협동농장에서 버섯생산기지를 꾸린 것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이었음. 농장에서는 강냉이 밭 면적이 많아 버섯기질보장에 유리하고 산을 끼고 있어 겨울철 온도보장에도 편리한 곳을 찾아 버섯생산기지를 꾸리었음. 이 버섯생산기지에서는 지난 기간 느타리버섯뿐만이 아니라 벵쥔버섯, 참나무버섯을 비롯하여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여러 가지 버섯을 사계절 중단없이 생산하여 농장원세대들에 공급해주고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의 식탁을 푸짐하게 하여 주었음.
- 신흥군버섯공장에서는 버섯종균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는데 힘을 넣고 있음. 군 일군들은 300여㎡의 종균생산건물과 1,000여㎡의 실내 및 야외 재배장을 갖춘 버섯공장을 짧은 기간에 번듯하게 일떠세웠음. 종균 및 버섯생산공정에 따르는 설비들을 훌륭히 갖춘 군버섯공장에서는 지금 느타리버섯종균생산과 버섯재배가 한창임.

○ 청진시의 버섯공장 소개(민주조선 6. 6)

- 청진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버섯공장을 건설할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그를 적극 실현해가고 있음. 새로 건설되는 버섯공장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생산설비들을 그췌히 갖추고 관리운영을 현대화함으로써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면서도 여러 가지 버섯을 키울 수 있게 됨.
- 버섯공장은 갱도식 버섯생산시설과 보조건물들로 특색 있게 건설되게 됨. 소독실, 접종실, 종균배양실, 버섯재배실로 꾸려지는 버섯생산시설에서는 버섯생산에서 오염을 철저히 막고 무균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종균을 과학기술적으로 확대 배양할 수 있게 됨.

- 보조건물안의 원료가공실에는 분쇄기와 원료혼합기를 비롯한 설비들이 설치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해당한 원료를 분쇄하여 혼합기에 넣어 여러 가지 규격의 버섯 기질들을 만들어내게 됨.

○ 연안군의 버섯공장 소개(민주조선 6. 24)

- 연안군에 버섯공장이 새로 일떠서 군안의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음. 군 일군들은 2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종균장, 분쇄실, 배양장, 포장실을 비롯한 덩치가 큰 여러동의 생산건물들을 현대적 미감이 나게 일떠세우고 멸균가마, 분쇄기, 혼합기를 비롯한 생산설비들을 그끈하게 갖추어 놓았음.

- 양어지도국에서는 모내기철과 때를 맞추어 논판양어를 적극 벌리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힘 있게 내밀고 있음. 논판양어는 품을 들이지 않고서도 정보당 알곡생산을 1.3배나 높이면서 수백kg의 물고기를 공짜나 다름없이 손쉽게 얻어낼 수 있는 실리적인 좋은 물고기생산방법임.

□ 양 어

○ 장연호의 양어 보도(로동신문 4. 20)

- 장연호에서는 자연먹이로 많은 민물고기를 기를 수 있는 앞선 방법을 받아들여 칠색송어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음. 장연호는 바닥샘 물호수로 여름에도 5m 아래의 물속온도가 18~20℃이상 올라가지 않으므로 찬물고기인 칠색송어를 기르기에 아주 적합함.

○ 입체양어 소개(민주조선 5. 18)

- 양어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깊이 명심하고 있는 온천양어사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물고기 기르기를 잘하고 있음. 더 많은 물고기를 길러내기 위한 이 사업소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입체양어방법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임.
- 사업소에서는 물웃층과 밑층에서 사는 물고기들의 생태학적 특성에 맞게 합리적인 물고기기르기 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이기로 하였음.

○ 양어지도국의 논판양어 소식 보도(로동신문 6. 22)

- 양어를 군중적으로 벌릴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어 양어지도국에서는 모내기철과 때를 맞추어 논판양어를 적극 벌리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힘 있게 내밀고 있음. 몇해 전부터 여러 군의 협동농장들에 내려가 논판양어의 우월성과 경험을 체득한 양어지도국의 일군들은 대동군과 신천군을 비롯한 여러 군들에 내려가 일군들과 농장원들 속에 논판양어의 유익성을 잘 알려주면서 논포전들의 적지선정과 그에 맞는 어종편성, 새끼고기 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보여주기 단위를 설정하고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였음.
- 대동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도 논판양어를 대대적으로 벌리고 있음. 협동농장들에서는 정해진 논판들에 물고기들이 모여놀 수 있는 약간의 물웅덩이와 고기길을 내면서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제철에 질적으로 한데 이어 메기와 잉어, 붕어 등 논판양어에 좋은 여러 가지 새끼물고기들을 각각 놓아주는 사업을 연이어 벌렸음.
- 지난해 일부 협동농장들에서 논판양어경험을 통하여 논판양어야말로 품을 들이지 않고서도 정보당 알곡생산을 1.3배나 높이면서 수백kg의 물고기를 공짜나 다름없이 손쉽게 얻어낼 수 있는 꿩 먹고 알먹는 식의 합리적이며 실리적인 좋은 물고기 생산방법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모두가 이 사업에 적극 떨쳐나섰음. 5일 동안 수십만 마리의 새끼고기를 협동농장들의 논판에 놓아주었음.

○ 평양시의 논판 양어 소식 보도(민주조선 6. 22)

- 얼마 전 평양시에서 50여만마리의 새끼물고기를 논판에 놓아주었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수십 정보의 크기를 가진 양어장을 새로 건설하고 물고기를 기르는 것과 맞먹는다고 함. 물고기가 논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여러 가지 잡풀들과 물에 있는 떠살이생물들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벼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데 유익한 것은 물론이고 자연먹이로 물고기를 손쉽게 기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시에서 통이 크게 내미는 논판양어는 그야말로 실리가 있는 것임.

○ 물고기 기르기를 근기있게 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윤택하게(로동신문 6. 30)

- 양어의 과학화와 집약화를 추진하여 양어사업을 발전시켜야 함.
- 10년 전에 비해 인공양어못 면적과 인공양어단위는 3배 이상, 물고기 생산량은 9배로 성장하였으며 이 기간에 현대적인 메기공장들이 새로 생겨나고 종어기지와 군중양어단위, 기술자, 전문가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 시, 군마다 20~30정보 또는 100정보 이상의 양어장이 건설됨.

- 양어를 과학화, 집약화하여 공업적 방법으로 물고기 생산을 늘이고 온천과 화력발전소의 버림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현대적인 메기공장을 건설하였으며 먹이와 노력을 훨씬 절약하면서도 짧은 기간에 많은 물고기를 집약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평양메기공장, 동신, 운산, 송화, 삼천군 등에 메기공장을 건설하였음.
 - 양어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종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해 기술준비와 함께 물고기종자검정소, 각 도 단위의 원종장과 시, 군 종어장의 수가 백수십개로 늘어나 종자물고기공급체계가 확립되었음.
 - 10여종의 새 품종 물고기를 과학기술적으로 검정, 선택하여 이미 성장 속도가 빠른 메기종자를 육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는 민물청어새끼 고기생산에 성공하여 각지 양어장에 보급하였음.
 - 국가과학원 생물분원 실험생물학연구소와 양어과학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들에서는 지방에 흔한 원료 원천을 이용하여 단백질 함량이 높은 우리 식의 단백질, 배합먹이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신창, 관해, 락산 등 바다가양식사업소의 양식장들에서 밥조개, 섭, 미역 등 갖가지 수산자원이 많이 깔려 바다농사의 장훈을 부르고 있음. 이곳 바다가양식사업소의 일군들과 양식공들은 바다가양식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한마음으로 밥조개, 섭, 미역생산에 힘 있게 떨쳐나 많은 수산물을 거두어들이고 있음.
- 수 산
- 도포수산사업소 소개(민주조선 4. 7)
- 두포수산사업소에서 1/4분기 계획을 두 달이나 앞당겨 끝낸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계속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이 사업소에서는 수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있음. 이들은 변화된 어황조건에 맞게 불리한 날씨에도 자신들이 직접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물고기 잡이 전투를 조직지휘하고 있음.
-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시키자” 게재(민주조선 4. 21)
-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4월과 7월이 “수산자원보호월간”임. 이 기간은 바다와 강하천, 호수, 저수지들에 있는 수산동식물자원을 보호하고 늘여나가는데서 매우 중요

한 시기임. 그것은 이 시기가 물고기들이 먹이활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번식기에 들어가기 때문임. 그러므로 “수산자원보호월간”에 물고기들의 번식조건과 서식환경 조건들을 잘 보장해주어야 함. 무엇보다도 물고기들의 번식조건을 잘 지어주면서 강하천, 저수지, 호수들에 인공알받이를 설치하고 물풀을 조성해주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대책들을 취해주어야 함.

○ “수산자원보호증식에 큰 힘을” 보도(민주조선 4. 24)

- 강원도수산관리국에서 수산자원보호월간에 나라의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발해나가고 있음. 관리국에서는 우선 일군들을 수산사업소들과 선단들에 내려 보내어 수산법과 수산자원보호증식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있게 해설해주도록 함으로써 이 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도록 하고 있음.

○ 바다가 조개양식 소개(민주조선 5. 5)

- 철산수출품가공사업소에서 바다가조개양식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였음. 사업소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수백정보의 양식장을 새로 꾸려놓고 정보당 바스레기생산성을 지난 시기에 비하여 3~5배 이상 높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 놓았음.

○ 회령종어사업소 소개(민주조선 5. 9)

- 회령종어사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길러 인민들에게 공급할 목표밑에 양어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신창바다가양식사업소의 다시마생산 소개(로동신문 5. 26)

- 신창바다가양식사업소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올해 다시마작황은 예년에 없이 훌륭하여 정보당 평균수확량은 근 300t을 헤아리며 최고 340t까지 이른다고 함. 이것은 사업소의 정보당 다시마생산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선 것으로 됨. 사업소에서는 작업조직을 짜고들어 매일 수백t의 다시마를 걷어 들이고 있음.

○ 관해, 락산바다가양식사업소 소개(민주조선 5. 26)

- 요즘 락산만과 대동산지구의 양식장들에 밥조개, 섭, 미역 등 갖가지 수산자원이 많이 깔려 바다농사의 장훈을 부르고 있음. 관해바다가양식사업소의 일군들과 양식공들은 바다가양식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한마음으로 밥조개, 섭, 미역 생산에 힘 있게 떨쳐나 많은 수산물을 거두어들이고 있음.

□ 과 수

○ “봄철과수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게재(로동신문 4. 18)

- 올해 과수부문에서는 지난해에 비하여 1.5배나 많은 과일나무를 심을 높은 목표를 세우고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전격적으로 해제길 대담한 작전을 펼쳤음. 과일 생산의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자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는 것임.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받들고 과수연합총회사에서는 나무모밭들에서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맛 좋고 생산성이 높은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모 생산을 앞세워 과수원들을 전망성 있게 조성하여도록 하고 있음.
- 신성, 신천과수묘목농장들과 각 도 과수묘목농장들에서는 맛 좋고 생산성이 높은 키 낮은 사과나무모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과일나무모생산에 과학적인 접방법을 받아들여 해마다 많은 과일나무모를 생산하여 각지 과수농장들에 보내주고 있음.

□ 양 잡

○ 위원군의 누에치기준비 동향 보도(민주조선 5. 18)

- 위원군고치생산사업소에서는 뜻깊은 올해에 누에고치생산을 늘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준비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고 있음. 사업소의 일군들은 작업반들을 맡고 내려가 당면한 누에치기 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조직사업과 기술적 지도를 실속있게 해나가고 있음.
- 누에고치생산을 늘이기 위해서는 뽕잎을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이는 이곳 사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뽕밭관리에 큰 힘을 넣고 있음. 뽕밭지력을 높이기 위해 지나해보다 훨씬 많은 거름과 흙보산비료를 생산한 삼락, 신연작업반을 비롯한 이곳 사업소의 작업반, 분조들에서는 그것을 뽕밭에 묻어주는 작업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질적으로 하였음. 이와 함께 뽕나무가지자르기와 그루바꿈을 제철에 질적으로 끝냈음.

○ 각지의 누에치기 동향 보도(로동신문 6. 17)

- 각지 고치생산사업소에서는 제사공장들에 더 많은 누에고치를 보내줄 일념으로 누에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자강도 잠업관리국에서는 고치생산사업소들에 잠기구들과 누에알을 제때에 공급해주는 한편 뽕밭가꾸기와 누에알깨우기, 어린누에기르기를 실속있게 하며 선진적인 누에치기 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음.

- 평안북도 운산군, 염주군, 정주시고치생산사업소들에서는 잠실관리공들의 역할을 높여 누에가 튼튼히 자라도록 온도와 위생관리, 소독사업을 기술적 요구에 맞게 해 나가고 있음.

□ 옥수수

○ 황해남도의 강냉이 재배 보도(민주조선 5. 12)

- 황해남도안의 농촌들에서 태천의 기상 드높이 강냉이 영양단지모 옮겨심기를 적극적으로 내밀고 있음.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도안의 농촌들에서는 모든 로력과 기계수단을 강냉이영양단지모 옮겨심기에 총동원하여 일자리를 크게 내고 있음.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강냉이영양단지모 옮겨심기를 빨리 끝낼 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 있게 내밀고 있음.

○ 금강군의 강냉이밭 김매기 동향 보도(민주조선 6. 9)

- 금강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강냉이밭김매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들에서 모내기 때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강냉이밭김매기를 다그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들고 있음.

○ 화평군의 김매기 동향 보도(민주조선 6. 13)

- 화평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알곡증수의 커다란 예비의 하나를 김매기를 잘하는 데서 찾고 모든 역량을 강냉이밭김매기에 집중하고 있음. 소북, 중흥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포전별, 날자별로 따르는 구체적인 계획 밑에 후치질을 앞세우면서 김매기의 질과 함께 속도를 높이고 있음.

9. 기타 보도 동향

- 4월은 봄철약초재배월간임. 약초재배월간에 더 많은 약초를 심고 가꾸기 위하여서는 약초재배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들이 먼저 약초재배면적을 적지에 계획적으로 보장해주는 것과 함께 자연지리적 조건, 약초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의약품생산과 치료예방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약초를 기본으로 품종배치를 하여야 함

- 약초재배
 - 봄철약초재배월간사업 소개(로동신문 4. 2)
 - 뜻깊은 올해의 봄철약초재배월간사업이 시작되었음. 나라의 약초자원을 적극 보호 증식시키는 것은 고려약 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후손들에게 풍만한 자원을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임.
 - 약초재배월간에 더 많은 약초를 심고 가꾸기 위하여서는 약초재배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들이 먼저 약초재배면적을 적지에 계획적으로 보장해주는 것과 함께 자연지리적 조건, 약초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의약품생산과 치료예방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약초를 기본으로 품종배치를 하여야 함. 그리고 재배와 채취, 수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하고 완강히 내밀어야 함.
 - 봉산군약초관리소 소개(로동신문 5. 5)
 - 봉산군약초관리소는 약초재배에서 도적으로 손꼽히는 단위들 중의 하나임. 이곳에서는 산토닌쑥모판관리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음. 봉산군약초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11월의 야외조건에서 모판을 만들고 종자를 파종한 후 박막을 쓰지 않고도 씨불임률이 100%보장된 산토닌쑥의 모재배에 성공하였음. 박막을 쓰지 않고도 야외조건에서 얼마든지 모재배를 성공시킬 수 있는 실리가 보장된 약초농사방법이 있음.

□ 식수 공급

○ “자연흐름식방법으로 샘물을 공급” 보도(민주조선 4. 20)

- 성간군인민위원회에서 읍구 주민들에게 샘물을 수도화하여 공급하고 있음. 자연흐름식방법으로 샘물을 공급함으로써 지난 시기 먹는물공급에 소모되던 많은 전력을 절약하면서도 근로자들에게 보다 문화위생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게 되었음. 위원회에서는 샘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하였음. 이 과정에 종전의 상수도망체계를 그대로 이용하여 샘물을 공급하기 위한 현실적인 가능성을 찾아주고 공사를 시작부터 드세게 내밀었음. 짜인 작전과 지휘로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불러일으키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백m³의 암반굴착작업과 배수탱크건설, 천 수백m의 수도관 늘이기 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음.

□ 김일성화김정일화 전시회

○ 제9차 김일성화축전과 조선인민군창건 75돌 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 전시회가 13일 수도 평양에서 개막되었다고 보도(민주조선 4. 14)

□ 기초식품

○ 청진기초식품공장 소개(로동신문 4. 4)

- 청진기초식품공장은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지방마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그마한 장공장에 지나지 않았음. 그러한 공장이 오늘은 컴퓨터를 이용한 현대적인 기초식품 생산공정들을 그끈히 갖추어놓고 해마다 장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에 실지 이바지하는 공장으로 되었음.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생산되는 갖가지 기초식품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도 힘 있게 벌림으로써 질 좋은 장을 만들어내게 되었음.

□ 기계화

○ 농업성 농기계공업관리국의 소식보도(로동신문 6. 7)

- 농업성 농기계공업관리국 아래 각지 트랙토르부속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농촌에 더 많은 트랙토르부속품을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고 있음.

○ 농사를 함께 책임지는 립장에서(로동신문 6. 16)

- 영농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데 큰 몫을 맡고 있는 기계공업성에서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각종 트랙토르 부속품 생산을 다그치고 있음.
- 기계공업성의 일군들은 부속품 생산을 맡고 있는 아래 단위 공장들에 대한 전기, 자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들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대책을 세우고 있음.
- 부속품 생산이 활발히 벌어지는 회천정밀기계공장, 금성트랙토르공장에 내려간 룬 전기기계공업관리국의 일군들은 그곳 일군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사회주의농촌에 보내줄 부속품 생산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음.
- 기계공업성의 생산지휘일군들은 평양베어링공장, 랑책베어링공장들에 베어링생산에 필요한 강재를 보장해준데 기초하여 빠른 기간 안에 협동농장들에 보내줄 각종 베어링들을 생산보장하기 위하여 실천하고 있음.
- 기계공업성에서는 모든 역량을 농사에 총동원할 데 대한 당의 호소대로 룡강군 옥도협동농장에 대한 로력적 및 물질적 지원사업도 근기 있게 추진하고 있음.
- 성에서는 농장에 공급되는 화학비료 수송을 맡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으며 9중에 근 200개의 각종 농기계부속품들과 많은 량의 비닐박막과 연유 등 영농물자들도 모내기철 이전에 해결해줌으로써 이곳 농업근로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음.

□ 개구리

○ “개구리를 적극 보호증식시키자” 게재(민주조선 5. 18)

- 지금은 개구리들의 번식기임. 때문에 이 시기에 개구리를 적극 보호증식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함. 우리나라에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참개구리, 산골짜기에 많은 기름개구리와 북개구리, 우리나라 특산종인 금개구리를 비롯하여 10여종의 개구리들이 살고 있음.
- 개구리는 사람들의 생활에 매우 유익한 일을 함. 무엇보다도 개구리는 사람들의 생활에 여러 가지로 해를 주는 나쁜 벌레들을 잡아 없앴. 개구리는 논과 밭, 과수원, 방목지, 산림 등 여러 곳에 살면서 늦벌레, 풍뎅이류, 강냉이 대벌레를 비롯하여 농

작물과 과수, 산림에 해를 주는 벌레들을 많이 잡아먹음. 또한 전염병을 퍼뜨리는 모기, 파리, 곤두벌레들도 많이 잡아먹음. 또한 여름철에 개구리의 울음소리는 독특한 정서를 자아내며 자연풍치를 돋구어주기도 함.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교류협력사업 동향
3.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4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7년 4월 중 남북교역액은 13,286만 달러로 전년 동월 6,695만 달러에 비해 98.5% 증가하였음(전월 10,315만 달러 대비 28.8% 증가)
- 반입은 4,602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3,038만 달러에 비해 51.5% 증가하였음.(전월 5,863만 달러 대비 21.5%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석유류 28.5%, 농림수산물 21.0%, 광산물 19.6%, 철강·금속제품 18.1%, 생활용품 4.5% 등임.
- 반출은 8,684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3,656만 달러에 비해 137.5% 증가하였음(전월 4,451만 달러 대비 95.1% 증가)
 - 품목별 구성은 화학공업제품 47.8%, 기계류 16.0%, 석유류 8.8%, 철강·금속제품 7.9%, 전기·전자제품 7.5% 등임.

□ 4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7년 4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965만 달러로 전월 1,174만 달러 대비 17.8% 감소하고 4월 전체 반입액 4,602만 달러의 21.0%를 차지했음.

* 통일부 교류협력국에서 발간하는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과 통일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 반입 농림수산물: 마늘·표고버섯 등 농산물이 338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7.4%), 목재류 등 임산물이 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2%), 기타 조개 등 수산물이 625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3.6%)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7년 4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309만 달러로 전월 431만 달러 대비 28.3% 감소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 마늘·채소 등 농산물이 23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2.7%), 기타 낙농품 등 축산물이 7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수목류 등 임산물이 48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6%), 어패류 등 수산물이 2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3%)를 차지했음.

□ 5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7년 5월 중 남북교역액은 15,192만 달러로 전년 동월 10,107만 달러에 비해 50.3% 증가하였음.(전월 13,286만 달러 대비 14.3% 증가)
- 반입은 6,339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3,678만 달러에 비해 72.4% 증가하였음.(전월 4,602만 달러 대비 37.7%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15.1%, 농림수산물 27.7%, 광산물 18.7%, 철강·금속제품 25.4%, 생활용품 4.1% 등임.
- 반출은 8,853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6,429만 달러에 비해 37.7% 증가하였음(전월 8,684만 달러 대비 1.9% 증가)
 - 품목별 구성은 화학공업제품 50.3%, 기계류 10.6%, 섬유류 8.4%, 철강·금속제품 8.9%, 전기·전자제품 9.2% 등임.

□ 5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7년 5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754만 달러로 전월 965만 달러 대비 81.7% 증가하고 5월 전체 반입액 6,339만 달러의 27.7%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 마늘·표고버섯 등 농산물이 42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6.7%), 기타 조개 등 수산물이 1,33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21.0%)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7년 5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478만 달러로 전월 309만 달러 대비 54.7% 감소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채소 등 농산물이 340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3.8%), 기타 낙농품 등 축산물이 1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 수목류 등 임산물이 94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1.1%), 어패류 등 수산물이 28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3%)를 차지했음.

표 1 2007년 4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 목	중 량(kg)	금 액(천달러)	구성비	품 목	중 량(kg)	금 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2,248,123	3,386	7.4	농산물	1,447,194	2,316	2.7
녹두	400,000	384		쌀	2,906	6	
강낭콩	85,680	43		옥수수	100	22	
들깨	80,000	80		감자	50,181	108	
기타곡싹류	10,000	11		밀가루	85,514	80	
마늘	393,450	913		사과	150	1	
기타채소	131,552	193		배	165	1	
고사리	8,210	50		바나나	400	1	
죽순	3,240	5		오렌지	1,360	5	
표고버섯	100,763	819		당근	293	1	
기타버섯류	49,868	422		토마토	15	0	
밤	35,000	31		양파	305	1	
기타견과류	247,900	123		마늘	429,030	829	
식물성액즙	510	5		기타채소	170,050	152	
간장	1,000	1		고사리	700	4	
원장	10,958	7		기타산식물	382,460	216	
식물성한약재	89,570	177		사료	39,960	18	
소주	3,602	4		효모류	25	0	
맥주	4,500	4		고추장	570	1	
기타주류	1,080	5		토마토케찹	314	1	
물	546,560	78		마요네스	222	1	
비스킷	300	2		커피조제품	3,293	14	
면류	15,000	11		초코렛	438	11	
기타농산가공품	29,380	19		녹차	761	4	
				홍차	248	1	
				제조담배	2,045	52	
				식물성한약재	13,500	10	
				소주	2,480	5	
				맥주	4,060	4	
				포도주	20	1	
				위스키	360	18	
				기타주류	588	7	
				기타당류	2,400	1	
				과일주스	7,825	43	
				기타음료	1,384	3	
				사탕	370	6	
				비스킷	39,422	174	
				곡류가공품	47	0	
				빵	18,293	54	
				면류	30,936	144	
				기타농산가공품	117,194	285	
				종자류	34,220	32	
				면	2,590	3	
축산물	-	-	-	축산물	18,109	70	0.1
				쇠고기	44	0	
				돼지고기	962	3	
				소시지	10,698	12	
				로얄제리	396	2	
				분유	2,830	10	
				기타낙농품	3,179	42	
임산물	33,567	18		임산물	606,066	487	0.6
				합판	82,128	85	
				섬유판	5	0	
합판	25	0		건축용목제품	7,180	54	
건축용목제품	11,000	4		목제식탁용품	2,649	21	
기타목재류	7,392	6		목제장식품상자	50	4	
기타임산부산물	15,150	8		기타목제생활용품	4	0	
				기타목재류	6,520	9	
				수목류	507,530	314	
수산물	3,083,176	6,250	13.6	수산물	95,382	219	0.3
넙치	1,429	14		가자미	42	0	
새우	116,504	1,041		기타어류	5	0	
기타게	14,713	124		문어	10	0	
문어	158,925	657		굴	30,000	41	
피조개	23,374	64		기타연체동물	7,530	11	
기타조개	1,624,152	1,747		김	385	5	
기타연체동물	688,131	833		기타수산가공품	49,170	131	
미역	14,955	10		기타수산물	8,240	31	
한천	600	19					
기타염장수산물	10,485	28					
건조수산물	40,680	246					
기타수산가공품	355,552	1,194					
기타수산물	33,676	273					
합 계		9,653	21.0	합 계		3,092	3.6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90호(2007.4.1~4.30).

표 2 2007년 5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 목	중 량(kg)	금 액(천달러)	구 성비	품 목	중 량(kg)	금 액(천달러)	구 성비
농산물	2,158,800	4,229	6.7	농산물	1,948,613	3,405	3.8
녹두	200,000	198		쌀	24,329	23	
강낭콩	65,080	35		감자	63,976	118	
들깨	280,000	327		완두	2,000	9	
무	150	0		쌀가루	1,600	4	
마늘	521,054	1,209		밀가루	98,388	108	
기타채소	223,800	367		바나나	468	1	
고사리	10,200	59		오렌지	204	1	
표고버섯	137,433	1,004		수박	920	1	
기타버섯류	30,547	260		당근	687	2	
밤	72,000	67		토마토	10	0	
기타견과류	88,000	48		마늘	716,365	1,383	
기타식물성유지	200	2		기타채소	39,718	83	
제조담배	675	7		기타화초	95,740	86	
식물성한약재	215,416	527		표고버섯	1,222	7	
기타주류	5	0		기타버섯류	760	19	
물	210,320	33		기타산식물	305,000	99	
면류	30,330	22		사료	110,960	70	
기타농산가공품	73,590	62		기타소스류	136	0	
				커피조제품	11,132	65	
				초코렛	775	15	
				코코아조제품	326	5	
				제조담배	4,950	148	
				인삼류	38	1	
				식물성한약재	11,034	12	
				소주	2,880	5	
				맥주	16,460	15	
				포도주	106	3	
				위스키	9,970	193	
				기타주류	2,519	35	
				기타당류	1,354	18	
				물	47,200	7	
				기타음료	904	4	
				사탕	486	2	
				비스킷	35,533	80	
				곡류가공품	71	0	
				빵	22,972	78	
				면류	126,114	267	
				빙과류	50	0	
				기타농산가공품	154,707	403	
				종자류	36,549	32	
축산물	-	-	-	축산물	24,012	162	0.2
				쇠고기	27	0	
				돼지고기	900	3	
				소시지	11,318	13	
				기타육류가공품	15	0	
				로얄제리	106	0	
				분유	10,330	142	
				기타낙농품	1,316	2	
임산물	3	-	0.1	임산물	1,758,040	941	1.1
합관	3	-		합관	144,423	60	
				삼유관	5,000	4	
				목제장식품상자	166	3	
				기타목재류	255,416	203	
				수목류	1,353,035	671	
수산물	5,008,300	13,317	21.0	수산물	150,612	281	0.3
기타어류	42,490	40		오징어	16	0	
새우	207,280	1,892		문어	43,289	89	
기타게	475	3		굴	3,000	5	
문어	57,002	200		기타조개	71,700	67	
낙지	1,608	2		기타연체동물	14,500	11	
피조개	13,601	37		건조수산물	80	0	
기타조개	2,282,834	2,261		기타수산가공품	16,152	68	
기타연체동물	1,106,234	1,161		기타수산물	1,875	40	
건조수산물	602,118	5,232					
기타수산가공품	652,935	2,091					
기타수산물	41,723	399					
합 계		17,546	27.7	합 계		4,789	5.4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91호(2007.5.1~5.31).

□ 남북한 교역 통계

표 3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1989	66	24	18,655	1	1	69	18,724	△ 18,586
1990	79	23	12,278	4	3	1,188	13,466	△ 11,090
1991	300	43	105,719	-	16	5,547	111,266	△100,172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173,426	△152,300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169,74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194,547	△158,049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87,291	△158,419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252,039	△112,761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08,339	△ 77,79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333,436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402,957	50,61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641,730	98,58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724,217	145,713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697,040	180,962
2005	9,337	381	340,281	11,878	712	715,472	1,055,754	375,191
2006	16,412	421	519,539	17,039	697	830,200	1,349,739	310,661
소 계	63,313	2,797	3,473,404	63,432	5,599	3,924,251	7,397,655	450,848
2007.1	1,759 (953)	169 (152)	55,581 (26,741)	1,848 (1,162)	340 (296)	37,168 (36,364)	92,749 (63,105)	△18,431 (9,623)
2007.2	1,533 (871)	170 (165)	44,431 (28,419)	1,586 (1,191)	339 (309)	37,797 (38,068)	82,228 (66,487)	△6,634 (9,649)
2007.3	1,939 (1,253)	166 (176)	58,636 (41,335)	1,823 (1,425)	399 (345)	44,515 (89,671)	103,151 (131,006)	△14,121 (48,336)
2007.4	1,803 (1,083)	180 (164)	46,029 (30,388)	1,891 (1,132)	431 (294)	86,840 (36,564)	132,869 (66,952)	40,811 (6,176)
2007.5	2,222 (1,080)	187 (164)	63,397 (36,780)	2,115 (1,280)	443 (325)	88,531 (64,299)	151,929 (101,079)	25,134 (27,519)
소 계	9,256 (5,240)	311 (303)	268,074 (163,663)	9,263 (6,190)	629 (544)	294,851 (264,966)	562,925 (428,629)	26,777 (101,303)
총 계	72,569	3,108	3,741,478	72,695	6,228	4,219,102	7,960,580	477,624

주: 1) ()안은 2006년 동기 실적임.

2)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3)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27~191호.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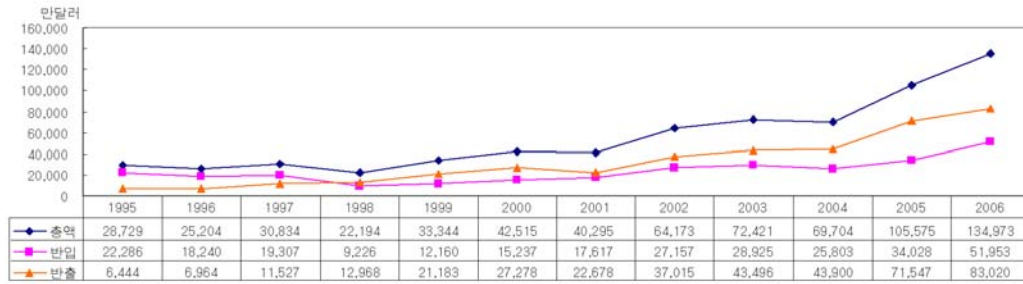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 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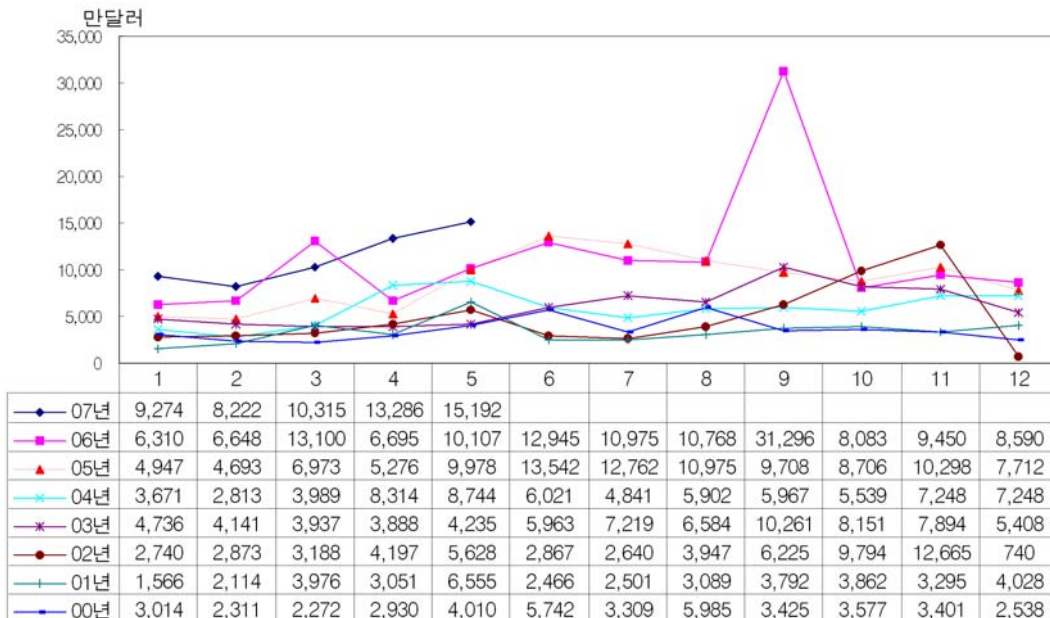


표 4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1989	2,178	-	-	174	2,352	-	-	-	-	-	2,352	△2,352
1990	5,130	-	49	393	5,572	10	-	-	-	10	5,582	△5,562
1991	6,364	-	1,402	3,052	10,818	1,607	-	-	-	1,607	12,425	△9,211
1992	9,546	-	2,277	5,083	16,906	64	-	-	-	64	16,970	△16,842
1993	6,916	-	4,221	879	12,016	63	-	-	6	69	12,085	△11,947
1994	5,315	-	7,212	2,723	15,250	3,220	-	-	97	3,317	18,567	△11,933
1995	13,506	-	6,003	2,810	22,319	8,879	-	273	154	9,306	31,625	△13,013
1996	11,853	-	2,014	9,588	23,455	6,044	-	57	613	6,714	30,169	△16,741
1997	7,871	-	4,902	14,553	27,326	16,525	-	116	383	17,024	44,350	△10,302
1998	7,895	-	3,526	13,377	24,798	18,732	-	510	398	19,640	44,438	△5,158
1999	15,057	-	4,484	28,327	47,868	15,682	-	1,796	189	17,667	65,535	△30,201
2000	23,352	-	7,014	41,566	71,932	23,910	-	1,005	464	25,379	97,311	△46,553
2001	38,703	78	5,717	45,316	89,814	26,939	2,157	424	2,977	32,497	122,311	△57,317
2002	28,881	395	95	70,531	99,902	103,080	5,079	1,102	934	110,195	210,097	10,293
2003	36,203	1,474	245	89,714	127,636	112,345	7,425	2,206	3,583	125,559	253,195	△2,077
2004	32,965	443	244	68,209	101,862	60,649	2,411	2,006	2,075	67,141	169,003	△34,721
2005	21,425	664	318	57,430	79,837	73,303	1,638	2,160	821	77,922	157,759	△1,915
2006	37,670	184	437	99,563	137,854	206,702	1,745	4,451	994	213,892	351,746	76,038
소 계	310,830	3,238	50,160	553,288	917,517	677,754	20,455	16,106	13,688	728,003	1,645,520	△189,514
2007.1	2,996 (2,323)	- (36)	26 (73)	13,345 (7,845)	16,367 (10,277)	3,002 (833)	32 (107)	41 (183)	27 (161)	3,102 (1,284)	19,469 (11,561)	△13,265 (△8,993)
2007.2	- (1,550)	- (71)	- (41)	- (5,049)	- (6,711)	- (1,078)	- (645)	- (227)	- (31)	- (1,981)	- (8,692)	- (△4,730)
2007.3	2,069 (2,191)	- (14)	5 (53)	9,666 (9,539)	11,740 (11,797)	3,111 (1,080)	291 (198)	774 (248)	143 (33)	4,319 (1,559)	16,059 (13,356)	△7,421 (△10,238)
2007.4	3,386 (2,521)	- (4)	18 (47)	6,250 (4,694)	9,654 (7,266)	2,316 (1,164)	70 (7)	487 (372)	219 (27)	3,092 (1,570)	12,746 (8,8362)	△6,562 (△5,696)
2007.5	4,229 (2,023)	- (-)	- (23)	13,317 (8,504)	17,546 (10,550)	3,405 (1,522)	162 (9)	941 (252)	281 (108)	4,789 (1,891)	22,335 (12,441)	△12,757 (△8,659)
소 계	12,680 (10,608)	- (125)	49 (237)	42,578 (35,631)	55,307 (46,601)	11,834 (5,677)	555 (966)	2,243 (1,282)	670 (360)	15,302 (8,285)	70,609 (54,886)	△40,005 (△38,316)
총 계	-	-	-	-	972,824	-	-	-	-	743,305	1,716,129	△229,519

주: 1) ()은 2006년 동기 실적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27~191호. <http://www.unikorea.go.kr>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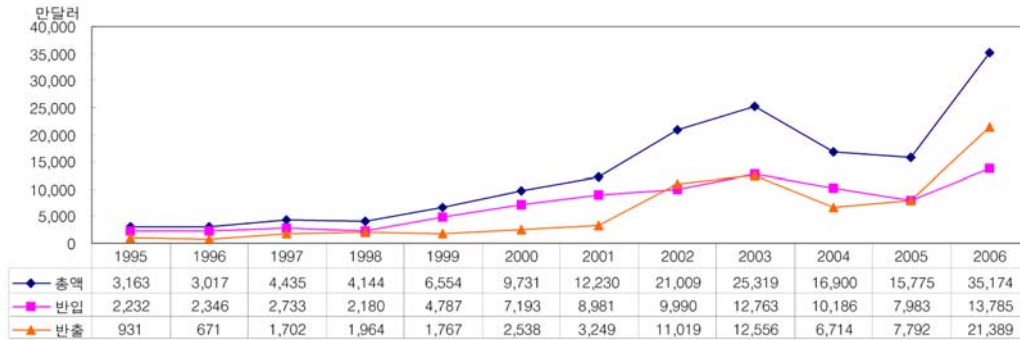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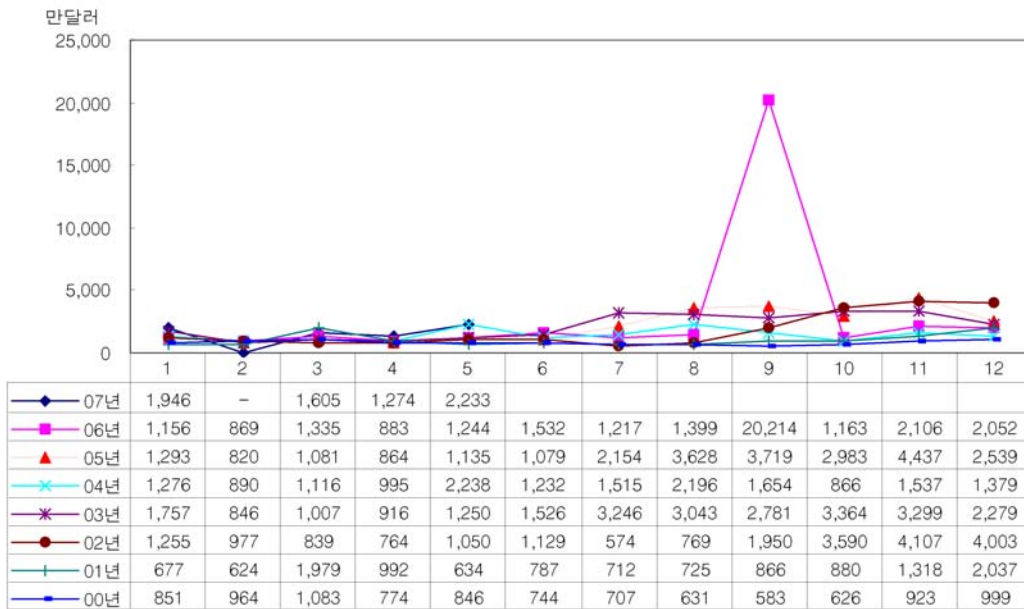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 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교류협력사업 동향

□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 2007년 4~5월 중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이나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은 없음. 5월 말 현재,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단체)는 총 19개로 전체 270개 기업(단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승인된 협력사업 248건 중 농림수산분야는 14건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음.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2007년 5월 말 현재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 승인일
미용식품**(합 영)	조선철산무역총회사	수산물 채취가공-양식 및 판매	청진, 함흥 원산, 남포	15만불 (47만불)*	'97.5.22 (*98.3.13)*
파라우수산(합 영)	조선온파산무역상사	수산물 생산가공	원산, 해주	300만불	'97.8.1
금오식품(합 작)	은하무역총회사	냉면·고구마전분 제조	평양	40만불	'97.8.1
태영수산/LG상사** (합 영)	광명성총회사	가리비 양식·생산	나진, 원산	200만불 (65만불)*	'97.10.14 (*98.8.28)*
안흥개발(합 작)	조선56무역회사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남포	50만불	'98.3.13
두레마을영농조합법인** (합 작)	라선경제협조회사	나진, 선봉지대 합영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사업	나진, 선봉	800만불 (200만불)*	'98.4.8 (*98.7.27)*
국제육수수제단** (조사연구)	농업과학연구원→ 농업과학원 (*99.3.25)	새품종 생산력 검정시험 및재배적지 확정, 신품종 슈퍼육수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평양, 기타	30.9억원 →216억원* (*99.3.25)*	'98.6.18 (*99.6.18→ '01.6.20)*
백산실업**(합 영)	함경북도 선봉군 온실농장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표고·느타리·진주 등 버섯류 생산·수출	나진, 선봉 (선봉군읍)	20.8만불*	'98.10.28 (*98.10.28)*
(주)해주(합 작)	광명성총회사	북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서해인근	299만불	'99.1.8
(주)G-한신 (주)경평인터내셔널**	광명성총회사	식품가공업 (김치, 원장, 상화버섯음료)	평양	-	'03.10.31 (*04.3.20)*
(주)안동대마방직**	새별총회사	북한내 대마재배 및 삼베제품	평양, 황해도	250만불*	'04.2.18 (*04.9.17)*
제일유통**	개선무역총회사	표고버섯 재배 및 가공	평양	546만불*	'04.8.21 (*04.8.21)*
상하씨엠**(계약)	개선무역총회사	농수산물 및 토산물 가공공장 설립·운영	남포	5만불*	'04.9.17 (*04.9.17)*
(주)제이유네트위크**	광명성총회사	김치제조공장 설립 및 유통·판매	평양	160만불*	'04.12.30 (*04.12.30)*
(주)에너지극동개발	광명성총회사	사료 제조·판매	평양	-	'04.12.30
아이니무역**	개선총회사	다슬기 가공설비 투자 및 반입·판매	원산	15만불*	'05.06.15 (*05.06.15)*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나무재배 및 판매	황북 봉산 황남 언덕	26만불*	'05.12.30 (*05.12.30)*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과수재배 및 생산물 판매	평양 민경대	164만불*	'05.12.30 (*05.12.30)*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소사육 생산 및 판매	황북/황남, 평양	30만불*	'05.12.30 (*05.12.30)*

주: 1) *는 협력사업 승인 금액 및 날짜임.

2) **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단체)임.

3) 현대아산과 금강산관광총회사간의 계약에 의한 금강산영농장사업은 현대아산이 영농장의 시설재·농자재를 금강산관광총회사에 연불수출(延拂輸出)하고 북한측은 생산물로 연불수출금을 상환하는 형태임(금강산관광총회사에서 영농장 운영은 고성군인민위원회에, 생산물 납입 가격 협의는 광명성총회사에 위탁).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91호.

3.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일부, 2007. 4. 27)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4월 27일 제267회 임시국회에서 가결
- 법률안 가결의 의의
 - 개성공단 관련 법 체계 수립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 마련
 - 기반시설 지원 등 국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투자 안정성을 확보
 - 개성공단 기업에 고용된 우리 근로자가 국내에서처럼 근로자보호법규와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여 근로여건 개선
 - FTA 역외가공지역 선정에 필요한 노동·환경 조건 마련

< 법률안 주요 내용 >

- 공단 개발 지원
 - 국내공단에 준하여 개성공단 개발에 대해 기반시설,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6조)
- 현지기업 및 투자자 지원
 - 남한 주민이 투자한 개성공단 내 현지기업에게 국내 기업지원제도 적용(7조 내지 10조)
 - 현지기업에 남북협력기금 직접 대출 등 허용(11조)
 -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 장려와 촉진을 위해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한 주민에게 조세 감면 혜택 제공(16조)
 - 민족내부거래의 취지에 맞게 왕래 및 교역에 대하여 절차 간소화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17조).

○ 근로자 보호

- 현지기업에 고용된 남한근로자에게 국내 4대 보험 적용(13조)
- 현지기업에 고용된 남한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근로보호의 기본법률 적용(15조)
- 개성공단 내 병원에서 남한 근로자에 대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실시(14조)

○ 공단개발사업 관련 각종 기관 등 정비

- 공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정부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협의회 구성·운영(4조)
-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법인격을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공무원·민간전문가 파견 및 자금·물품 등 지원의 근거 마련(18조 및 20조)
- 민법상 사단법인인 지원협회를 공법인인 지원재단으로 변경(19조 및 부칙 2조)

□ 제2차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협력 실무협의 결과

(통일부, 2007. 5. 4)

- 5월 2일부터 4일까지 남북은 제2차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5개 항에 합의

○ 합의 사항

- 경공업 원자재 1항차분(섬유 500톤) 제공
- 남측 기술지원단의 북측 경공업 생산 공장 방문과 기술지원 실시
- 검덕, 룡양, 대흥 광산의 지질도 등 광물 관련 자료 남측에 제공
- 남북 공동조사단, 검덕, 룡양, 대흥 광산 등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 제3차 실무협의 개최

○ 이번 합의의 주요 의의

-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따른 생산현장 모니터링과 기술지원 실시
- 사업성이 기대되는 북측 광산개발 지역 선정(3곳)
- 지하자원개발 관련 자료 확보와 전문가의 현지공동조사 일정 확정

※ 지하자원협력 추진 일정 : ①북측 광산 관련 자료 검토 ②현지 공동조사 ③타당성 분석 ④지하자원 개발 투자 ⑤생산 시작

○ 향후 조치

-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 개발 협력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측 이행 기구를 설립·발족

< 제2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 공동보도문 >

남과 북은 제2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를 2007년 5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및 제13차 회의에서 합의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세부이행 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2007년에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분 중 1항차로 폴리에스터(polyester) 단섬유(1.4D×38mm) 500톤을 6월27일 인천항↔남포항간 정기해상 수송을 통해 제공하기로 한다.
2.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관련하여 10명으로 구성된 남측 기술지원단이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북측의 경공업 공장 현장방문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기로 한다.
3. 북측은 검덕광산(아연), 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 대흥광산(마그네사이트)에 대한 지질도, 지질단면도, 매장량 산출도면, 장비현황 등 광물관련 자료를 6월 12일 이전에 남측에 제공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단천지역의 검덕광산(아연), 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 대흥광산(마그네사이트)에 대한 지하자원 현지 공동조사를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하기로 하며, 공동조사단은 각기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5. 남과 북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제3차 실무협의를 5월 22일에서 23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7년 5월 4일 개 성

□ 북한 산림병충해 방제 지원(통일부, 2007. 5. 8, 5. 11)

- 북한의 산림병충해 방제지원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이 5월 8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

- 북측의 산림병충해 방제지원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솔나방, 솔잎혹파리 방제에 필요한 약품, 기술적 자료 등을 북측에 제공하기로 협의
- 우리측 방제전문가가 방북하여 북측 산림병충해 발생 현장을 방문하기로 협의
- 구체적인 지원 품목과 현장방문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추후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협의하기로 합의

○ 남북협력기금 무상지원 결정

- 북한이 산림병충해 방제지원을 위한 실무접촉(5.8 개성)에서 솔나방 등 산림병충해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방제에 필요한 약품과 장비, 기술적 자료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
- 우리 정부는 북한 산림병충해 피해 확산 방지의 시급성, 남북간 산림병충해 공동방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병충해 방제 약품, 장비 및 자료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

□ 제1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통일부, 2007. 5. 15)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는 5월 15일 ‘대북식량차관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

○ 대북 식량차관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북한 식량난 완화를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쌀 차관 40만 톤을 제공하기로 합의
-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1억 5천 4백만 달러 이내의 차관과 부대경비 186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출을 의결

※ 상환조건 :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이자율 연 1%

-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배현장 확인을 2005년도 수준(매 10만 톤당 4곳)보다 강화하여 매 10만 톤당 5곳 실시(총 20곳) 계획
- 국내산 쌀 15만 톤 중 5만 톤은 육로로, 10만 톤은 해로로 수송하며, 외국산 쌀 25만 톤은 현지에서 해로로 수송할 예정

※ 이번 회의에서 쌀 제공 시기와 속도는 「2.13 합의」 이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밝힘.

○ 대북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2007.4.18~22)에서 남측은 2007년도 8천만 달러분의 의복류·신발·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고, 북측은 아연·마그네사이트 등 지하자원, 지하자원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등으로 대가를 상환하기로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경공업 원자재 구입·제공비 800억 원(유상), 지하자원 개발 현지조사비 등 사업비와 이행기구 위탁수수료 40억 7,800만 원(무상) 등 총 840억 7,800만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의결

○ 북한 산림병충해 방제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북한은 올해 참나무시들병과 송충병 구제에 필요한 약품과 자료를 요청(4. 5)한 바 있으며,
- 산림병충해 방제지원을 위한 실무접촉(5. 8, 개성)에서 솔나방 등 산림병충해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방제에 필요한 약품과 장비, 기술적 자료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
- 정부는 북한 산림병충해 피해확산 방지, 남북간 산림병충해 공동방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약품·장비·수송비 등을 지원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소요경비 19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 지원하기로 결정

○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약정체결 승인

- 개성공단 입주업체 3개 기업이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약정체결을 신청
- 상기 기업 모두 손실보조 관련 규정이 정한 약정체결 조건에 부합함에 따라 3개 기업 약정체결 신청금액 총 89억 원을 승인하기로 의결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남북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업무위탁(통일부, 2007. 5. 31)

- 통일부는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동 법인을 남북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이행기구로 지정, 이를 북측에 통보
-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지정은 남과 북이 경공업·지하자원개발협력을 위한 총괄 이행기구를 지정하여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임.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앞으로 경공업 협력과 관련해 원자재 제공규모·가격·방식 등을 북측과 협의·확정하고 원자재 구매·수송 및 상환, 경공업 기술협력 등의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 또한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대북협의를, 타당성 조사, 투자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신발피혁연구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비누세제협회 등 경공업 및 지하자원 분야의 공기업과 단체가 참여하여 설립한 통일부 허가 법인임.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간 실무협의 개최 결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07. 6. 8)

- 남과 북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간 제1차 실무협의』를 2007년 6월 7일부터 8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
 - 양측 이행기구 : 남측(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측(명지총회사)
 - 양측은 지하자원 개발관련 현지 공동조사 일정 및 자료 제공, 경공업 원자재(신발·의류·비누) 제공 가격, 품질 문제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이행기구간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함.

□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통일부, 2007. 6. 1)

-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5.29~6.1 서울에서 개최
 - 남과 북은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향과 남북간 제반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보도문을 채택

《공 동 보 도 문》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7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지난 20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이룩된 성과와 교훈을 평가하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부합되게 보다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원칙적이며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제기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더 연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대북 식량지원 요청

(통일부, 2007. 6. 13)

- 6월 13일 WFP 사무총장은 통일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금년도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어려우며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고통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WFP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을 요청
- WFP는 지난 4월까지 올해의 외부지원이 약 5만 톤에 불과하여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북한의 식량사정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
 - 올해 북한 내 50개 지역 190만 명 지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30개 지역 70만여 명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며, 6월 중으로 40만 명의 어린이들에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
 - 북한 주민들에 대한 WFP의 지원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

□ 제18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통일부, 2007. 7. 2)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7월 2일 「WFP를 통한 북한식량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5개 주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
- WFP를 통한 북한식량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정부는 WFP측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대북식량지원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2,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
- ※ 정부는 1996년 혼합곡물 3,400톤 지원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WFP를 통해 총 52만 톤을 지원(2001~04년 기간 중에는 매년 옥수수 10만 톤 포함)
- 북한 의료인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정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추진하는 「북한 의료인 교육훈련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6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독일 NGO인 독-조의학협회와 공동으로 독일 병원에서 향후 5년간 매년 10명씩 북한 의료인 훈련사업을 추진할 계획
 - 정부는 1년차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1억 1,500만 원 중 북한의사 현지 체류경비 일부와 사업평가비 6천만 원을 지원

- 개성공단 기술교육센터 북측강사 양성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정부는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건립중인 ‘개성공단 기술교육센터’(2007.10월 준공 예정)에 남측 강사와 함께 북측 근로자 훈련을 담당할 북측 강사를 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4억 7천만 원을 지원키로 의결
 - 본 사업은 개성공단 기술교육센터에 근무할 북측 강사들을 대상으로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등 5개 분야의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임.

- 2007년도 포항공대의 북한 경제인력 양성사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정부는 포항공대와 美 시라큐스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북한 경제 인력양성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15,922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
 - 본 사업은 북한의 컴퓨터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3주간 IT 관련 용어를 중심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임.

-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
 - 정부는 최근 북핵문제 해결 진전, 남북관계 발전, 개성공단 투자확대 등 남북경협 환경과 대북투자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를 개선, 7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
 - 기금대출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자료> 참조

< 자 료 1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2007. 4.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성공업지구"라 함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
2.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어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개발업자로 지정된 남한주민을 말한다.
3.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어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출입" 또는 "체류"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6. 이 법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는 용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정부의 시책 등)

-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국제적인 공업지구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③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함에 있어 남북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산업안전에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환경 친화적인 공업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④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이 민족내부거래의 원칙과 관행에 맞

게 정착·발전시키고, 이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다.

- ⑤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의 구성)

- ①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기관·단체의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지원, 왕래와 교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제6조(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개성공업지구내 입주기업의 유치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용수, 철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은 정부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에게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단서, 제29조,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지원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 ④ 통일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정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제2항의 기반시설에 지원된 비용을 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개발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지원, 시설부담금 납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의 지원)

-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현지기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의 사업자로 본다.
- ② 정부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 등으로 하여금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이 법에 정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력·기술개발, 교육훈련, 경영혁신 및 안정, 수출촉진 등을 위한 기업지원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출입·체류자의 보호

제13조(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 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남한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②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를 제1항 각호의 법률이 정하는 사용자(사업주) 및 근로자로 본다.
- ③ 제1항 각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남한 근로자가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은 국내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 각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노동부장관·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그밖에 제1항 각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료기관 등)

- ① 「의료법」 제30조 제2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남한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어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으로 본다.
- ② 개성공업지구에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 ③ 제1항에 따라서 설립된 의료기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 중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게 해당하는 자에게 「의료급여법」 제7조에 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의 인정,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 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② 제1항 각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노동부장관·근로감독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그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조세, 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조세 특례)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 주민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왕래와 교역의 특례)

- ① 개성공업지구의 교역물품 및 통행차량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6장 제3절, 제9장 제1절 및 제2절을 준용하되, 민족내부거래의 원칙을 반영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② 개성공업지구의 왕래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른 수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신고의 면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③ 개성공업지구를 왕래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출입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간소화를 위한 특례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간소화에 관한 특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18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 ①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
- 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남한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9조(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2.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지도·감독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무
-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제2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⑤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그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용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공무원의 파견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제1항의 공무원 아닌 자의 파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의 청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는 법 시행과 더불어 청산되며, 청산법인의 권리·의무는 제19조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자 료 2 >

개성공단 관련 주요 통계(통일부, 2007. 6. 5)

개성공단 생산현황(2005~2007.4)

단위 : 천 달러

구 분		섬유	화학	금속기계	전기·전자	합계
'05년	1월	-	-	201	-	201
	2월	30	-	92	-	122
	3월	130	-	52	-	182
	4월	201	-	135	-	336
	5월	297	36	108	-	441
	6월	318	40	79	-	437
	7월	390	87	298	-	775
	8월	594	123	407	69	1,193
	9월	964	235	697	155	2,051
	10월	1,176	350	1,091	227	2,844
	11월	1,279	417	979	267	2,942
	12월	1,401	480	1,111	390	3,382
'06년	1월	1,569	461	1,002	364	3,396
	2월	1,965	373	986	468	3,792
	3월	2,813	411	1,338	647	5,209
	4월	2,002	448	1,243	657	4,350
	5월	2,113	458	1,519	1,053	5,143
	6월	1,897	957	1,464	1,190	5,508
	7월	1,643	885	1,924	1,063	5,515
	8월	1,936	1,240	2,164	1,471	6,811
	9월	2,416	1,408	2,163	1,634	7,621
	10월	2,366	1,295	2,080	1,814	7,555
	11월	3,109	1,508	2,448	1,803	8,868
	12월	3,964	1,456	2,522	2,027	9,969
'07년	1월	5,531	1,473	2,631	2,327	11,962
	2월	4,436	1,369	2,590	1,960	10,355
	3월	6,112	1,751	3,020	2,398	13,281
	4월	6,127	1,415	2,472	2,446	12,460
합계		56,779	18,676	36,816	24,430	136,701

수출 현황

단위 : 천 달러

기간	'05	'06.1분기	'06.2분기	'06.3분기	'06.10	'07.1	'07.2	'07.3	'07.4	합계
계	866	2,280	3,775	6,642	6,969	2,717	2,502	3,161	2,996	32,068

북측근로자 채용 현황(2007. 4. 30 현재)

단위: 명

총계	입주 기업	지원기관				공사 인력			
		소계	관리위원회	토지공사	현대아산	소계	중기공장	부지조성공사	건축공사
13,045	10,458	393	132	24	237	2,194	425	1,023	746

* 남측 인원은 입주업체, 관리위, 개발사업자 등 총 802명이 근무

인원·차량 출입경 현황(2007. 4. 30 현재, 편도 기준)

단위: 명

구분	'05	'06	'07.1	'07.2	'07.3	'07.4	합계
인원	40,874 (144명/일)	59,553 (203명/일)	5,851 (226명/일)	5,223 (261명/일)	6,826 (253명/일)	7,039 (306명/일)	125,366
차량	19,413 (69대/일)	29,807 (101대/일)	2,755 (107명/일)	2,300 (115대/일)	3,043 (112대/일)	3,006 (130대/일)	60,324

외국인 출입 현황(2007. 4. 30 현재)

단위: 명

구분	'05	'06. 1분기	'06. 2분기	'06. 3분기	'06.10	'06.11	'06.12	'07.1	'07.2	'07.3	'07.4	총계
바이어	5	2	6	2	-	-	7	-	3			25
투자 기술자	14	3	17	11	-	5	1	-	-			51
방문	30	66	201	22	8	42	6	5	41	85	34	540
총계	49	71	224	35	8	47	14	5	44	85	34	616

< 자 료 3 >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 주요 내용(통일부, 2007. 7. 2)

(1) 개성공단 투자자산 담보인정비율 조정

- ① 개성공단 투자자산 담보인정비율 : 현행 44% → 54%로 상향
(토지이용권 및 건물 : 50% ⇒ 60%, 기계설비 : 30% ⇒ 40%)
 - 개성공단 투자 활성화,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제정(2007. 4) 및 관련기업들의 지속적 요청을 감안, 개성공단 소재 자산의 담보인정비율을 국내공단 수준으로 상향 조정
 - ※ 수도권 공단 평균 수준은 60%, 남동, 반월 등 주요공단은 70%
- ② 후취담보 대출 취급요건 : 현행 신용등급 P4 이상에서 P6 이상으로 완화
 - 현행 후취담보 취득대상, 절차가 복잡하여 불필요한 요건을 완화·폐지

(2) 대출조건의 탄력적 적용 및 심사기준 합리화

- ① 신용위험조정률 : 예금 및 부동산 담보제공시 신용위험가산율을 인하하는 등 채권보전 방법에 따른 신용위험가산율의 차등폭을 확대
 - 예금 및 확정채권 담보시 : -0.5% ⇒ -1.5% ~ -1.0%
 - 지급보증시 : -1.0% ⇒ -1.5% ~ -1.0%
 - 부동산 담보시 : 0.0% ⇒ -0.5% ~ -0.3%
 - 신용취급시 : 0.0% ~ 0.5% ⇒ 0.0% ~ 2.4%
- ② 경제협력사업 투자자금대출 소요자금 산정방법 개선
 - 대출신청시 기지출 비용도 총소요자금에 포함하여 투자기업이 자체자금으로 선 투입한 경우 불리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개선
- ③ 중소기업 신용대출 특례 개선: 부분보증 취급대상거래, 보증취급기관, 취급한도를 완화하여 신용취급 범위를 확대
 - 대상거래 : 1년 이내 반출입자금 ⇒ 경협사업, 반출입자금
 - 보증서 : 기금과 협약한 기관 ⇒ 적격보증기관까지 확대

- 부분보증비율 : 80%이상 ⇒ 70%이상
- 취급한도 : 5천만 원 ⇒ 교역 2억 원, 경험 5억 원

④ 교역자금 실적한도대출의 재대출 조건 완화

-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 경과시 일시상환의무 부과 ⇒ 일시상환의무 면제

⑤ 단기 반출·반입거래에 대한 중소기업 신용대출 특례 요건 강화 및 특별 신용대출한도 부여

- 교역기간 및 교역실적 : 현행 최근 5년 이내에서 2년 이상 교역실적, 연평균 5만 달러 이상 ⇒ 5년 이내에서 3년 이상 교역실적, 연평균 10만 달러 이상
- 신용대출기준을 일반기준을 적용하고 특별신용한도를 부여

(3) 기금지원 사후관리 강화

○ 기금사용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주요사업 모니터링 강화

- 기금집행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2조 신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¹⁾

표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07.7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¹⁾ (만달러)	실적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5차 '99.1~12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31,376	15,310	48.8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12	38,398	24,797	63.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4, 스위스 222, 노르웨이 189, 캐나다 170, 덴마크 151 등
8차 '02.1~12	24,684	22,001	89.1	미국 6,349,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영국 171, 노르웨이 144, 독일 135, 덴마크 101, 핀란드 70, 룩셈부르크 56 등
9차 '03.1~12	22,937	13,310	58.0	미국 3,152, 한국 1,683, EU 1,602,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52, 캐나다 437, 스웨덴 407, 독일 323, 노르웨이 284, 네덜란드 220, 호주 176, 덴마크 154, 핀란드 125 등
10차 '04.1~12	20,880	15,158	72.6	일본 4,660, 한국 2,509, 미국 1,906, EU 1,557, 스웨덴 910, 호주 797, 캐나다 477, 독일 426, 이탈리아 403, 노르웨이 377, 아일랜드 304, 영국 182, 핀란드 119, 덴마크 116, 뉴질랜드 106, 룩셈부르크 81 등
'05.1~12 ²⁾	-	4,523	-	유럽연합 1,322, 독일 777, 스웨덴 549, 이집트 388, 노르웨이 324,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한국 107 등
'06.1~12 ²⁾	-	1,915	-	한국 728, 스웨덴 498, 노르웨이 2,21, 호주 78, 아일랜드 70, 덴마크 69, 네덜란드 65, 독일 63, 핀란드 59 등
'07.1~7 ²⁾	-	2,734	-	유엔긴급지원자금 810, 스웨덴 269, 독일 70, 핀란드 67 등
총 계	-	160,529	-	

주 :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유엔합동호소를 통해 지원하였거나 지원을 약속한 금액을 모두 포함함.

2) 2005년부터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고 개별 지원으로 전환됨.

자료 :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uly 31, 2007)

표 2 2007년도 지원창구별 지원 실적 (2007.1.1~7.31)

지원창구	지원내역	지원국	지원액(달러)
CONCERN	식량안보 및 보건 지원	스웨덴	827,883
		소계	827,883
FAO	2007년 여름작물 생산 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700,000
		소계	700,000
GAA	식량안보 개발지원	독일	806,452
		소계	806,452
독일적십자사	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독일	695,364
		소계	695,364
Handicap International	식량안보 및 보건 지원	스웨덴	551,922
		소계	551,922
국제적십자연맹	보건, 식수 및 위생	핀란드	666,667
		소계	666,667
호주적십자사	재난관리, 식수공급, 위생	호주	403,877
		소계	403,877
Save the Children -영국	식량안보 및 보건 지원	스웨덴	827,883
		소계	827,883
스웨덴 적십자사	백신 접종 지원 보건 및 의료 인도적 지원	스웨덴	70,561
		소계	290,469
		소계	361,030
Triangle	식량안보 및 보건 지원	스웨덴	413,942
		소계	413,942
UNICEF	모자보건 지원 모자보건 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할당 2006-2007 인도적 지원 식수 및 위생프로그램 모자보건 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ECHO 유엔긴급지원자금 스웨덴 호주 이태리	1,700,000 1,945,530 3,100,000 1,000,020 1,211,632 405,405
		소계	9,362,587
유엔인구기금	산모 및 신생아 긴급 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300,000
		소계	300,000
WFP	식량지원 취약계층 구호지원 식량지원 식량지원-PRRO 10488.0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터키 유엔긴급지원자금 호주 독일 스위스	100,000 2,298,577 1,211,632 1,000,000 1,747,541
		소계	6,357,750
WHO	홍역 면역 홍보 여성 및 어린이 보건 증진 홍역백신 지원 긴급 보건 및 기초의약품 지원	한국 한국 이태리 호주	1,050,000 3,500,000 133,333 385,950
		소계	5,069,283
합 계			27,344,640

자료 :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uly 31, 2007)

표 3 2007년도 분야별 지원 실적 (2007.1.1~7.31)

분 야	지원내역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농 업	2007년 여름작물 생산 지원	유엔 긴급지원자금	FAO	700,000 소계 700,000
식 량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취약계층 구호지원 식량지원 - PRRO 10488 식량지원 식량지원	스위스 유엔 긴급지원자금 독일 호주 터키	WFP	1,747,541 2,298,577 1,000,000 1,211,632 100,000 소계 6,357,750
보 건	여성 및 어린이 보건 증진 모자보건 지원 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유엔 긴급지원자금 할당 산모 및 신생아 긴급 지원 홍역백신 지원 홍역면역 홍보 모자보건 보건 및 의료 인도적 지원 2006-2007 인도적 지원 백신 접종 지원 모성 및 어린이 보건 지원 긴급 보건 및 기초의약품	한국 ECHO 독일 유엔 긴급지원자금 유엔 긴급지원자금 이태리 한국 이태리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 유엔 긴급지원자금 호주	WHO UNICEF 독일적십자사 UNICEF 유엔 인구기금 WHO WHO UNICEF 스웨덴적십자 UNICEF 스웨덴적십자 UNICEF WHO	3,500,000 1,945,530 695,364 3,100,000 300,000 133,333 1,050,000 405,405 290,469 1,000,020 70,561 1,700,000 385,950 소계 14,576,632
다부분	식량안보 및 보건 지원 보건, 식수 및 위생 식량안보 및 보건 지원 식량안보 및 보건 지원 식량안보 및 보건 지원 재난관리, 식수 공급, 위생 식량안보 개발지원	스웨덴 핀란드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 호주 독일	CONCERN 국제적십자연맹 Triangle SC-영국 Handicap Int. 호주적십자 GAA	827,883 666,667 413,942 827,883 551,922 403,877 806,452 소계 3,692,174
식수와 위생	식수와 위생프로그램	호주	UNICEF	1,211,632 소계 1,211,632
합 계				27,344,640

자료 :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uly 31, 2007)

표 4 2007년도 원조국별 지원 실적 (2007.1.1~7.31)

지원국	지원액(달러)
유엔긴급지원자금(CERF)	8,098,577
한 국	4,550,000
스 웨 덴	3,982,680
호 주	3,213,091
독 일	2,501,816
유럽연합	1,945,530
스 위 스	1,747,541
핀 란 드	666,667
이 태 리	538,738
터 키	100,000
합 계	27,344,640

자료 :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uly 31, 2007)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가. 유엔기구

□ 토니 홀 대사, 북한의 식량부족에 대해 우려 표명

- 전 오하이오주 민주당 하원의원과 미국의 유엔식량계획 대사를 역임한 토니 홀은 북한의 고질적인 식량부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함.
- 미국의 국제민간지원단체인 머시코(Mercy Corps)를 대표하여 북한을 방문한 토니 홀 대사는 북한의 식량사정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함.
- 토니 홀 대사와 함께 북한을 방문한 낸시 린버그 머시코 총재는 “식량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라는 입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전제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식량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밝힘.

자료: <http://www.relief.int> (UNDP, DPRK update 12 Mar 2007, Mar 12, 2007)

□ 세계식량계획의 북한주민에 대한 식량지원 축소 위기

- 원조 부족에 따라 다음 달에는 지원대상 70만 명 중 40만 명에게만 식량을 지원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밝힘.
- 세계식량계획의 2007-2008년 대북 지원 목표는 1억 220만 달러이지만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은 2,320만 달러에 불과함.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9월이 되면 학교급식 프로그램도 중단될 수 있음.
- 북한은 연간 100만 톤 또는 식량소요량의 20%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주민이 기아 또는 영양실조에 직면하고 있음.
- 세계식량계획은 200만 명의 주민에게 식량을 지원해왔지만 북한 당국은 식량생산이 회복되고 있으며 양자간 지원을 선호함에 따라 지원 규모를 축소하였음.

자료: <http://www.relief.int> (DPR Korea: Special Focus of East Asia Appeal No. MAA54001 Report 2006-2007, May 16, 2007)

□ 세계식량계획, 북한의 식량위기는 정치에 의해 복잡화

- 1990년대 굶주림에 허덕이던 북한이 다시 심각한 식량부족을 맞이하고 있는데 정치가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유엔의 한 관리 밝힘.
- 세계식량계획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은 구조적 문제, 식량수입 능력의 부족과 제한된 지원으로 인해 고질적인 식량부족을 겪고 있다고 언급함.
- 어떤 전문가들은 북한 어린이의 영양문제에 대해 “7, 8, 9, 10”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아가 극심한 시기에 태어난 7세의 어린이는 어른이 되면 남한 사람에 비해 몸무게가 8kg이나 가볍고, 키가 9인치(23cm) 작으며, 10년 일찍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 세계식량계획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 주민의 1/3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게 20억 달러에 상당하는 총 400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였음.
- 2001년부터는 대북 식량지원이 세계식량계획에 의한 다자간지원에서 중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양자간 지원으로 서서히 전환하였음.
- 양자간 지원에 의해 제공되는 식량은 취약계층보다는 엘리트계층에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세계식량계획의 시각임.
- 금년 원조국들은 세계식량계획에 고작 12,000톤의 식량만을 기탁함으로써 2008년 3월까지 60만 명의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식량의 20%만이 확보됨.
- 머시코 총재는 북한주민이 당면하고 있는 비극적 상황에 대해 정치적 색채를 버리고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함.

자료: <http://www.relief.int> (AFP, NKorea food crisis complicated by politics: WFP, May 21, 2007)

□ 미국 관계자,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지원 사업에 관해 새로운 의문을 제기

- 2007년 6월 6일 미국의 관리들은 유엔개발계획 케말 더비스 총재와의 회의에서 북한 관련 사업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함.
- 이에 대해 유엔개발계획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의문점에 대해 모든 가능 문서를 제출해주면 자체적으로 이를 즉각 검토할 것이라고 함.
- 유엔개발계획은 지난 6개월간 처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함.

- 2001년과 2005년 유엔개발계획이 북한의 국가조정위원회에 70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유엔개발계획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 북한의 국가조정위원회는 유엔개발계획의 협력기구로서 유엔개발계획은 2001년과 2005년에 동 위원회에 대해 대략 175,000달러를 송금하였으며 송금된 대부분의 돈은 농업워크숍에 참석한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의 최빈국 참가자를 위한 초청비로 사용됨.
 - 농업워크숍에서는 채소재배와 종자가공 같은 주제를 다루었으며 워크숍을 위해 지출된 돈은 주로 자문료 및 훈련활동에 사용됨.
- 북한의 국가조정위원회는 유럽과 뉴욕에서 활동하는 북한인을 위해 280만 달러를 송금하였으며 이 돈은 건물과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됨.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엔개발계획은 국가조정위원회에 175,000달러 만을 송금하였으며 대부분의 돈은 농업워크숍에 사용됨.
- 유엔개발계획은 북한과 연관된 회사로부터 상품과 용역 구입비로 270만 달러를 지출하였으며 미국은 이 회사를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을 판매하기 위한 금융기관으로 지목하고 있음.
 - 유엔개발계획은 이 회사와 거래하였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음. 유엔개발계획은 2004년 UNESCO를 대신하여 다른 회사로부터 22,000달러 상당의 워크숍 기구를 구입하였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음.
- 유엔개발계획은 북한에 GPS 시스템, 컴퓨터 및 부대장치, 질량분광계 등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여 제공함.
 - 유엔개발계획은 2006년 6월 북한의 취약 농경지에 대한 홍수와 가뭄 감시를 위한 프로젝트의 일부분으로 65,000달러 상당의 GPS, 6,000달러 상당의 분광계, 여러 종류의 컴퓨터, 프린터 등을 구입한 바 있음.
 - 이 프로젝트는 2000년 영국 정부와 유엔개발계획이 추진한 것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 원격탐사(RS)에 기반을 둔 것임.
 - GIS/RS는 많은 개도국에서 토지이용분류, 자연재해 감시, 농작물 수량 추정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것임.
 - 유엔개발계획은 유사한 사업을 인도와 몰디브에도 시도한 바 있으며 북한에는 2002년 이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진척이 늦어 2006년 국제전문가가 사업을 재평가하였음. 문제가 되는 장비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구입한 것임.

- 북한 지역에 근무하는 유엔개발계획 사무소 직원은 유엔개발계획 계좌에서 여러 차례 예금을 인출하여 수 만 달러에 달하는 위조달러를 유통시킴.
 - 유엔개발계획은 북한 지역 내 사업과 관련하여 위조달러를 사용한 흔적이 없음.
 - 유엔개발계획은 최근 위조자금으로 의심되는 3,500달러를 미국 당국에 송금하였으나 이는 유엔개발계획의 소유 자금이 아니지만 상당기간 동안 북한 내 금고에 보관되었던 것임.
- 유엔개발계획은 북한 내 사업을 염려하는 직원을 보복하였으며 여러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위협을 가하였음.
 - 유엔개발계획은 직원에게 보복을 가한 적이 없음.
 - 다만 과거 유엔개발계획의 북한 사업 단기 자문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한 사람이 유엔개발계획의 사업에 대해 다른 시각에서 우려를 제기한 적은 있음.
 -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유엔개발계획의 상급관리자 등이 검토하였으며 문제를 제기한 개인은 유엔의 감사위원회에서 인터뷰를 하였음.
 - 우려를 제기한 사람은 단기계약이 종결되어 2007년 3월 유엔개발계획을 그만두었음.

자료: <http://www.relief.int> (UNDP, UNDP statement on new allegations about its North Korea programme, Jun. 11, 2007)

□ 세계식량계획, 2007년 대북 식량지원 자원 턱없이 부족

- 세계식량계획은 2007년 대북의 취약계층을 위한 복구지원(PRRO 10488.0)에 총 52,526,685달러가 소요되나 지금까지 지원된 것은 1,898,500달러에 불과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8,153,110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힘.
 - 향후 6개월 동안 추가로 필요한 식량은 곡물 7,601톤, 두류 4,355톤, 식용유 277톤, 기타 765톤임.
 - 이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는 102,234,076달러이며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은 24,791,963달러, 부족액은 77,442,113달러임.
- 북한의 전반적인 식량부족과 경제사정의 심각한 악화 때문에 190만 명의 수혜자에

게 재난구호, 모자보건, 학교급식, 지역개발을 위한 식량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난 5월부터 지원 자금 부족이 심각하여 수혜대상을 대폭 줄이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하반기에는 취약계층의 영양부족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임.

자료: <http://www.relief.int> (WFP, Operational Priorities. Jun 30, 2007).

□ 2007년 상반기 유엔 인도지원자금 2억 100만 달러 지원

- 유엔은 2007년 상반기에 아프가니스탄, 수단의 난민 지원을 위해 유엔중앙긴급지원재원(CERF)에서 2억 1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키로 함.
- 유엔은 2007년부터 유엔중앙긴급지원재원을 통해 북한을 포함하여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파키스탄 등지에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였음.
- 2007년 7월 11일 현재 한국을 포함한 73개국이 재원을 지원하였음.

자료: <http://www.relief.int> (OCHA, UN humanitarian aid fund grants \$201 million in the first half of 2007. Jul. 17, 2007).

나.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 호주, 북한에 인도적 지원 제공

- 호주는 북한에 4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짐.
- 이 지원자금은 유엔기구와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될 것임.
- 호주 정부는 세계식량계획에 150만 달러를 기부하게 될 것이며 이 돈은 190만 명의 주민에게 식량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것임.
- 호주는 또는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해 150만 달러를 기부할 것이며 이 돈은 식수와 위생 증진에 사용될 것임.
- 이외 호주 정부는 긴급 보건 및 기초의약품 지원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 467,000달러, 재난관리와 물공급, 위생 개선을 위해 국제적십자사에 50만 달러를 기탁할 계획임.

자료: <http://www.relief.int> (WFP, WFP welcomes Turkish donation for DPRK and Djibouti, May 04, 2007)

□ 세계식량계획, 터키의 대북 지원을 환경

- 세계식량계획은 터키가 북한과 지부티 지원을 위해 30만 달러를 지원한데 대해 감사를 표함.
- 30만 달러 중 10만 달러는 대북 지원에 사용되고 나머지 20만 달러는 지부티 지원에 사용됨.
- 최근 터키는 세계식량계획에 230만 달러를 기부하였음.

자료: <http://www.relief.int> (WFP, WFP welcomes Turkish donation for DPRK and Djibouti, May 04, 2007)

□ 한국, 육로를 통해 북한지역에 식량 수송

- 한국은 2007년 북한에 제공기로 한 총 40만 톤의 쌀 중 5만 톤을 육로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기 시작함.
- 향후 5주간 3만 톤의 쌀은 개성을 통해, 2만 톤의 쌀은 동해안 육로를 통해 수송하고 나머지 35만 톤은 해상으로 수송할 계획임.
- 관광 및 사업을 위한 통로로 이용되던 동서해안 육로는 2005년부터 식량수송을 위한 통로로 이용되었음.
- 금년 북한에 제공되는 40만 톤의 쌀은 국내산 15만 톤과 수입산 25만 톤으로 구성됨.
- 식량차관 규모는 1억 5,200만 달러이며 10년 거치 20년 상환이고 연리 1%임.

자료: <http://www.relief.int> (Korean Information Service, Korea sends food aid to N. Korea overland, Jul. 20, 2007).

□ 한국, 세계식량계획 통해 북한에 2,000만 달러 상당의 식량 지원

- 한국 정부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2,000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함.
- 통일부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되 평가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함.
- 이번 지원은 40만 톤의 쌀 차관과는 별도로 8월 중 북한에 수송할 계획임.

- 지원규모는 옥수수 12,000톤, 콩 12,000톤, 밀 5,000톤, 밀가루 2,000톤, 분유 1,000톤임.

자료: <http://www.relief.int> (Xinhua News Agency, S.Korea to contribute 20 mln USD worth food aid to WFP to help DPRK, Jul. 02, 2007)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북한의 기상

□ 기 온

- 금년 4월의 기온은 평년에 비해 낮았으나 5월과 6월은 평년에 비해 높았음.
 - 4월의 평균 기온은 8.2도로 평년에 비해 0.3도 낮았으나, 5월의 평균 기온은 15.0도로 평년에 비하여 0.9도 높았음. 6월은 20.5도로 평년에 비해 2도나 높았음.
 - 4월의 경우 지역적으로는 북부 지방의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았을 뿐 중부지역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임.
 - 5월과 6월은 전체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으며 일중 기온도 평년을 상회하였음.
- 금년 1~3월의 평균기온은 평년에 비해 2도 이상 높았으며 이러한 추세는 5, 6월까지 지속되어 벼 이앙작업을 순조롭게 할 수 있었으며 밭작물 파종도 적기에 실시됨.
 - 이른 봄과 초여름의 높은 기온은 작물의 초기 생육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6월에 수확하는 이모작 작물의 작황에도 도움이 되어 금년의 이모작 작물 수량은 평년에 비해 높을 것으로 추정됨.

□ 강수량

- 북한의 동해안 지역은 3월까지 누적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낮았으나 5월까지의 누적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았음.
 - 따라서 함경남북도, 강원도 등 동해안 지역은 벼 이앙작업이나 밭작물의 이식 및 파종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음.
 - 지역별로 보면 4월~6월 동안 동해안지역은 평균이상의 강수량을 보였지만, 북부지역과 서해안지역은 적은 강수량을 나타냈음.
- 서해안 지역은 3월까지의 누적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낮았으나 4월과 5월에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으며 6월에도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강우량을 보여 영농작업에 많은 도움이 됨.
 - 특히 논이 집중되어 있는 서해안 평야지대는 적기에 충분한 비가 내려 모내기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밭작물의 파종이나 이식 작업도 원활히 추진됨.

□ 누적강수량, 4~6월

단위: mm

선봉	삼지연	청진	중강	혜산	강계	풍산
118.8 (210.1)	177.0 (337.4)	150.3 (179.1)	165.2 (223.3)	183.0 (218.9)	119.1 (281.9)	159.0 (248.2)
김책	수풍	장진	신의주	구성	희천	함흥
96.4 (175.1)	228.1 (227.1)	201.3 (272.4)	230.8 (242.0)	234.8 (273.2)	191.1 (262.4)	196.1 (223.3)
신포	안주	양덕	원산	평양	남포	장전
188.6 (203.5)	266.6 (217.2)	255.9 (241.9)	293.1 (291.3)	243.7 (220.0)	215.2 (180.6)	225.4 (313.7)
사리원	신계	용연	해주	개성	평강	
362.2 (214.4)	365.3 (257.7)	287.6 (201.4)	371.1 (249.6)	300.9 (286.8)	339.4 (266.8)	

* ()는 평년 누적강수량을 나타냄.

□ 북한 주요지역의 월평균기온 및 강수량

단위: °C(기온), mm(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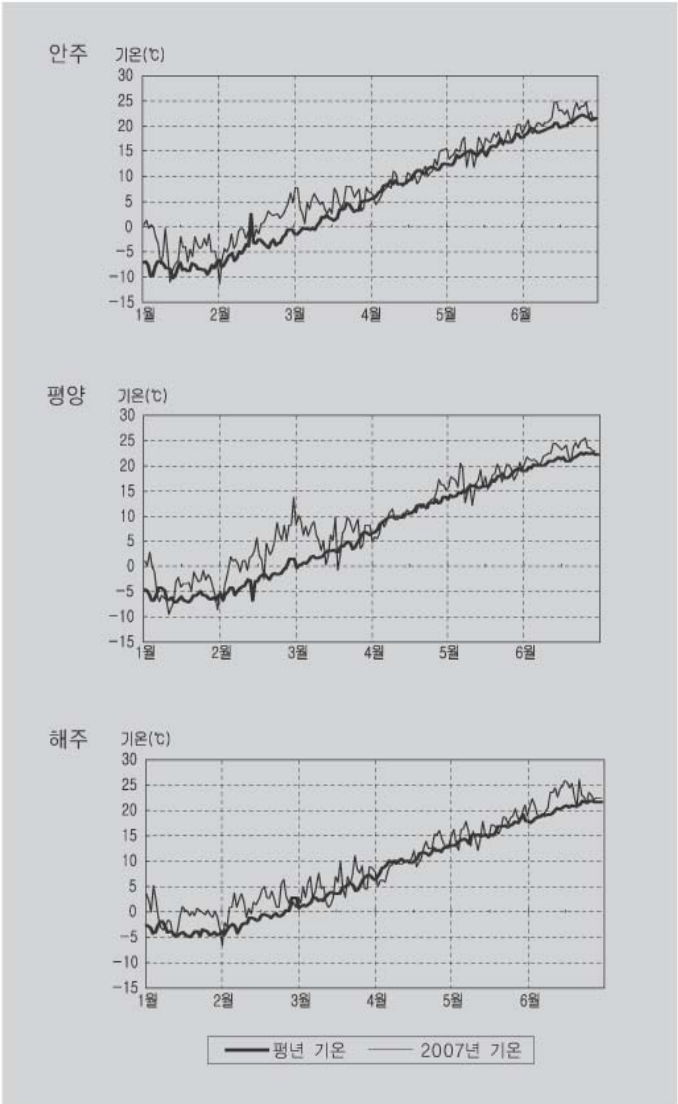
구 분		안주	평양	해주	청진	함흥	원산
4월	기 온	9.8 (9.7)	10.4 (10.5)	10.8 (10.5)	7.5 (7.0)	9.4 (9.7)	10.8 (10.5)
	강수량	84.3 (37.3)	75.1 (53.4)	116.7 (57.4)	55.7 (36.4)	63.9 (54.2)	62.8 (56.6)
5월	기 온	16.7 (15.6)	17.3 (16.3)	16.6 (15.8)	12.7 (12.0)	16.1 (15.3)	16.7 (15.9)
	강수량	88.0 (71.3)	137.4 (68.9)	193.4 (73.8)	52.9 (42.0)	105.6 (57.6)	152.7 (84.7)
6월	기 온	22.1 (20.4)	22.6 (21.0)	22.6 (20.3)	18.1 (15.5)	21.0 (18.6)	21.2 (19.0)
	강수량	94.3 (108.6)	31.2 (97.7)	61.0 (118.4)	41.7 (100.7)	26.6 (111.5)	77.6 (150.0)

* ()는 평년 평균기온 및 강수량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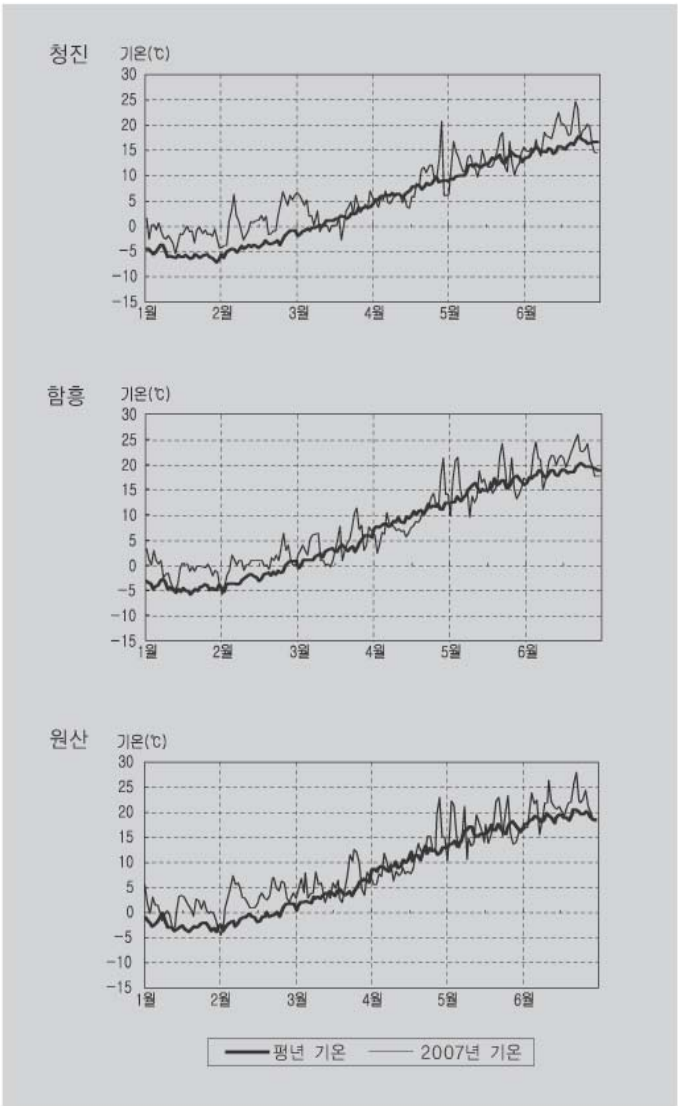
27개 기상관측지역의 평년 기후값 가운데 선봉, 청진, 중강, 혜산, 강계, 신의주, 함흥, 원산, 평양, 사리원, 해주, 개성 등 13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73~1994년이며, 삼지연, 풍산, 수풍, 장진, 구성, 희천, 신포, 안주, 양덕, 남포, 장전, 신계, 용연, 평강 등 14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81~1994년임.

□ 월 평균기온

평균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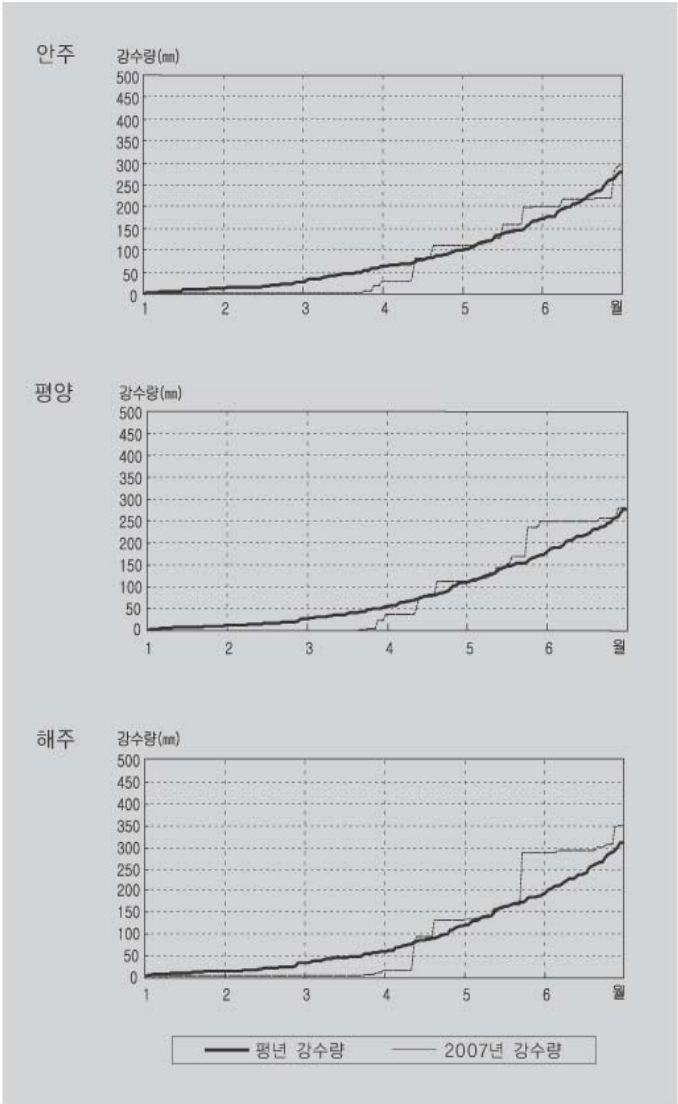


평균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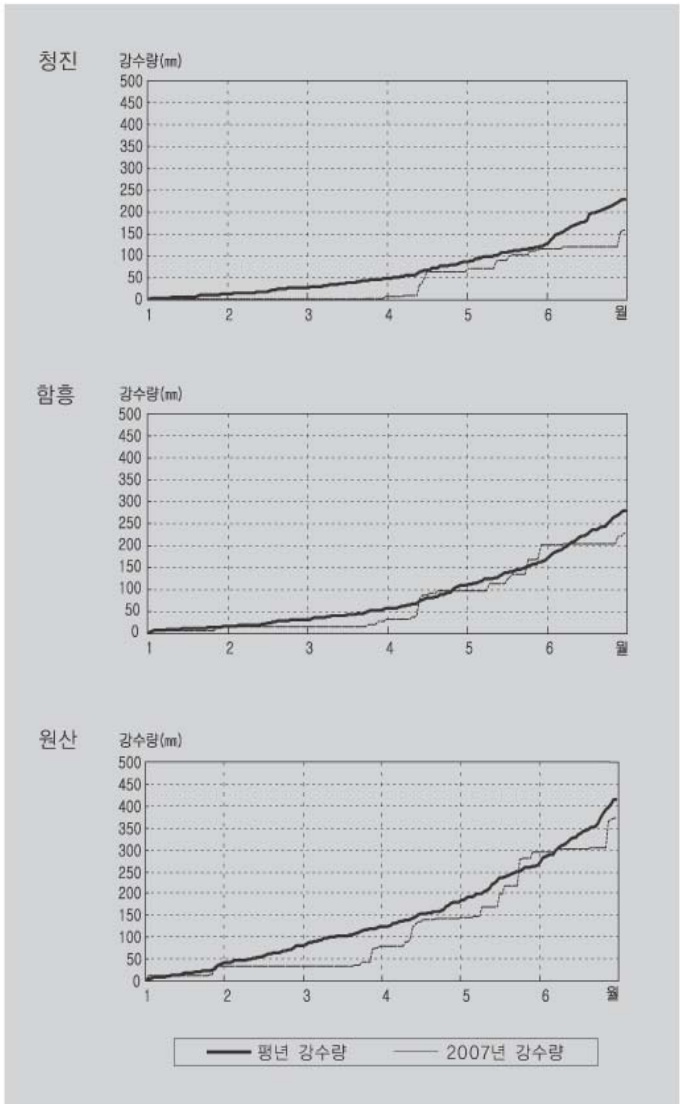


□ 누적강수량

누적강수량



누적강수량



M46-9-2 KREI 북한농업동향 제9권 제2호

적 은 날 2007. 07. 펴낸날 2007. 07.
발 행 인 최 정 섭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등 록 제5-10호(1979. 5. 25)
적 은 곳 경희정보인쇄(주) (代) 031) 907-7534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